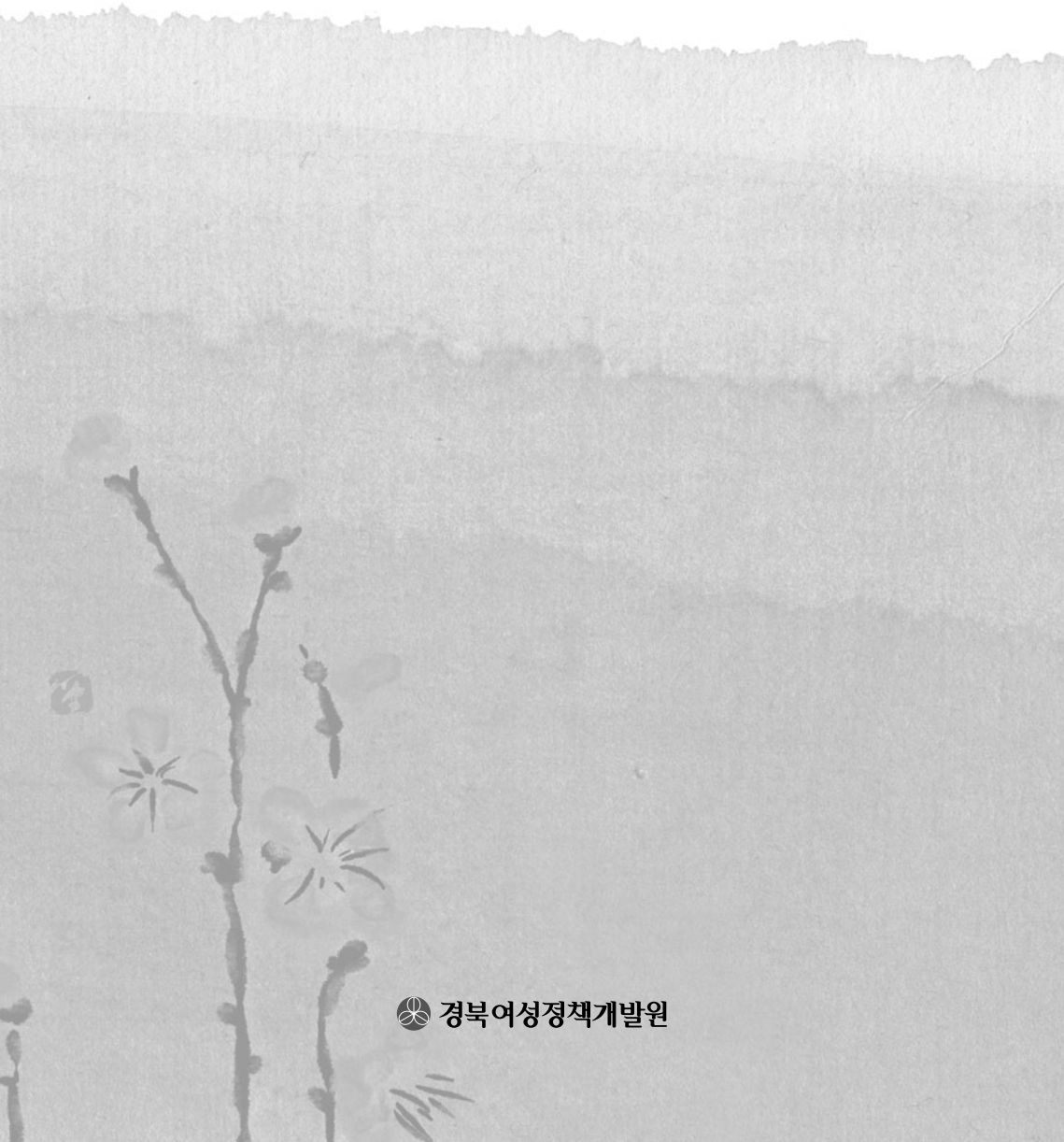
| 경북여성인물사 |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발간사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의 혼과 삶



경북은 신라통일의 정신에서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굽이와 변혁의 순간마다 경북여성들이 함께 했지만 역사 이면의 숨은 내조자로서 위치할 뿐 그 역사적 의미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북여성들은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고, 숙명에 도전했으며 국난 시에는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일국의 왕으로부터 이름 없는 필부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인내와 강인함으로 저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여성의 진정한 삶의 흔적을 찾아 그 발자취를 복원하고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일련의 여성사 발간작업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통사로서의 『경북여성사』(2004)를 시작으로,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2006),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경북여성의 삶』(2007)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지역의 대표적 여성인물인 정부인 안동장씨를 재조명하기 위한 평전(2009, 2011)에 이어 이제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발간이라는 또 다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신라시대부터 한말 ·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다양한 여성의 행적이 테마별로 담겨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들의 삶과 경험을 생생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만나는 경북여성은 한편으로는 소박하고 해학과 기지가 넘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와 강인함의 상징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사표師表, 미래를 경영하는 CEO, 시대의 아픔에 맞선 독립운동가, 선각적 예술가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이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달아 여성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여성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의 발간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고에 의하여 빚어낸 결과입니다. 먼저 이 책을 만들도록 지원해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경상북도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으로 집필에 참여해 주신 이정옥 교수, 최미화 국장, 박희택 교수, 강윤정 실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수를 맡아 꼼꼼히 살펴주시고 자문해 주신 김희곤 안동대학교 교수, 이수환 영남대학교 교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촉박한 편집일정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 작업해 주신 올 댓 트위터 윤주태 대표와 편집진의 노고 덕분에 멋진 책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책은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이 들려주는 경북여성의 혼과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한 재 숙

책 머리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경북의 여성은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음식디미방의 저자 정부인 안동장씨, 무장항일독립운동을 펼쳤던 남자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 그리고...? 짐작컨대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다. 2008년 역사 속 경북의 여성인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 · 경북지역의 오피니언리더 약 6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속 여성인물이 누구인가 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부인 안동장씨, 남자현 정도가 언급되었다. 여성인물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한 예시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여성사와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역여성사를 그동안 너무 등한시 해왔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herstory를 발굴하고 새롭게 재조명해 보려는 노력이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우리 지역 여성들의 역사를 찾아 재조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2004년 통사인『경북여성사』발간을 시작으로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2006), 『구술생애사로 본 경북여성의 삶』(2007), 『경북여성상정립을 위한 경북여성인물사 연구 및 활용방안』(2008) 등 연구사업을 비롯해 지역의 대표적 여성인물인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을 재조명하기 위한 전기 『장계향, 깨달은 조선여인』(2009)과 『G. Mother 장계향 평전』(2011)을 발간하였다.

이번 경북여성인물사 발간은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여성인물사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염두에 두었던 점은 여성인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여성사 연구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사료의 부재 라고 하지만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여성인물들과 관련된 기록이 풍부한 편이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비롯하여 불교, 유교 문화가 꽃핀 곳이며, 독립운동의 성지였고,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한국사의 중심을 이루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성과 더불어 많은 여성인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들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는 5가지의 테마로 구성하여 여성인물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5가지의 테마는 여성, 리더십을 찾다 , 여성, 일상을 역사로 만들다 , 여성,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 여성, 새로운 길을 밝히다 , 여성, 예술을 탐하다 로 각 테마에 부합하는 20명의 인물을 선정해 여성리더, 여중군자, 독립운동가, 육영사업가, 예술가로서의 활동과 면모를 조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리더로서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인물과 그들의 고뇌, 삶을 느껴보기 위해 신라의 세 여왕과 성군 세종대왕을 내조했던 성비聖妃 소헌왕후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안동과, 봉화, 영양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루었다. 무장항일투쟁을 펼쳤던 남자현, 3대에 걸친 독립운동을 뒷바라지 했던 김락, 임청각 종부들을 비롯하여 고령에도 불구하고 소작인운동을 펼쳤던 강경옥과 봉화지역 여성인물의 이야기를 포함하였다. 육영활동에 참여한 여성으로는 마을 숲을 조성해 홍수에 대비하고자 했던 김설보와 학교건립을 통해 계몽활동과 육영사업을 펼쳤던 최송설당의 이야기를 실었다.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던 여성인물로는 문학가 백신애, 명창 박녹주와 박귀희, 시조시인 이영도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했던 깨달은 조선여인 장계향의 삶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 염두에 두었던 점은 선정한 여성인물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하는 서술방법의 문제였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인물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일반 대중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을 만들고자 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연구라 하더라도 독자에게 읽는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인물들의 생애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그래서 책의 부제도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이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집필진이 참여하다보니 가능한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이야기 구성방식이나 문체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인물의 생애만큼이나 다양한 집필자들의 색깔을 곱씹어 보는 책읽기의 즐거움으로 독자들이 혜량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관심있는 독자들이 지역 여성들이 남긴 유적과 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여성인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 현황을 첨가하였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선배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겨진 현장에서 이들의 삶을 보다 생생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보니 새삼 2008년 조사가 다시 떠오른다. 당시 조사에서는 경북여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억척스럽다, 거칠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순종적, 현모양처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억척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와 힘이 크다는 것이었고, 순종적 이다, 현모양처 이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보수적 환경 속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되던 순종을 내면화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소 상반된 대답이지만 사실 이 두 모습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것이 경북여성의 큰 특성인 것 같다.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듯 온화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역경 앞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없이 대식구를 끌어안듯 커다란 어머니의 품으로 시대를 안고, 이웃을 품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이번 작업에서는 비교적 사적 사실이 드러나는 여성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향후 드러나지 않은 일반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경북여성사가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번 작업이 마중물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 경북여성의 역사를 찾아내고 새로 쓰는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획팀 일동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차 례_

발간사
책 머리에

제1장 여성, 리더십을 찾다 이정옥

_ 신라 세 여왕의 리더십 12
인재등용의 리더십, 선덕왕 12
외교의 달인, 진덕왕 38
진성여왕에 대한 오해와 진실 48
_ 성군聖君 세종 뒤에 성비聖妃 소헌왕후가 있었다. 54

제2장 여성, 일상을 역사로 만들다 박희택

_ 여중군자 장계향 66

제3장 여성,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강윤정

_ 만주를 울린 영양의 여장부, 남자현 92

_ 의義를 머금고, 광복의 꽃이 된 안동의 여인들!
의義를 머금은 민족의 어머니 김락 106
만주항일투사의 버팀목이 된 임청각 종부 김우락, 허은 116
만주벌 호랑이, 일송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 130
만주에서 남편을 따라 자결한 김씨부인 143
풍산소작인회 집행위원 강경옥 148
_ 전통과 근대의 표상, 봉화의 여인들
지아비의 길을 따라 의부義婦의 길을 간 권성 156
문학을 꿈꾸던 노동운동가 이효정 168

제4장 여성, 새로운 길을 밝히다 이정옥 · 최미화

_ 생명을 구한 숲의 여인 김설보 176
_ 한국육영사업의 어머니 최송설당 188

제5장 여성, 예술을 탐하다 최미화

_ 일제 사슬에 저항한 불꽃 지성 백신애 214
_ 소리로 한국을 사로잡은 명창 박녹주 232
_ 국악발전의 어머니 박귀희 250
_ 현대 시조 불멸의 탑 이영도 270

● 경북여성인물 유적지 현황 296
● 경북여성 인물별 연보 308
● 참고문헌 323



제1장

여성, 리더십을 찾다

| 이정옥 |
포항시축제위원회 위원장





선덕여왕 어진

신라 세 여왕의 리더십

인재등용의 리더십, 선덕여왕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은 신라 27대왕이다. 어릴 때 이름은 덕만이다. 신라 26대 진평왕과 왕비 마야부인 김씨 사이에 태어난 세 딸 중 맏딸이다. 동생은 천명, 셋째는 선화다. 천명은 훗날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를 낳았으며, 선화는 백제 무왕과 결혼하였다.

아버지 진평왕은 무려 53년간이나 재위했다. 632년 진평왕이 아들 없이 죽자 나라사람들이 추대하여 왕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즉위한 셈이다.

성골聖骨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왕이 즉위했다. 왕의 남편은 음갈문왕飮葛文王이다. 『삼국유사』 왕력편의 기록이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선덕여왕 이전까지는 남자 성골만이 왕이 되었다. 그러나 선덕

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대를 이을 아들 뿐만 아니라 아예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라도 성골인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왕의 자격으로 남성/여성의 구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성골/진골이었던 신라만의 제도였다. 덕만이 비록 여성이었으나 골품을 중시한 당시 왕의 자격 요건에 더 적합하였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성골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질을 충분히 갖춘, 준비된 왕재王才였음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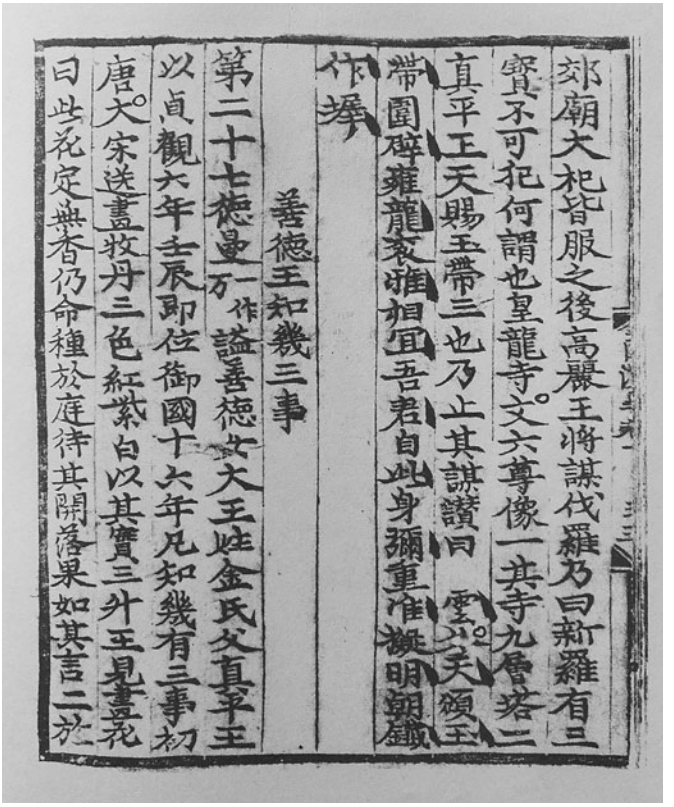
『삼국사기』에서는 덕만은 성품이 관대하고 인자하며 사리에 밝고 민첩하였다 고 하면서 『삼국유사』에도 전하는 모란꽃 그림의 일화를 적어 두고 있다. 『삼국유사』기이편에는 이보다 두 가지의 일화를 더 보태어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을 얘기하고 있다.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 즉 선덕여왕의 지혜로움과 예지력이 탁월하였다는 내용의 일화다.

첫째 이야기는 그녀가 공주시절이었던 때의 이야기다. 당나라 태종이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세 가지 빛깔의 모란꽃 그림과 그 꽃씨 석 되를 보내왔다. 아버지 진평왕이 덕만공주에게 이 꽃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꽃은 비록 아름다우나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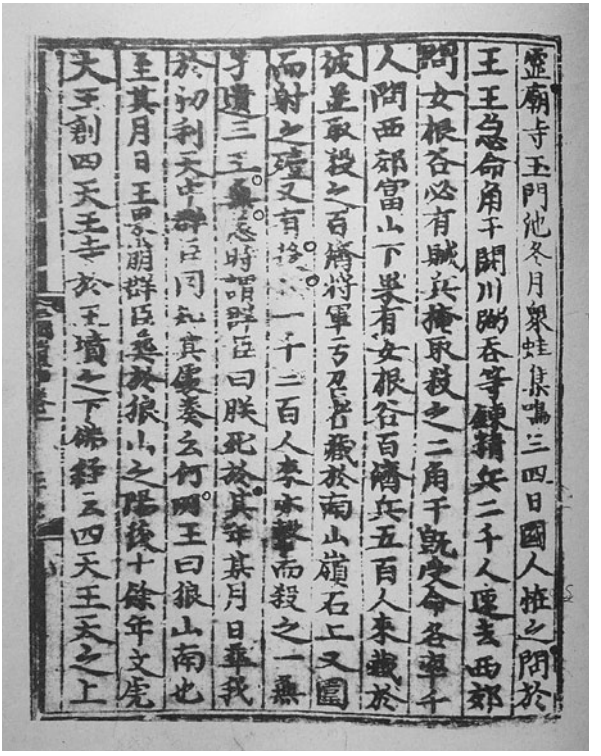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꽃그림을 보니 벌도 나비도 없습니다. 대체로 여자가 아름다우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 아닙니까? 이 꽃그림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벌과 나비가 없는 걸 보니 향기가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편

진평왕이 덕만공주의 말을 듣고 꽃씨를 신하에게 주면서 뜰에 심으라고 했다. 그 꽃이 피고 다 떨어지도록 공주의 말대로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았고 벌과 나비도 날아 오지 않았다. 덕만은 모든 일을 판단하는 식견이 이와 같이 명석하였다 고 하여 『삼국사기』에서는 덕만공주에게 왕의 자질이 충분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 둘째 이야기는 여왕 즉위 5년의 이야기다. 영묘사 옥문지에서 겨울철에 개구리가 떼를 지어 3~4일을 두고 울었다.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들이 한겨울에 마구 울어대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였다.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떠돌았다. 그렇잖아도 연일 이웃나라 백제와의 전쟁에 불안한 신라사람들이었다.

왕에게 아뢰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를 듣자마자 여왕은 명령을 내렸다.

각간 알천과 필탄 등을 시켜 정예군 2,000명을 뽑아 빨리 서쪽 교외로 나가라. 부산(지금의 건천)엘 가면 여근곡(『삼국사기』에서는 옥문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반드시 백제의 적병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습격하여 죽여라. 서둘러라.

두 명의 각간이 명령을 받은 후 각각 군사 1,000명씩을 데리고 서쪽 교외로 가서 물었더니 부산 밑에 과연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 군사 500명이 와서 그곳에 숨어 있었으므로 단번에 잡아 죽였다. 또 백제 장군 우소가 남산 고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으므로 에워싸고 쏘아 죽였다. 또 후원해 온 군사 1,200명도 습격하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다.

셋째 이야기는 여왕의 느닷없는 유언이야기다. 여왕이 아무런 병도 앓지 않을 때인데 갑자기 신하들에게 이른다.

내가 아무 해 아무 날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 장사지내라.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또한 도리천은 어디입니까?

낭산 남쪽이니라.

훗날 여왕이 말하였던 그 달 그 날이 되자 과연 여왕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 여러 신하들은 여왕의 유언대로 낭산 남쪽에 장사하였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문무대왕이 여왕의 능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 고 하였다. 도리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천상세계다. 신라 땅에 그런 곳이 있을까 신하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언과도 같은 여왕의 말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뒤의 일까지도 예언한 것이었다. 문무왕에 의해 낭산 남쪽에 도리천을 지킬 사천왕사가 지어질 것을 미리 알았으니

지혜롭지 않은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은 사천왕사가 지어질 것도 알 정도로 선덕여왕이 신령스러웠다고 예찬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이 기록은



이야기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선덕여왕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여성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경주 건천 여근곡



선덕여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이렇게 지혜와 명민함과 예지 능력까지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성이 왕위에 오른 초유의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또한 선덕여왕은 몇 살에 왕위에 올랐을까.

아버지 진평왕이 죽고 선덕여왕이 즉위한 해는 632년이다. 이 해를 중심으로 주변인물을 통해 여왕의 나이를 추정해 보자. 선덕여왕의 조카 김춘추(진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태종무열왕)는 603년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 김춘추의 나이는 30세가 된다. 김춘추의 어머니이자 선덕여왕의 여동생인 천명의 나이도 짐작할 수 있다. 천명이 최소한 20세에 김춘추를 낳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언니인 덕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들이 30세였다면 천명의 나이는 50세였다. 왕위에 오를 당시 동생 천명의 나이가 50세였다면 선덕여왕도 50세가 넘었음은 확실하다. 선덕여왕은 50세가 훨씬 넘은 할머니 때에 왕위에 오른 것이다.

신라의 왕위 계승을 살펴 보면 사위가 왕이 된 일이 종종 있었다. 탈해왕, 미추왕, 실성왕, 내물왕, 눌지왕, 흥덕왕, 경문왕, 신덕왕 등 8명의 사위가 왕위에 올랐다. 흘해이사금, 지증왕, 진흥왕은 외손자로서 왕위에 오른 사례이다. 이렇게 사위와 외손이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보면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례가 없었으므로 몇 가지 명분이 필요했다.

첫 번째 명분은 당시 왕위 계승 자격 1순위인 성골의 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서열이었다. 고대사회 같은 특수한 신분사회에서 특히 왕실이나 특권층이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이고

우월한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인도의 브라만 같이 성골은 신라의 제일 신분층이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의 경우에는 성골이라는 이유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유독 선덕여왕 때에만 이를 강조한 이유는 성골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성골 여자가 즉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구조적으로 신분 혈통이 그만큼 중요했고 진평왕이 아무리 왕권을 강화해서 기반을 다졌더라도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덕만공주의 개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례를 찾아냈다.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40년 전, 이미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여성천황인 스이코천황(592~628년)이 있었다. 진평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진평왕은 사신을 통해 불상과 까치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잦은 교류를 통해 일본 왕가 소식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진평왕은 내심 일본의 사례에 착안하여 딸인 덕만공주를 왕위 후계자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자도 왕위를 이을 수 있다는 명분이 외국의 사례로 충분하였다. 또한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세력인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선덕여왕을 옹립하는 신흥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최초의 여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를 더 찾는다면 당시의 신라 여성의 지위가 상상 이상으로 만만찮았음을 들 수 있다. 경주에는 박혁거세의 어머니이면서 선도산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선도성모가 있었다. 성모는 중국 황실의 공주였으나 신라를 좋아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자 그의 아버지가 솔개를 보내 선도산에 살 수 있

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또한 지혜라는 비구니가 절을 지으려 할 때 현몽하여 도와주었으며, 이후 점찰법회를 계속하도록 주문하기도 한다. 경문왕이 매사냥을 나갔을 땐, 잃어버린 매를 찾아주는 영험을 보인 여신이 바로 선도성모였다. 또 이 산에는 운제부인에게 제를 올렸다는 제단터도 있다. 운제부인은 신라 2대 남해왕의 왕비로, 죽은 후에 포항 운제산의 여신으로 추앙되어 가뭄을 다스렸다고 한다. 1980년대까지도 신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남해왕의 누이인 아로가 제사를 주관했다는 기록도 『삼국유사』에 분명히 있다. 또 한 명의 여신이 있다. 신라의 충신 박제상의 아내 치술부인이 치술령의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 신라에는 여성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사로서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성이 국신으로 숭배되고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전통이 뿌리내린 사회가 바로 신라였다. 백제의 어머니인 소서노나 고구려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등 이웃나라 백제와 고구려에도 여성의 신격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독 신라에서만 여성 숭배가 오래 지속되었던 것은 그만큼 신라 여성의 지위가 상당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역시 여왕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배경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여왕의 즉위에 신라 사람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 여성의 일상적 지위와 경제력도 남성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경남 울산의 천전리 암각화에는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뿐만 아니라 신라 당시 이곳을 다녀간 일행들의 이름을 적은 기록이 있다. 어사추여라왕 이라는 여성의 칭호도 있고, 같이 온 귀족 일길간지 영지지의 처 거지시해부인 , 사간지 진

지의 처 아육모홍부인, 일리등차부인, 사효공부인 등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귀족 남편과 함께 놀러온 부인들의 이름을 모두 실명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이 존중받고 그들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는 사회적 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손쉬운 척도 중의 하나는 경제력이 아닐까. 신라의 여성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매우 많다. 당대 절이나 탑을 조성할 때 시주한 여성의 이름이 기록에 많이 남아있다. 경북 봉화 취서사의 탑을 조성할 때 이찬 김량종의 막내딸 명단이 재산을 시주했다고 사리함에 적혀있다. 국보 99호인 길항사의 상탑도 생질과 누나, 누이동생 세 사람의 시주로 세웠다는 기록이 뚜렷하게 전한다.

선정을 베풀고, 실리외교를 펴다

이렇게 신라 여성들은 당시의 상속제도였던 균분상속제로 그들에게 속한 재산을 소유하였고 스스로 처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산력을 갖추고 있기도 했다. 신라 당시 주력산업이었던 직물산업에 여성 자신의 이름으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일본으로 수출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 황실창고인 정창원에 보관된 양탄자는 신라에서 수입한 것인데, 그 꼬리표에는 자초랑댁 이라는 제조업체의 브랜드명이 당당히 박혀있다. 이렇게 여성이 노동과 상속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신라였기에 여왕의 탄생이 그다지 큰 저항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삼국유사』보다는 좀더 사실적인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에는 왕의 재위(632년~647년)년간의 치적을 매우 상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여왕은 즉위하자마자 2월에 대신 을제乙祭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10월 들어 찬바람이 불자 전국 각 지방에 특사를 보낸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등 홀로 사는 사람들과 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곡식을 주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가 자식 보살피듯 하는 여왕의 보살핌에 백성들은 우러러 여왕을 따르며 나랏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백성 보살핌은 왕의 재위 중 수시로 있었다. 즉위 4년(635년) 10월에도 이찬 수품과 남편 용수(또는 용찬)를 전국 각지로 파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구휼사업을 행했다. 여왕 즉위 7년(638년) 10월 고구려가 쳐들어와 변방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는다. 장군 알천을 급파하여 백성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에야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백성을 아끼는 자애로움은 결국 고구려의 침공도 승리로 막아냈다.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은 이렇게 나라 안에서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쳤다. 재위 2년 봄 정월에 직접 신궁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신궁의 권위를 빌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제사 후에 죄수를 대사면하고 모든 지방의 세금을 1년 동안 면세하기로 한 것 역시 제사로서 과시한 정통성을 선정으로 연결시키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이런 노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 태종은 선덕여왕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재위 12년(643년) 9월 선덕여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지원을 요청하자 태종은 그대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서 이웃나라의 업신여김을 받으니

이는 임금을 잃고 적을 받아들이는 격이라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당 태종의 이런 내정간섭에 반발하기보다는 당 태종을 달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택했다.

즉위 3년(634년)에는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쳐 사용하였다. 이듬해에는 중국의 당나라가 사신을 보냈다. 당 태종은 선덕여왕을 주국낙랑군공신라왕柱國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하고 아버지 진평왕의 봉작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여 명실상부 신라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왕 즉위 5년(636년)에는 이찬 수품水品을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백제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기습하기 위해 몰래 침투해 왔으나, 미리 알고 알천을 보내 몰살시켰다. 이 사실은 선덕여왕의 예지력을 기록한 삼국유사의 내용과 일치한다.

637년에는 이찬 사진을 서불한으로, 알천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그 이듬해 10월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 왔으나, 대장군 알천이 이를 격퇴하였다. 또 이듬해 지금의 강릉 지방인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만들고, 사찬 진주에게 이 성을 수비하게 하였다.

640년(선덕왕 9년)에는 당 나라로 유학생을 보냈다.

642년(선덕왕 11년) 정월에는 사신을 당으로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7월에는 백제의 의자왕에게 미후성 등 40여 개의 성을 빼앗겼다. 이어 8월에 백제가 고구려와 모의하여 당으로의 통로인 당항성을 빼앗았고, 대야성(지금의 경상남도 합천)마저 백제에게 함락되었다. 이때 김춘추의 사위인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그리고 용석이 전사하였다.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나 실패하였다. 백제의 잇따른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선덕여

왕은 이듬해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요청하고, 김유신을 압량주(지금의 경상북도 경산) 군주로 임명하였다. 이 해에 당 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공부하던 고승 자장이 돌아왔다.

즉위 12년 정월에 방물을 당에 보내고 9월에는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였다. 이때 당 태종은 세 가지의 계책을 내놓으면서 여왕이 나라 다스림을 비꼬았다. 그러나 여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다. 그 이후 당의 태도가 신라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

여왕 즉위 13년(644년) 정월에 또 왕은 당나라에 방물을 바쳤다. 이때 당 태종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사신을 보내어 신라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면 당에서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고구려는 말을 듣지 않았다. 9월에 왕은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백제를 공격하게 했다. 김유신은 크게 승리하여 일곱 개의 성을 빼앗았다.

645년(즉위 14년) 정월에 또한 당에 방물을 바쳤다. 백제의 연이은 침공이 있었다. 그 해 여름에 당 나라 태종이 직접 고구려를 공격하자, 여왕은 군사 3만을 동원해 이를 도왔다. 하지만 백제가 이 틈을 타서 신라를 습격하여 서쪽의 일곱 성을 빼앗았다. 11월에 이찬 비담을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647년(즉위 16년)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참패했다. 그 해 8월에 선덕여왕은 사망하였고 유언에 따라 낭산에 장사지냈다. 진평왕의 동복 아우인 갈문왕 국반國飯(국분國芬이라고도 함)의 딸인 승만勝曼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선덕여왕에 연이어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왕이 된 진덕여왕眞德女王이다. 진덕여왕 원년 정월 17일에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어 비담 등 30여 명이 처형되었다.

이상의 『삼국사기』 기록을 종합하면 선덕여왕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기틀을 다진 당찬 여왕으로 평가받는다.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을 어루만졌으며 구휼사업에도 힘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여왕 당대의 국내외 정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쪽의 백제와 북쪽의 고구려가 끊임없이 변방을 침범했고, 국경 가까운 곳의 땅을 빼앗고 빼앗기기를 반복했다. 그 와중에 김춘추의 사위 품석이 죽기도 했고, 고구려에 사신으로 간 김춘추가 잡혀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때 여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도발에 대해 능력있는 장군들을 발탁하여 이에 대처하게 함과 동시에 당의 도움을 청하는 실리적인 원거리 외교정책을 폈다. 매해 정월 사신을 보내어 당 태종을 감동시켰으며, 그 덕에 당이 고구려를 위협하게 하기도 하였다.

탁월한 인재등용책을 쓰다

선덕여왕은 전선을 누빌 수 없는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 지혜로운 왕은 탁월한 용병술, 용인술로 이를 극복한다고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선덕여왕에게 뽑힌 최고의 인재는 김유신과 김춘추였다. 진골이기는 하나 가야의 후손이라는 치명적 약점으로 당시 신라 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을 김유신과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라는 신분적 약점을 지닌 김춘추를 과감히 등용했다. 소외받은 사람들의 한이 긍정적으로 표출될 때 엄청난 위력이 된다는 사실을 선덕여왕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주었다.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이런 신진인사 등용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삼국통일의 주역이라면 그



분황사



들을 등용한 선덕여왕은 신라 삼국통일의 기초를 세웠다.

또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당대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진문명지 당으로 많은 유학생을 보냈다. 여왕은 즉위 9년(640년) 신라의 많은 자제들을 당으로 유학 보내면서 친히 당 태종에게 국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이때 당 태종은 천하의 명유들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강론케 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은 관리로 등용하고 있었다. 주위의 많은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들어왔으며 학사 1,200 칸을 증축하여 학생 3,260명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왕은 이 정보를 입수하여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인재 육성책을 쓴 것이다.

여왕 즉위 5년(636년)에는 자장慈藏 법사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당 나라에 갔다. 8년만에 귀국한 자장은 12년(643년) 2월에 돌아온 이후부터 여왕의 불교적, 문화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다양한 문화업적을 이루다

선덕여왕은 다양한 문화적 업적을 이루어낸 왕이기도 했다. 선덕여왕 3년에 서라벌 북천 남쪽에 절을 세우고 분황사라 이름 지었다. 분황사芬皇寺. 향기로운 황제의 절. 바로 선덕여왕의 음덕이 온 나라에 꽃향기같이 흩날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은 절이다. 분황사에는 돌을 벽돌같이 깎아 만든 탑이 있는데 이 탑에서 나온 돌 사리함에서 여왕이 지녔던 물건으로 보이는 유

물이 대거 나왔다. 실패, 바늘통, 가위, 그리고 금바늘과 은바늘 등 바느질 용구들이었다. 왕이 곧 부처라고 믿었던 신라의 불교적 신앙을 미루어 보면 이 절은 왕실사찰인 동시에 또한 선덕여왕의 개인적 염원이 크게 담긴 절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왕이 절의 이름에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간곡한 호국의지를 실었음을 당시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분황사에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과 관련한 일화들이 유난히 많다. 눈먼 딸을 둔 희명이 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분황사 북벽 천수천안관음보살에게 빌며 「도천수대비가」 혹은 「맹아득안가」라는 향가를 지어 부르자 그 딸이 눈을 떴다는 일화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또 38대 원성왕대에는 분황사 우물에 사는 용의 아내들이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한다. 남편이 중국의 사신들에게 잡혀갔다는 얘기였다. 원성왕은 즉각 그들을 따라 잡아 분황사 우물에 풀어주자 세 마리 물고기로 변해 잡혀갔던 용들이 다시 돌아왔으며, 그 이후 분황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금도 분황사에는 삼룡변어정 이라는 이름의 우물이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영묘사도 낙성했다. 영묘사靈廟寺. 혼령을 모신 절이다. 여왕 재위 중 단 한 해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영령들을 위해 지은 절이다. 여왕은 그가 지은 수많은 절중에서도 이 영묘사에 가장 자주 들렀다.

선덕여왕은 여성이 아니라면 능히 전장에 직접 뛰어 진두지휘할 여장부였다. 그러나 여성인지라, 또한 노구의 몸으로 전장에 나가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영묘사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달랬다.



황룡사 복원도

황룡사는 신라 당대 최고의 절이었다. 여왕 즉위 5년(636년) 3월 여왕이 병이 들자 이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여는 등 불법의 힘에 크게 의지하였다. 불력에의 의지는 개인적인 취향만이 아니었다. 여왕에게 부처의 힘은 곧 국가를 지키고자 함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신라 최대의 절 황룡사에 동양 최대의 탑을 세운 것도 선덕여왕의 호국의지의 발로였다.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자장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기도 했다.

중국에 유학하던 자장법사가 오대산에서 수도하던 중 꿈에서 현신한 문수보

살을 만난다. 또 대화지라는 곳에서 신령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신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비책을 묻자 아래와 같은 계시를 준다.

대궐 남쪽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4층은 탁라,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을 진압시킨다.

선덕여왕은 자장법사의 전언을 듣고 신중한 상의를 거친 후 탑을 축조한다. 당시의 탑은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적 조형물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외침이나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염원을 담는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선덕여왕은 분황사, 영묘사를 비롯하여 전국에 20여 개의 절을 지었다.

첨성대도 선덕여왕 당시의 축조물이다. 하늘은 나랏일을 하는데 절대적 신성이었다. 하늘의 변화무쌍함은 곧 나라의 기쁨과 재앙을 예언하고 가늠하는 잣대였다. 그러기에 신라 초기에는 여신이나 여성들이 나라의 큰 제사를 담당하여 하늘을 섬겼다. 『삼국사기』에 유독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사나 흙비가 내렸다는 등의 기사가 많은 것도 이러한 하늘의 신성능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첨성대에 대한 당시 기록은 단 한 줄밖에 없다. 그래서 첨성대의 역할과 소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천문관측용이거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설이 팽팽하다.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든, 하늘에 제사를 지내든 간에 선덕여왕은 하늘의 힘을 간절히 빌어 국가의 융성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축조물, 첨성대(국보 제31호)를 지었다.

유교적 관점 그리고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김부식은 『삼국

사기』에서 여성이 임금이 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 이라고 했지만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왕이 또 다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10여 년 후 삼국을 통일했다.

여왕을 사랑한 지귀

여왕을 짝사랑한 천한 백성을 어여삐 여긴 여왕의 이야기는 신라수이전과 대동운부군옥에 전한다. 『삼국유사』이혜동진조의 기사와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지귀는 활리역의 역리였다. 역리라는 천한 신분이었던 그는 선덕여왕을 한 번 본 후 덜컥 상사병에 걸렸다. 감히 여왕을 사랑하다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그 또한 너무나 분명히 잘 알기에 괴롭고도 아팠다. 여왕이 사무치게 그리우면 울고, 여왕이 눈에 어른거리면 잊게 해 달라며 소리치며 기도도 올렸다. 그러나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여왕을 사모하는 괴로움은 더욱 커지기만 했고 날로 초췌해 갔다.

까닭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귀를 비웃으면서도 연민하고 동정했다. 당치도 않은 그의 사랑을 서라벌 땅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다. 자연 여왕의 귀에도 들렸다.

홀로 여왕을 사랑하며 마음의 병을 키워 죽어간다는 지귀. 여왕을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 우러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룬다면 단박에라도 병이 낫겠다는 불쌍한 지귀. 그 또한 여왕의 백성이 아닌가.

여왕은 지귀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어 가엾은 백성을 아끼고 싶었다. 가까이 사람을 시켜 아무 날 아무 시에 영묘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여왕은

그녀가 지은 무수한 절 중에서도 유독 영묘사를 자주 찾았다. 삼국통일의 전장에서 전사한 수많은 영령들을 모셔 둔 절이었기에 백성을 아끼는 왕으로서라기보다 아들 잃은 어미의 심정 헤아리듯 영묘사를 찾아 그들의 영혼을 달래며 극락왕생을 비는 탑돌이를 하곤 했다.

여왕의 연통을 받은 지귀는 뛸 듯이 기뻤다. 벌써 그의 병은 씻은 듯했다. 그날이었다. 드디어 사무치게 그리운 여왕을 만나는 그날이었다. 지귀는 이른 아침부터 영묘사 탑 아래에 가서 여왕의 행차를 기다렸다. 그리움이 고통이 되어 겨울날 얼음장 같았던 지귀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그의 마음은 두둥실 구름 위를 날 듯했다. 잠시 후 여왕을 만난다는 기쁜 마음에 여태 자지 못했던 오랜 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깜빡 잠이 들었다. 더없이 달콤하게 잠들었다. 야위었으나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때 마침 여왕은 불공을 마친 후 탑돌이를 하려 거동했다. 잠든 지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목숨을 건 무모한 사랑을 한 이. 가엾고 천한 백성. 곤히 잠든 그가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그를 깨우려는 옆의 사람들을 여왕은 말렸다. 대신 조용히 팔찌를 빼 지귀의 가슴에 얹어 주었다. 날 본 듯 하여라.

얼마나 지났을까. 지귀는 소스라쳐 깼다. 날은 이미 어둑사리가 내려앉았다. 여왕의 행렬이 지나간 경내는 깊은 바닷속인 양 조용했다. 그렇게나 사무치던 여왕을 만날 기쁨의 순간도 까맣게 사라졌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지귀는 가슴을 탕탕치며 몸부림치며 귀신처럼, 괴물같이 소리 질렀다. 가슴을 쥐어박던 지귀의 손은 불방망이었다. 불방망이는 그를 불로 변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불이 되었다. 심화心火. 화귀火鬼. 순식간에 영묘

사의 탑을 태웠다. 그리고는 하늘로 솟구쳤다. 그 날 이후 서라벌엔 이곳 저곳에서 불이 잦았다. 사람들은 불귀신으로 변한 지귀가 불을 질러댄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소식을 들은 여왕은 아무 말없이 시를 적었다. 불귀신이 된 지귀를 달래는 애절한 시였다. 또 다시 불이 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라벌 사람들에게 이 시를 주문처럼 부르도록 했다.

지귀의 마음 속 불화가 몸을 태우고 불귀신이 되었구나.
부디 머나먼 바다로 떠나다오. 만나지 못하여 서로 친할 수 없음을 어쩌랴.

이후 지귀는 다시 불을 내지 않았고, 서라벌 백성들은 이 시를 문에 붙여 불을 방지하는 부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불귀신으로 변한 지귀를 달래기에도 화마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도 여왕의 자애로움은 끝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고려 때 지어진 『신라수이전』, 이후의 『대동운부군옥』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님을 『삼국유사』가 증명한다. 당시 오어사에 있던 혜공스님이 풀로 새끼를 잔뜩 꼬아 영묘사를 찾았다. 그는 새끼줄로 금당과 경루와 남문의 낭무를 둘러 묶고는 이렇게 일렀다.

"이 새끼는 3일 지난 후에 풀어라."

워낙 신통력 있는 스님의 말씀인지라 그대로 따랐다. 과연 3일 후 여왕의 행차 후 지귀의 심화로 영묘사 탑을 태웠다. 그러나 혜공스님이 새끼를 둘러친 곳만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한다.

선덕여왕을 경모하는 여성들

몇 해전 우리나라 고액권 화폐에 여성을 모델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 중 선덕여왕 또한 강력한 후보였다.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는 선덕여왕을 기리는 숭모전이 있다. 해마다 3월에는 대구의 선덕여왕숭모회가 주관하는 선덕여왕숭모제가 개최된다.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지은 20여 개가 넘는 사찰 중의 하나였기에 그 뜻을 숭모하는 행사는 뜻깊다.

최근 경주에서는 선덕여왕 경모회 가 창립되었다. 여왕의 탄생지이자, 여왕의 유적이 가장 많으며 여왕릉이 있는 경주에서 선덕여왕을 기리는 여성단체가 하나 없다는 것과 여성행사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긴 뜻있는 여성들의 모임이다. 매년 여름 여왕의 기일에 맞춰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덕여왕릉의 능참봉으로 여성(김영숙)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대구 선덕여왕숭모제



진덕여왕릉(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소재)

외교의 달인, 진덕여왕

선덕여왕이 후계자로 정한 여왕

신라 28대 진덕여왕은 창졸간에 붕어한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여왕이다.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의 동생 국반 갈문왕의 딸이니, 선덕여왕과는 사촌지간인 셈이다. 8년간 재위했다.

전대의 선덕여왕은 비담을 상대등에 임명했다. 상대등은 신라왕 다음 제2권력자였다. 왕위 계승자가 마땅히 없을 경우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지위였다. 상대등에 오른 비담은 여성왕은 좋은 통치를 할 수 없으므로 여왕의 통치를 따를 수 없다며 호시탐탐 왕위를 노렸다. 그에게는 또 하나 가당찮은 명분이 있었다. 646년 당 태종이 신라의 선덕여왕을 비웃은 예가 그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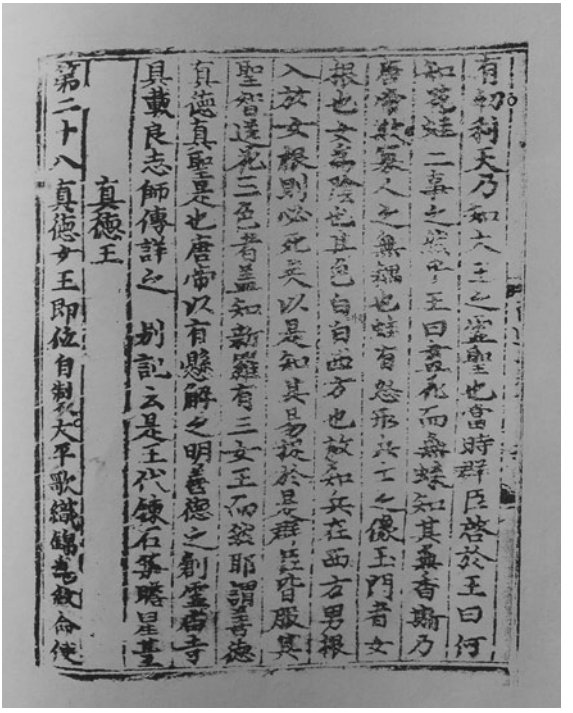
> 신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웃나라들이 경멸하고 있다. 또한 주인을 잃은 채 도적이 들끓고 있으니 앞으로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비담은 선덕여왕을 축출할 난을 일으킬 귀족세력들을 대대적으로 규합하였다. 수많은 귀족들이 가담한 반란군들이었다. 때마침 647년 어느 여름날, 한밤중에 반월성에 큰 별이 떨어졌다. 비담을 비롯한 선덕여왕을 몰아내려는 반란군은 이 혜성을 보고 승리를 장담했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믿고 등용한 인재들은 그들보다 더욱 명민했으며 충성스러웠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그들이었다.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선덕여왕의 세력들은 꾀를 내었다. 연에 불을 붙여 바람을 이용해 하늘로 날렸다. 마치 별이 하늘로 날아 간 것 같았다. 떨어진

별이 하늘로 다시 오른 것을 보자 반란군은 동요했으며, 김유신은 쉽게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다. 비담의 난은 무위로 끝났으나 이 반란의 와중에 선덕여왕은 그녀의 예언대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공주가 바로 왕위를 잇는다. 연이은 여왕 탄생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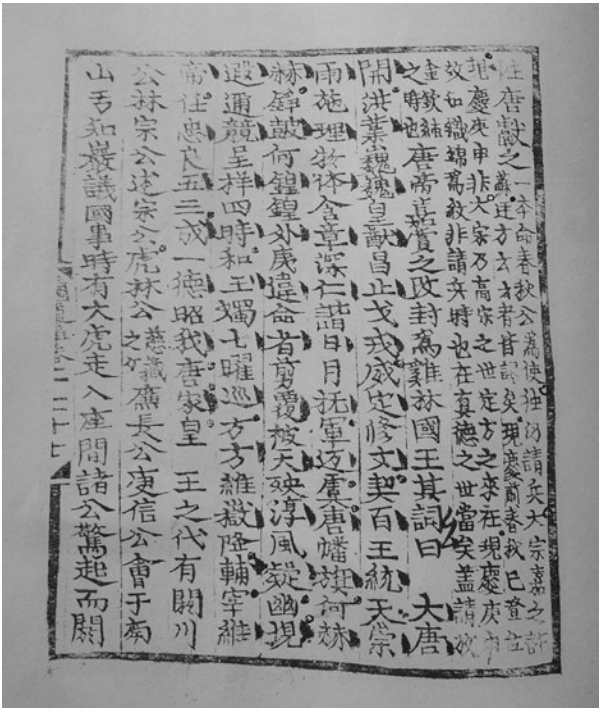
선덕여왕 붕어시, 김유신은 있었으나 측근 중의 측근인 김춘추는 일본에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진덕여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덕여왕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죽음을 예견했듯이 승만공주를 후계자로 지목



할 사전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해석한다. 따라서 비담에게는 승만 공주에게 양위될 왕위에 대한 불만이 반란의 더욱 큰 기폭제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반란은 10여 일만에 평정되었고 진덕여왕이 즉위한다.

국가패러다임을 변화시키다

진덕여왕은 즉위하자마자 선덕여왕을 몰아내려 쿠데타를 일으킨 비담의 무리들을 평정하여 나라 안살림을 챙겼다. 정월 17일에 비담과 그 무리 30여 명을 모두 죽이고, 2월에 이찬 알천을 상대등으로 승진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하





『삼국유사』

였다. 이 때 바로 당 태종은 사신을 파견하여 선덕여왕을 광록대부로 추증하고 진덕여왕을 주국낙랑군왕으로 봉하였다. 그러자 7월에 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례하면서 연호를 태화太和로 삼았다. 10월에 백제가 쳐들어왔다. 김유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어 싸우게 하였다. 기세가 불리하였으나 용감한 김유신의 부하들이 장렬히 전사하는 것을 지켜 본 장병들의 기세로 백제군 3,000여 명을 물리치는 개가를 올렸다.

여왕은 즉위 후 10달이 지난 후인 11월에야 나흘신궁에 제사를 올릴 수 있었다. 여왕의 즉위 후 국내외 정세는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갔던 터였다.

즉위 2년(648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보냈다. 백제의



『삼국사기』

공습은 여전하였으며 김유신의 연승도 이어졌다. 그때 여왕은 김춘추 등 유능한 인재들을 사신단으로 조직하여 당으로 보냈다. 특히 당태종은 김춘추를 아껴 가까이에서 신라의 정세를 묻기도 하고, 당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즉위 3년(649년) 여왕은 중국의 의관으로 조복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김유신은 백제의 도발에도 연이어 크게 이기는 중이었다. 여왕은 그 이듬해 백제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음을 당에 알리면서 태평송을 지어 당 고종에게 수를 놓아 바쳤다. 고종은 크게 기뻐하면서 사신으로 갔던 법민(후의 문무왕)에게 큰 벼슬을 주었다. 이때부터 당의 연호도 함께 쓰기 시

작하였다.

651년, 여왕 즉위 5년부터 정월 초하루에 조원전에서 백관들의 신정하례를 받았다. 이후 여왕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당에 조공을 보냈으며 이에 당 고종은 크게 애도하여 예의를 갖추어 조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왕의 통치 내용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통치스타일은 부분적으로는 닮았으나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 면도 있다. 선덕여왕이 불교의 힘을 빌려 왕권을 강화하고 호국에 주력한 반면에 진덕여왕은 불교에 의지하기보다 외교정책과 관부의 개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



진덕여왕릉 표지석

태평송, 그리고 당의 지원

대당大唐 큰 왕업王業을 개창하니 / 높디높은 황제의 포부 빛나도다.
전쟁을 그치니 천하가 안정되고 / 전 임금 이어받아 문치를 닦았도다.
하늘을 본받음에 기후가 순조롭고 / 만물을 다스림에 저마다 빛나도다.
지극한 어짊은 해 달과 짝하고 / 시운時運을 어루만져 태평으로 나아가네.
깃발들은 저다지도 번쩍거리며 / 군악소리 어찌 그리 우렁찬가!
명을 어기는 자 외방外方 오랑캐여 / 칼날에 엎어져 천벌을 받으리라.
순후한 풍속 곳곳에 퍼지니 / 원근에서 다투어 상서祥瑞를 바치도다.
사철이 옥촉玉燭처럼 고르고 / 해와 달은 만방을 두루 도네.
산악의 정기 어진 재상 내리시고 / 황제는 신하를 등용하도다.
삼황오제三皇五帝 한 덕을 이루니 / 길이길이 빛나리 우리 당나라.

「태평송」

진덕여왕이 친히 지어 비단에 수를 놓아 당 고종에게 보낸 태평송太平頌이다. 이보다 더 극진한 아부의 시를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써 당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구나 비단에 수를 놓아 보내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를 감동시켰다. 이러한 여왕의 외교술은 더러 역사학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한다. 외교적 굴욕이라는 평가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진덕여왕에게 있어 이러한 정도의 외교는 강대국과의 전략적 제휴라는 해석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까.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그것을 외교정책으로 이용한 것은 그 나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평

가가 전혀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나라를 건사하고 백성을 보호하려면 이보다 더한 것인들 못하랴. 중국의 연호 영휘永徽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진덕여왕도 선덕여왕과 마찬가지로 여성인지라 직접 전장을 돌며 군사를 격려하거나 진두지휘하지 못했다. 그도 언니 선덕여왕처럼 인재들을 백분 활용하여 참모로 삼아 나라 안팎을 다스려야 했다. 중국에 원군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다. 중국도 당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이었다.

먼저 김춘추를 사신으로 당에 보냈다. 백제를 물리칠 원군 요청의 긴한 부탁의 임무를 지웠다. 돌아온 김춘추는 당 황제 고종의 즉위를 축하할 겸, 그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야 한다고 왕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주문한다.

비단에 오색실로 수놓은 시, 태평송은 그래서 지어진 시다. 세계 제국의 위엄과 문화적 우월성을 지닌 당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의 문체도 당에서 다듬어진 격식을 충실하게 갖추었다. 기왕 당의 힘을 빌 것이면 확실히 하자. 당을 본떠 복제服制도 개편하였다. 김춘추의 아들들, 법민과 인문을 연이어 보내고 불러들이며 당 고종의 분위기를 읽고, 친교를 돈독히 하는 외교 전략을 폈다. 전략은 적중하여 재위 8년 후 진덕여왕이 승하하자 당 고종은 비단 300필과 함께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할 정도로 진덕여왕을 위하였다.

역사가들은 이같이 당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라면 손수 시를 지어보내기를 마다치 않을 정도로 탁월한 외교정책을 구사한 진덕여왕을 일컬어 국가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최고의 여성CEO 란 찬사를 바친다.

역시 그녀는 여장부였다

진덕여왕은 타고난 자태가 풍만하고 아름다웠으며 키가 7척(약 175cm)이나 되고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재위 8년간(647년~654년) 진력을 다해 나라와 백성을 보호했으며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

현재 우리들은 신라의 삼국통일은 김유신과 김춘추, 그리고 문무왕 등 세 영웅의 업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통일의 역군으로 성장시킨 것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두 여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삼국통일이 시대적 과업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 리더였고, 김유신과 김춘추 두 인재를 발탁해 그들의 역량을 최대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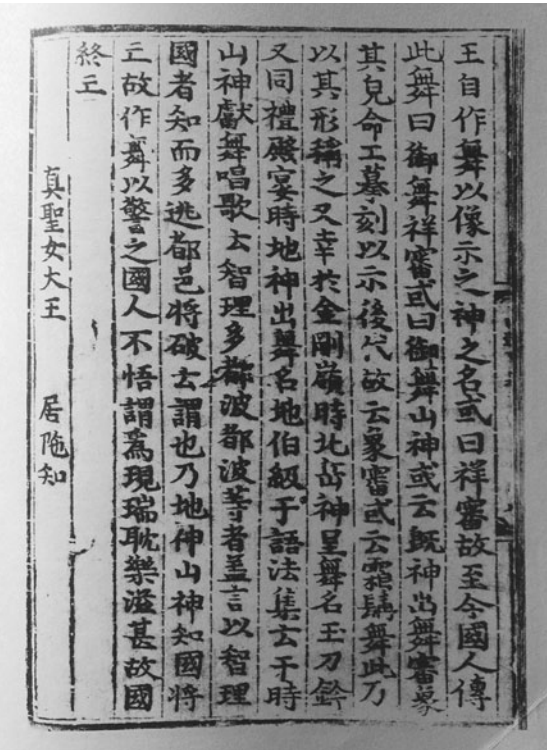


진성여왕의 행적과 사랑의 확인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해인사 보경당에 안치되어 있는 쌍둥이 비로자나불은 진성여왕이 각간 위홍과의 사랑을 연민하여 만든 불상이라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팽팽하다.

책임 정치의 원조, 진성여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책임을 다한 후 스스로 왕위 물러나다

진성왕은 신라 3인의 여왕 중 마지막 여왕이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250여 년 후 또 한명의 여성이 왕위에 오른다. 진성여왕이다.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통일 당대에도 그러했듯이 통일신라 후기까지 신라인들은 여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았다. 단지 신라 멸망 후 고려인의 입장에서 씌어진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여왕의, 특히 진성여왕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에게 비교적 후했던 『삼국유사』도 진성여왕에게는 부정적 평가를 했을 정도다.


王自作舞以像示之神之名或曰祥審故至今國人傳
此舞曰御舞祥審或曰御舞山神或云既神出舞審象
其兒命工摹刻以示後代故云象審或云霜鶴舞此乃
以其形稱之又幸於金剛嶺時北岳神呈舞名玉刀鈐
又同禮慶宴時地神出舞名地伯級干語法集云千時
山神獻舞唱歌云智理多都波都波等者盖言以智理
國者知而多逃都邑將破云謂也乃地神山神知國將
亡故作舞以警之國人不悟謂爲現瑞耽樂滋甚故國
終亡

眞聖女大王　居陁知

『삼국유사』

당나귀 귀 이야기로 유명한 경문왕이고, 어머니는 헌안왕의 장녀로 뒤에 문의황후에 봉해진 영화부인 김씨이다. 헌강왕과 정강왕의 동생이었다.

진성여왕의 진면목을 알려면 그녀가 왕으로 즉위한 연유를 알 필요가 있다. 49대 헌강왕이 매우 어린 아들(후에 효공왕)을 두고 죽자 그의 동생이 즉위하여 50대 정강왕이 되었다. 그러나 정강왕도 즉위 1년만에 갑자기 죽게 된다. 조카는 여전히 어렸다. 어린 조카가 왕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만 왕의 자리에 있기로 하였다.

여왕 재위 연간에는 국내외 정세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민중들은 동요하였으며 도둑도 들끓었다. 스스로 왕이라 일컬으며 국호를 후백제라 한 궁예가 호시탐탐 서라벌을 넘보고 있었다.

여왕 즉위 8년(896년) 2월에 최치원이 시무십여조를 올리자 이를 가납하고 아찬으로 삼는 등 여왕은 국기를 바로잡으려 무진 애를 쓰던 터였다. 그러나 궁예의 도발과 나라 안팎 도적들로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자 여왕은 헌강왕의 서자 요를 태자로 삼는 결단을 한다. 옛날 헌강왕이 사냥길에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여왕은 그를 불러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한다.

> 나의 형제자매의 골격은 남과 다른 점이 있다. 이 아이도 등 위의 양쪽 뼈가 솟아오른 것을 보니 참말로 헌강왕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는 곧 신하들에게 명하여 태자로 봉하는 예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2년 뒤, 여왕은 즉위 11년(899년) 좌우의 군신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려는 뜻을 밝힌다.

최근 들어 백성들은 곤궁하고 도적이 봉기하니 이는 나의 부덕한 탓이다. 나는 어진 사람에게 양위하고 왕의 자리를 피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 조카 요의 인물됨을 칭송하면서 왕의 재질이 충분함을 알린다. 10여 년 동안 왕좌를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에 연연하여 초발심의 평정을 잃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진성여왕, 그 후 그리고 최근의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권력 야욕에 집착한 최고 권력자를 수도 없이 목도하지 않았던가.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도 수없이 죽이고, 형제지간의 골육상쟁도 마다않던 조선의 숱한 왕들. 최근의 현대사에서도 그런 역사는 되풀이 되곤 하였다. 진성왕은 그런 점에서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고 스스럼없이 권좌를 물러서며, 책임을 다한 흔치 않은 왕이라는 점에서 칭송받아 마땅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이 왕의 은혜가 바다같이 넘쳤다 고 진성여왕을 성군으로 묘사하였던 역사적 진실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 받지 못한 진성여왕에 대한 진실

즉위한 지 1년만에 병에 든 정강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유언한다.

나는 병이 심하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듯하다. 게다가 불행히도 대를 이을 자식도 없다. 그러나 여동생 만曼은 천성적으로 자질이 명석하고 골상이 대장부와 같다. 여러 신하들은 마땅히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고사를 본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신라의 왕은 모두 56대이다. 진성여왕은 51대이니 그 이후로 다섯 왕이 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멸망은 진성여왕 때문이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적힌 아래와 같은 기록 때문이다.

(진성)왕이 전부터 각간 위홍과 좋게 지내더니 이 때(재위 2년)에 이르러서는 항상 궁중으로 불러들여 일을 처리케 하고... 위홍이 죽으매 그를 추모하여 혜성대왕惠成大王이라는 휘(죽은 다음에 내리는 이름)를 내렸다. 왕은 그 뒤 몰래 잘생긴 사내아이 2, 3명을 불러 음란하게 놀았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어 국정을 맡겼다.

진성여왕이 성적으로 문란하여 국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신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역사적 시각이었다. 특히 각간 위홍과의 사랑을 삼촌과 질녀와의 근친상간적 패륜으로 매도하면서 진성여왕의 비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라의 왕실과 지배층 사회의 혼인풍습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의 왕실은 성골과 진골이라는 골품을 유지하기 위한 근친혼이 일반적이었다. 어머니와 아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형제자매가 아니면 친인척 누구와도 혼인이 가능했고, 그래야만 했던 사회가 바로 신라였다.

예컨대 제23대 법흥왕(재위 514년~540년)의 동생 입종갈문왕은 법흥왕의 딸, 즉 자신의 조카인 지소부인과 결혼해서 진흥왕을 낳았다. 또 김유신은 여동생인 문희와 김춘추 사이에서 난 딸과 혼인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김춘추는 김유신의 처남이면서 장인이기도 했다. 신라는 이처럼 근친혼이 흔했다. 따라서 각간 위홍과 진성여왕의 사랑은 신라 당대 골품제의 결혼풍속으로서 전혀 비난 받을 일이 아니었다.



해인사 비로자나불에서 나온 목찰. 이 목찰에 "대각간님의 등신불과 그 오른쪽으로 부인의 등신불 두 구를 만드노니"라는 명문이 적혀 있어, 쌍둥이 비로자나불이 각각 진성여왕과 위홍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낳기도 하였다.



세종대왕릉

성군聖君 세종 뒤에 성비聖妃 소헌왕후가 있었다

조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다

소헌왕후昭憲王后(1395.9.28~1446.3.24)는 청송 심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조부 심덕부와 부친 심온은 조선 건국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심덕부는 회군공신 1등이었다. 심온은 고려시대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들어섰다. 이성계와 함께 조선 개국을 도왔다. 태종 이방원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후일 임금의 장인으로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영상에 올랐다.

그러나 태종에 의해 하루 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귀양의 길에 오르고, 결국 사약을 받고 자진하게 된다. 숙부 심종 또한 태조의 딸 경선공주와 혼인한 부마일 정도로 심씨 집안은 조선 왕실과는 밀접한 가문이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으로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면서 정승이 열 셋, 왕비가 넷, 부마를 넷이나 배출한 그야말로 세도가문이었다.

1419년 세종 즉위 원년, 청송은 현에서 군으로 승격됐다. 새로운 왕비, 왕후 심씨의 본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송은 청송 심씨 가문에서 배출한 소헌왕후 덕분에 옆에 안동도호부가 있었음에도 도호부가 되었다. 그 후 청송에서 세거하던 심씨들에 의해 지어진 송소 고택. 아흔 아홉 칸의 수려한 가옥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가문의 세도를 짐작할 수 있다.

충녕대군과 가례를 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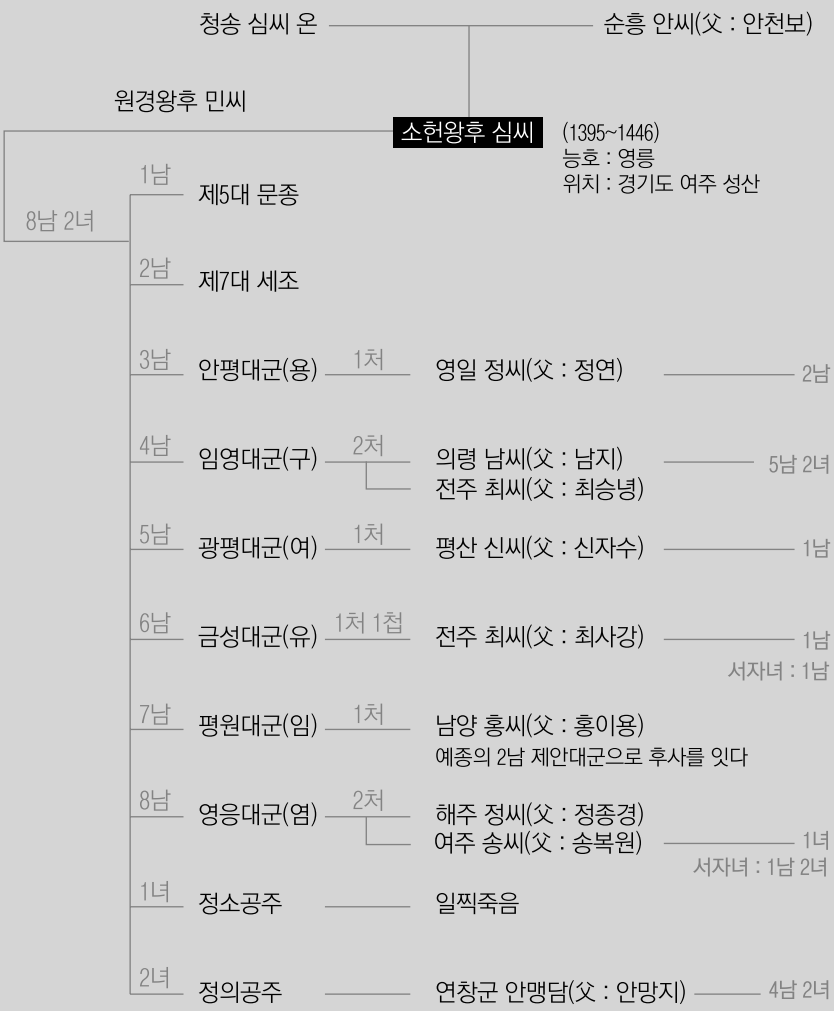
문하시중 덕부의 손녀이고, 영의정 온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의 딸. 심씨는 이런 집안 배경으로 열 네 살이 되던 1408년 당시 충녕대군 도裪와 가례를 올려 빈이 되었고, 내명부 경숙옹주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부인,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 12월에 공비, 1432년에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개봉되었다.

결혼할 당시 심씨의 남편 충녕대군 도는 태종의 3남이었으므로 심씨 자신이 국모가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또한 사실상의 개국 공신인 시어머니 민씨의 동기 네 명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했으므로 국모의 자리가 그다지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충녕이 세자로 책봉되고 심씨 또한 경빈으로 승격되고 후에 왕비가 되었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자 자연스럽게 세자빈이 되면서 거처를 궁궐로 옮긴 심씨는 세자빈으로서의 엄격한 예법을 다시 익혀야 했다.

금슬좋은 부부, 비운의 왕비

세종은 소헌왕후에게서 여덟의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첫째 아들 세자는 훗

소헌왕후 가계도


청송 심씨 온
순흥 안씨(父 : 안천보)
원경왕후 민씨
소헌왕후 심씨
(1395~1446)
능호 : 영릉
위치 : 경기도 여주 성산
8남 2녀
1남
제5대 문종
2남
제7대 세조
3남
안평대군(용)
1처
영일 정씨(父 : 정연)
2남
4남
임영대군(구)
2처
의령 남씨(父 : 남지)
전주 최씨(父 : 최승녕)
5남 2녀
5남
광평대군(여)
1처
평산 신씨(父 : 신자수)
1남
6남
금성대군(유)
1처 1첩
전주 최씨(父 : 최사강)
1남
서자녀 : 1남
7남
평원대군(임)
1처
남양 홍씨(父 : 홍이용)
예종의 2남 제안대군으로 후사를 잇다
8남
영응대군(염)
2처
해주 정씨(父 : 정종경)
여주 송씨(父 : 송복원)
1녀
서자녀 : 1남 2녀
1녀
정소공주
일찍죽음
2녀
정의공주
연창군 안맹담(父 : 안망지)
4남 2녀

날 문종이 되었고, 둘째 수양대군은 세조가 된다. 셋째 안평대군은 조선시대 3대 명필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처럼 8명의 왕자들이 8인 8색의 뛰어난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1436년(세종 18년) 10월, 세종은 사정전으로 나아가 심씨에 대해 이렇게 칭송했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 잡혔고, 내 몸에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뛰어난 성군 세종과 그에 버금가는 부덕을 갖춘 여인 심씨. 조선 왕실 역사상 이렇게 잘 어울리는 천생배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씨의 칭송은 사실 심씨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희생한 대가였다.

정작 심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시아버지 태종의 외척 견제 심리와 아버지 심온의 권력욕이었다. 시어머니 민씨 집안의 몰락을 생생히 지켜본 심씨는 아버지가 보다 신중히 처신해주기를 바랐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박은의 무고로 강상인의 옥사가 발생하였을 때 아버지 심온이 주모자로 몰렸다. 이때 명나라 사은사로 갔던 심온은 귀국하자마자 의주에서 체포, 압송되었다. 그러다 수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 안씨는 관노비가 되었다가 후에 복작되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한 때 왕후의 지위가 위태로웠으나 비妃로서 내조의 공이 크고, 많은 자녀를 낳아 왕실의 안정에 공이 있다고 하여 무사하였다. 문종 · 세조 등 8남 2녀의 소생이 있었으나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을 일찍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세종은 7명의 후궁에게서 10남 2녀를 두었는데 후궁 중에는 내자시의 여종이었던 신빈 김씨 같은 궁녀 출신도 있었다. 세종비 심씨는 후궁들을 질투하지 않았다. 심씨가 후궁과 그 소생들을 박해하지 않고 한 식구처럼 대해주니, 조선의 그 어느 임금보다 후궁이 많았던 세종임에도 내명부에 의한 풍파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심씨가 후궁들의 동향에 무감각한 여인은 아니었다. 궁중 곳곳에 사람을 심어놓고 후궁들의 동태를 살폈으며 많은 아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4남 임영대군의 행실 하나하나에 대해 유모를 통해 듣고 세종에게 전해 다스렸으며, 다른 후궁들과 왕손들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했다.

어쨌든 심씨는 왕의 배우자로서 깔끔하게 궁내사를 주관하고 대통을 잇는 왕손을 비롯해 자식을 많이 낳는 등 궁궐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심씨의 처신이 폐비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준 요인이기도 하다.

사후에도 함께, 조선 최초의 합장릉

소헌왕후는 왕비로서, 국모로서, 여성으로서 최고의 작위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헌왕후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멸문지화를 당한 친정 식구들의 참상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시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안씨를 관비에서 풀어준 것이 친정에 대한 유일한 속죄였을 것이다.

스무 살 장성한 아들 둘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어미의 참척은 강인하였던 소헌왕후를 몸져 눕게 만들었다. 한 번 병석에 누운 심씨는 일어날 줄을 몰



세종대왕릉

랐고 결국 1446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헌릉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으로 이장, 합장하였다.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종, 석보상절로 왕비의 극락왕생을 빌다

평소 아끼며 사랑하던 부부였다. 세종은 처가의 몰락에도 왕비의 내침을 적극적으로 막았을 정도로 왕비를 아꼈다. 연이은 아들들의 죽음에 못이겨 소헌왕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망연했다. 살아 생전에 맘껏 사랑하지 못했던, 친정의 수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 많은 아내의 극락왕생을 빌어주고 싶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다. 평소 불심이 강했으나 조선의 왕후였기에 감히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음을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아들 수양대군(후에 세조)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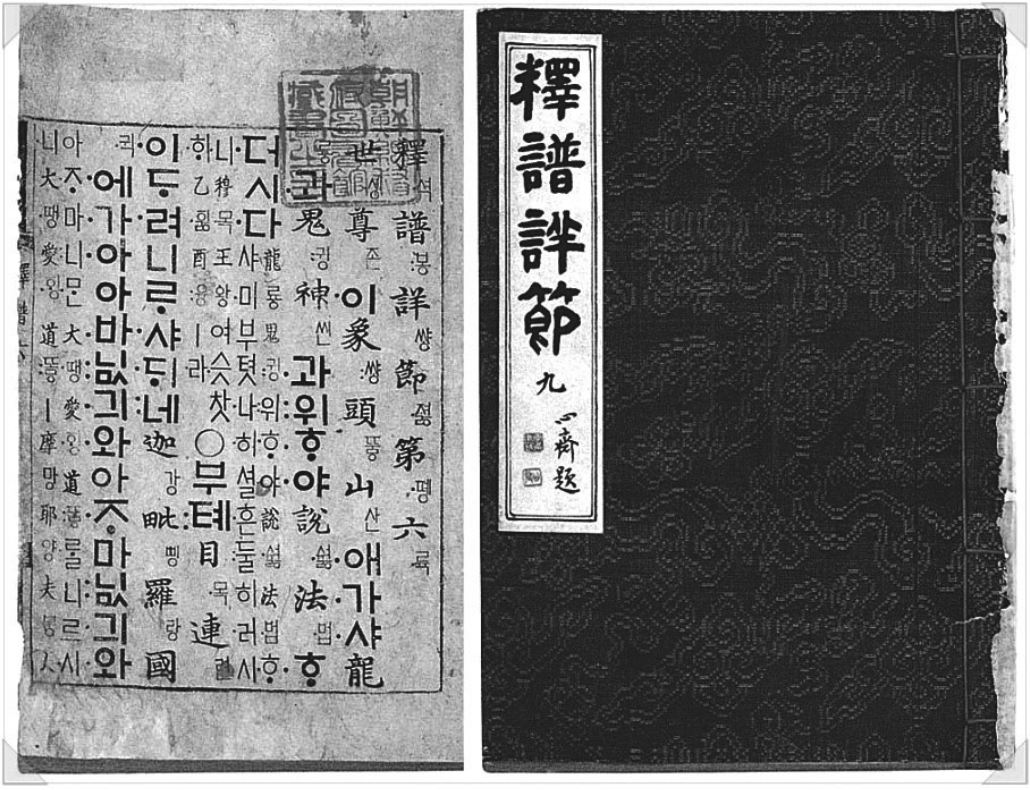
네 모후를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를 쓴 책을 정음으로 번역하여라.

석보상절은 이렇게 소헌왕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남편 세종이 왕명으로 편찬을 지시한 책이다. 한문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엮은 책을 한글로 옮긴 조선 최초의 번역불경이다. 1447년(세종 29)에 완성된 것을 1449년(세종 31)에 간행하였다.

소헌왕후 만큼 백성을 사랑한 성군聖君 세종

세종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종이 위대한 성군일 수 있었던 것은 독서광이었고, 거기서 비롯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쳤고,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그것이 비록 제도적, 관습적인 것이라 할지라도-마음먹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어진 왕이었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자주 은전을 베풀었고, 사면령을 빈번히 내렸으며, 징발된 군사들은 늙기 전에 돌려보냈다.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주기도 했다. 주인


釋譜詳節 九 心齋題
釋譜詳節第六
世尊神통 이 象 頭 山애 가샤 龍 과 鬼 신 시다 더
乙榜 하니 이 르샤 되 네 迦 강 毗 삐 羅 랑 國
目 목 連 련 ○ 부 텨 說 설 法 법 호 야 위 호 야 과 거
大 땡 愛 왕 道 띃 摩 망 耶 양 夫 붕 人 시 아 주 마 님 긔 와
大 땡 愛 왕 道 띃 摩 망 耶 양 夫 붕 人 시 아 주 마 님 긔 와
에 가 아 바 님 긔 와 아 주 마 님 긔 와
이 도 려 니 르 샤 되 네 迦 강 毗 삐 羅 랑 國

석보상절

이 혹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실수로라도 노비를 죽인 주인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겨우 7일에 불과하던 관비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렸고,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었으며 출산 1개월 전에도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왕이 너무 관대하면 백성들이 요행수를 바라게 된다며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다. 관대하고 은혜로운 왕이었다. 훈민정음 창제도 이러한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세종은 소헌왕후 심씨를 비롯해 여섯 명의 부인에게서 18남 4녀를 두었다. 이 많은 자녀를 왕비와 후궁들의 출산을 지켜본 왕이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이것이 바로 세종으로 하여금 노비에게도 산전 산후 육아휴직을 준 것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까지 만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 궁중에서 일하는 노비가 해산을 하면 휴가로 열흘을 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일을 안 인본주의자 세종은 흥분했다.

아이를 낳은 뒤 100일...애를 낳기 전 한 달을 쉬게 하라.

세종 8년 4월의 지시였다. 그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한 세종은 4년 뒤에 남성 육아휴직까지 만들었다. 이처럼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특히 여성을, 그것도 당시 사회 가장 하층계층이면서 사람으로서라기보다 일종의 재산 수단으로 여겨졌던 당대 노비에 대한 이러한 관대한 규례를 만든 임금의 뒤에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그 고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한 소헌왕후의 힘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건한
몸가짐을 다짐하며
이 몸은 바로 어버이 몸
어찌 이 몸 공경치 않으랴
이 몸 욕되게하는 일 있으면
바로 어버이 몸 욕되게 함이리니
敬身吟
身是父母身 敢不敬此身
此身如可辱 乃是辱親身

제2장

여성, 일상을 역사로 만들다

| 박희택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장계향 초상화

여중군자 장계향

성인을 지향한 여중군자 장계향

여기 성인聖人을 지향한 조선의 한 여성이 있다. 가르침을 배우면 인간은 높고 낮거나 귀하고 천한 구분이 없어진다(有敎無類 : 『논어』 위령공38) 는 이치와, 요순과 같은 성인도 보통 사람과 같을 뿐이다(堯舜與人同耳 : 『맹자』 이루하32) 는 신조를 충실히 실천하여,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 여중군자女中君子 , 여중학자女中學者 라 불린 장계향張桂香(1598~1680)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계향은 지금의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검재)에서 태어났다. 퇴계의 학손學孫인 경당 장흥효와 안동 권씨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난 장계향은 흔히 정부인 안동장씨貞夫人 安東張氏 로 불린다.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이조참판과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여 조선조 외명부 봉작법에 따라 추증된 호칭이다.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은 83년이라는 전생애를 통해 비할 바 없는 덕을 베

풀어 조선 중기 당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여성으로 존경을 받아 왔다. 19세에 석계 이시명에게 출가하기 이전에는 친정 부모에게 효순을 다하였고, 석계의 계실로 출가하여서는 현모양처로서 시부모와 남편을 지성으로 공경하고, 전실이 낳은 1남 1녀와 자신이 낳은 6남 2녀를 한결같이 현자로 양육하여 위대한 어머니이자 진정한 교육자로 칭해졌다.

타고난 자질이 풍부하여 시 · 서 · 화에 능하였으나, 당시의 관념으로 여성의 길이 아님을 지각하고 작품을 남기는 일과는 거리를 둔 결단의 여성이었다. 재령이씨 영해파 문중의 큰 살림을 맡아 살면서, 왜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을 헤아려 집안의 곡식을 풀고 도토리죽을 쑤면서까지 널리 구휼한 사회사업가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에 기초한 자신만의 사상을 정립하고, 평생을 실천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최고最古의 조리서로 일컬어지는『음식디미방』을 남겼고, 아름다운 두들마을과 수비지역에 입향하여 새로운 문화를 일구었다.

이같은 장계향의 전인적全人的 삶은 조선시대의 많은 뛰어난 여성들과 대비해 보더라도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특별한 빛을 발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여중군자의 이름으로 총괄할 수 있겠다. 군자는 한두 가지 덕성이 아닌 전인적 덕성을 갖춘 사람이기에 그러하다. 여중군자 장계향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덕성의 전인성에 있기도 하지만, 시대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이치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실천한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홀로 된 친정 아버지를 시집 간 이후에도 보살피고, 재혼을 시켜드린 후 자신보다 젊은 새 어머니와 동생들을 살뜰이 보살펴 바로 서게 하였다. 성리학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 전편을 통하여 살

펴보게 되겠지만, 장계향은 어떤 사안에도 이치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기에 깨달은 조선 여인 으로도 불리고 있다.

여중군자와 함께 장계향에 붙여지는 여중학자는 여중군자에 준하는 표현이며, 이들 표현은 성인의 현실적 모습으로서 이상적 인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계향은 성인지향의 자기관념을 어린 시절에 시로 읊었다. 이른바 「성인음聖人吟」인데, 10세 전후의 여자아이가 읊은 것으로는 특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논어』와 『맹자』의 가르침을 체화體化할대로 한 모습이다.

내가 성인이 살았던 때에 나지 않았으니,
성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네.
그러나 성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성인의 마음도 볼 수가 있겠네.
不生聖人時,
不見聖人面.
聖人言可聞,
聖人心可見. 「성인음」



이같은 성인지향사상을 장계향은 자녀와 손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이들이 현자賢者로 바로 서게 하였다. 곧 자녀들에게 성인聖人이 된 사람은 과연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보통



영양 두들마을에 소재해 있는 정부인안동장씨예절관

사람보다 지나치고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일이 있다면 진실로 따라갈 수 없겠지만, 성인의 용모와 언어가 처음부터 보통 사람보다 다른 데가 없으며, 성인의 행동도 또한 모두가 인륜의 날마다 늘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성인을 배우지 않는 것을 근심할 뿐이지, 진실로 성인을 배우게 된다면 또한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장계향 행실기』) 라 하여 성인에로 나아가게 격발시켰다.

장계향이 남긴 12수의 한시 중에는 손자 성급(밀암 이재)과 신급(벽계 이은)에게 성인의 길을 격려하는 2수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장계향은 손자에

게 시를 써주어도 성인지향을 격려하는 시를 써준 것이다. 어쩌면 성인지향의 식이 배여있는 성급聖及(성인에 닿음)과 신급新及(새로이 성인에 닿음)이란 손자의 이름에도 할머니 장계향의 사랑이 사상으로 깃든 것은 아닐까 싶다. 손자들에게 써준 한시 2수를 보기로 한다.

새해에 네가 자신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으니,
네 뜻은 지금의 사람과는 다르구나.
어린 아이가 벌써 학문에 뜻을 두니,
참다운 선비를 이루게 될 것이구나.
新歲作戒文,
汝志非今人.
童子已向學,
可成儒者眞.　　「증손성급」

네가 벗을 작별한 시를 보니,
그 시 속에 성인을 배우려는 말이 있구나.
내 마음이 기뻐서 다시 칭찬하여,
짧은 시 한 편을 지어 너에게 준다.
見爾別友詩,
中有學聖語.
余心喜復嘉,
一筆持贈汝.　　「증손신급」

여중군자와 여중학자로서 장계향의 이같은 사상적 스케일과 지향은 남편 석계 이시명과 네 아들(정묵재 이상일, 존재 이휘일, 갈암 이현일, 항재 이숭일)과 두 손자(밀암 이재, 고재 이만)를 칠산림으로, 일곱 아들(칠산림에서 거론된 네 아들, 정우재 이정일, 평재 이융일, 광록 이운일)을 칠현자로 우뚝 서게 하였다. 선비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를 일컫는 산림山林은 대단히 광영스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도 일곱 산림이나 배출되어 재령 이씨 칠산림이라 불렸다. 갈암 이현일을 산림의 상징으로 칭하나, 나머지 여섯 인물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 벼슬을 얻었다는 점에서 통상 칠산림이라 부른다. 이 칠산림과 더불어 자신의 일곱 아들을 칠현자로 현달顯達시킨 장계향은 진정한 군자리더라 할 것이다. 스스로 군자가 되어 인연들을 군자로 끌어 올리는 이를 군자리더라 하는데, 장계향이야말로 그 전형이라 하겠다.

군자리더로서 장계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아버지 운악 이함, 남편, 두 아들 존재와 갈암이 불천위不遷位가 됨으로써 삼대 사불천위四不遷位 를 제대로 뒷받침한 여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퇴계 이황 –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한강 정구 – 경당 장흥효 – 존재 이휘일, 갈암 이현일 – 밀암 이재, 고재 이만 – 대산 이상정, 소산 이광정 – 만암 이우, 정재 유치명 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계맥系脈을 가능하게 한 퇴계학파의 위대한 대모代母 로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장계향은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학봉과 서애와 한강 세 학자로부터 모두 배운 친정아버지 경당의 훈도를 가학家學으로 받았다. 외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존재와 그를 통해 학문을 익힌 갈암은 존갈存葛(존재와 갈암)로 통칭되면서 위대한 경세서 『홍범연의』(1686년)를 남겨 마치 정호와 정

이가 이정二程 으로 불리는 것에 비견되고 있으며, 장계향 또한 이정의 위대한 어머니인 후부인侯夫人에 연비連比되어 조선의 후부인 으로 불리웠다.

존갈은 물론이고 밀암 이재와 고재 이만은 장계향의 손자이며, 대산 이상정과 소산 이광정은 장계향의 외현손外玄孫이다. 만암 이우는 장계향의 외내손外來孫이며, 정재 유치명은 대산의 외현손이다. 정녕 장계향의 후손을 빼고 퇴계학파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겠다.

여중군자의 전인적 구상九像 : 일상의 역사화

이처럼 조선 중기 당대에 여중군자, 여중학자, 조선의 후부인으로 불린 장계향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삼대 사불천위를 뒷받침한 여성으로, 또 퇴계학파의 위대한 대모로 찬사를 더욱 받게 되었는데, 이는 장계향이 비할 수 없는 현모양처이자 교육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실 소생의 1남 1녀와 자신이 낳은 6남 2녀의 현모였으며, 뜻을 펴지 못한 남편을 설득하여 후학을 양성하도록 인도한 양처였다. 이 양처에는 셋째 며느리로서 사실상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시부모와 대가족을 잘 봉양하고, 재령 이씨 영해파를 대문중으로 번성하게 한 역할까지 포함된다. 삼대 사불천위가 배출된 것은 장계향의 현모양처 역할에 터하고 있다. 칠현자 및 칠산림과 관련지어 퇴계학파의 계맥을 가능하게 한 장계향은 교육자 중의 교육자라 할 것이다.

장계향은 타고난 자질이 풍부하였다. 이는 『논어』 계씨편에서 말하는 생이지지生而知之라 할 수 있다. 배우지 않고도 아는 장계향의 생이지지의 모습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 아버지 경당으로부터 경사서를 배웠는데 애를 쓰지 않고도 글의 뜻을 통달하는(不勞而文義通)



장씨 부인이 열살즈음에 그린 맹호도.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울부짖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모습을 보여 주었다든지, 경당의 문인들이 배워서도 이해하지 못한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운수를 장계향은 10세 남짓한 나이에 배우지 않고도 개진하였다든지 하는 일화가 그것이다.

또한 장계향의 생이지지의 모습은, 타고난 그림 솜씨로 기개가 넘치는 「맹호도」와 고졸미를 드러내는 「인두화(낙화)」를 남겼다거나, 당대의 명필이었던 청풍자 정윤목 등으로부터 절찬을 받은 서예 필체를 선보였다거나 하는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장계향은 화가와 서예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시인으로서의 특출함이다. 12수의 한시작품은 한결같이 잘 갖추어진 형식에다가 맑고 상쾌하며 단정하고 엄밀한 작품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학발시」 같은 경우는 정조正祖 앞에서의 경연에서 번암 채제공의 주달奏達을 통해 상찬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시아버지 운악의 밥상을 들고 나가면서 선 자리에서 읊었다는 「수국춘색」은 장계향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물나라의 푸르른 봄빛깔이,
홀연히 상위에 올라왔구려.
향기로운 맛이 입맛을 돌게 하여,
오래된 병을 낫게 하나이다.
水國春色,
忽登盤上.
香味啖來,
可得蘇病. 「수국춘색」

장계향은 생이지지에 그치지 않고, 공부를 통해 익히는 학이지지學而知之와 곤경으로부터 배우는 곤이지지困而知之를 더하였다. 장계향은 당시의 보편학 체계에서 공부하는 것을 충실히 섭렵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행장과 전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과목으로 『소학』과 『십구사략』을 습득하였고, 중시과목으로 사서오경을 배웠으며, 심화과목으로 『근사록』과 『심경』까지 익힌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경사서經史書를 통하여 인간의 참된 길을 인식하고 고금의 사변을 밝게 이해하여 전인적 아름다움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장계향이 일상을 역사로 만들 수 있었던 저변에는 전인적 구상九像이 있었다. 축적된 인간의 경험을 한데 집약하여 전인성wholeness을 일굼으로써 광휘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현모양처와 교육자로서, 또 화가와 서예가와 시인으로서, 이후 살펴보게 될 사상가와 과학자, 사회사업가와 문화창조자로서 일상을 역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경사서를 체계적으로 학이지지한 데에 바탕을 둔다. 결코 생이지지에 의탁하여 학이지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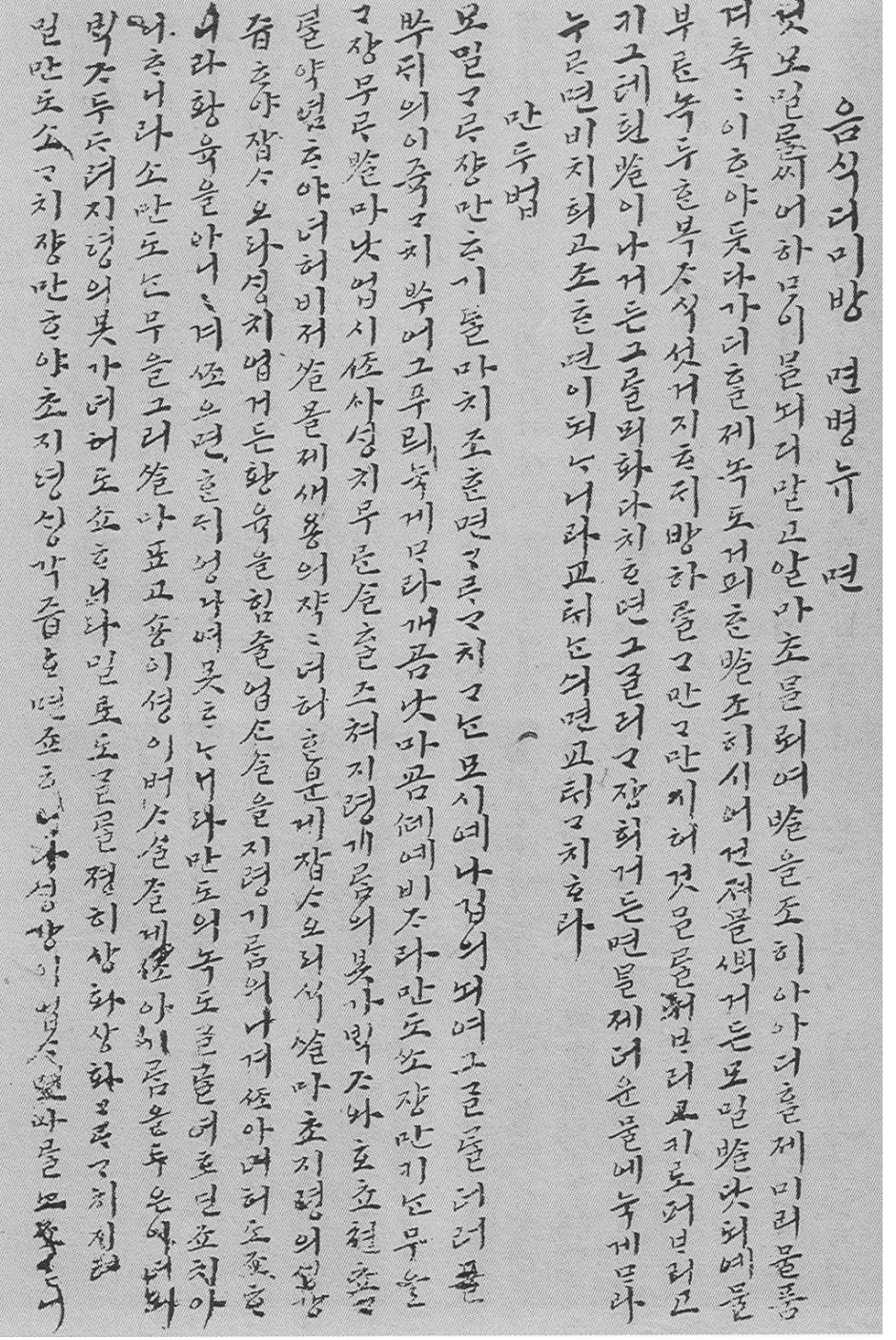
여기에다가 끊이지 않았던 삶의 곤경으로부터 곤이지지함으로써 전인적 아홉 가지 모습을 보다 견고하게 가꾸어 나갔다. 친정어머니의 이른 사거, 친정을 보살펴야 하는 무게, 전실이 남긴 두 자식의 양육, 자신보다 먼저 목숨을 잃은 네 자식, 남편의 절망과 좌절, 셋째 며느리로서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움, 아홉 번에 걸친 거듭되는 이거移居, 분재分財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가난, 여성지식인으로서 4대 전란과 관련된 혹독한 참화에 무관심할 수 없는 고뇌 등은 일상을 역사화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기보다는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곤경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장계향의 역량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장계향의 친정인 경당고택. 생가터는 현재의 경당고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두들마을의 석천서당. 입향하여 석계 이시명이 유생과 아이들을 가르친 곳이다.
또한 여기서『홍범연의』 최종교감이 이뤄졌다.


음식디미방 면병뉴 면

만두법

한글로 된 최고最古의 조리서 『음식디미방』

장계향은 생이지지와 학이지지와 곤이지지의 합일 속에 사상의 꽃을 피웠다. 장계향의 사상은 성인지향사상聖人志向思想, 경신사상敬身思想, 인간평등사상, 애민사상, 중용사상, 공동체사상 등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데, 이들 사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깊은 철학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여기서 다 고찰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몸을 공경하는 경신사상은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성인지향사상의 실천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철학에서 가치시하는 몸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신분계층질서가 엄격하였던 17세기 조선사회에서 인류보편적인 인간평등사상과 애민사상이 여성사상가 장계향에 의해 나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혁신적이다. 중용사상과 공동체사상은 조화와 균형과 정도正道의 철학체계로서, 중용사상은『중용』제4장의 지미철학知味哲學에 연원을 두고『음식디미방』에 표백表白되어 있으며, 공동체사상은 고금의 사변事變에 대한 밝은 이해를 통해 조선을 침략 능멸한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려는 원망願望이 담긴 사상이다.

『음식디미방』은 중용사상을 보여주는 사상서이기도 하지만, 과학자 장계향을 말해주는 저작이다. 아시아에서 여성이 저술한 가장 오래된 조리서이자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요리서인 이 저작은 1672년경 장계향의 인생말년에 이루어진 삶의 결정체인데,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조리과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장계향의 삶을 들여다 보면 사회사업가와 문화창조자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장계향은 조선 중기 사대 전화戰禍(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로 고통을 겪는 민초들을 위하여 시아버지 운악과 함께 집안의 많은 재물을 풀고, 도토리죽을 쑤어 빈민들을 구휼하였다. 운악 이함의 묘소 부근 산

지와 두들마을에 고목으로 살아있는 도토리나무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장계향은 석계 이시명과 두들마을에 입향하고 수비지역을 개간하여 공동체를 건설한 문화창조자이다. 두들마을을 방문한 이들은 이 마을의 온화한 기운과 빼어난 풍광에 감탄을 멈추지 못하는데, 이는 장계향 내외의 문화적 안목에 연원해 있다고 하겠다.

여중군자의 사덕四德 : 행복리더의 조건

이상과 같은 장계향의 전인적 구상九像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모양처 신사임당, 여성성리학자 임윤지당,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 등도 장계향의 아홉 가지 모습에 비하면 그 덕성에 있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군자의 상달上達과 하달下達 정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군자다운 군자는 그 덕성을 하달하면 필시 전인적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를 공자는 군자는 그릇(한 가지 덕성만 갖춘 사람)이 아니다(君子不器 : 『논어』 위정편12) 라 표현하였다. 일종의 현덕顯德인데, 『대학』에서는 군자는 그 지극한 것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君子無所不用其極 : 『대학』 전2) 라 하여 군자무소불용기극 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자는 덕성들이 상달되어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봄에 바로 앞에 계시더니, 문득 뒤에 계시면서(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 『논어』 자한편10)! 마침내 지혜와 무욕과 용기와 재예와 예악을 갖춘 사람됨(成人 : 『논어』 헌문편13) 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말하자면 군자의 총덕總德이라 하겠다. 여중군자 장계향의 하달

적 현덕은 구상九像으로 나타났다면, 상달적 총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부인(장계향)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이미 풍부하였는데, 배움까지 더하였으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겼고(仁愛懇惻),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였는데(樂善好義),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하였다(終始如一). 노년에 이르러서 기력이 쇠약해져 생각처럼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導人爲善) 하는 뜻만은 끝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
> 『장계향 행실기』

요컨대 장계향은 인애간측仁愛懇惻과 낙선호의樂善好義, 종시여일終始如一과 도인위선導人爲善의 사덕四德을 총합한 총덕을 가졌던 여중군자인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긴 사람, 착한 일을 즐거워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좋아한 사람, 이렇게 하기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한 사람, 자신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함께 착한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이 여중군자 장계향이다.

이 사덕은 한마디로 장계향이 행복리더임을 말해준다. 스스로 행복하고 인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행복리더이다. 군자리더 또한 행복리더와 표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군자리더의 리裏는 행복리더로서 표表된다고 하겠다. 군자리더의 내포가 없다면 행복리더로 외연할 수 없음이다. 여기서는 인연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행복리더 장계향의 다섯 가지 자취를 정리하여

되살려 보기로 한다.

첫째, 재령 이씨의 재물을 구휼에 사용하였다. 장계향은 시아버지 운악과 학식으로 통하였으며, 운악 가문의 여러 곤고함 속에서 장계향의 역할은 시아버지 운악을 흡족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시아버지는 장계향의 지지자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군량을 조달하고 명군의 횡포를 막아낸 시아버지의 강직함은 장계향이 구휼을 실천하는 일에 넉넉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재물로 부족한 것은 도토리 나무를 심어 구휼하였다. 영해땅의 큰 부자 재령 이씨 가문의 곡식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도토리나무를 심어 감당하였다. 지금도 시아버지 운악 묘소 근방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토리나무 군락은 당시 장계향이 중심이 되어 조성한 것이다. 두들마을 석계고택 부근에 현재도 많이 보이는 고목이 된 도토리나무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문제로 삼아서 해결하였다. 부인께서 가는 곳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이와 늙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과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과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과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구휼하고 도와주기를 마치 남이 알지 못 하는 자신의 근심처럼 여기고는 자신의 가난하고 곤궁한 이유로써 게을리하는 일이 없었다(『장계향 행실기』) 고 전한다. 장계향은 자신이 힘들어도 이웃의 문제해결에 소홀하지 않는 행복리더였다.

넷째, 노비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감화를 주었다. 그 정도가 얼마나 큰 지 남의 집 종들도 장계향 집의 종이 되기를 원할 정도였다. 어린 여종을 돌보아 주기를 마치 자기의 딸처럼 하여, 그들에게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여주고 간호하여 온전히 편안함을 얻도록 하였다. 그들



영양 석보 두들마을의 석계고택. 이 곳에서 장계향은 살았고, 별세하였다.



두들마을에 있는 장계향의 유적비. 국사편찬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석이
비문을 지었으며, 1989년 건립하였다.

이 과실과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조용히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감화하여 복종하도록 했으므로, 남의 집 종들도 이런 일을 듣고서는 모두가 종이 되어 심부름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장계향 행실기』).

다섯째, 덕을 베풀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겸손으로 살았다. 이를 물령지지勿令知之라 하여 생이지지와 학이지지와 곤이지지와 더불어 장계향의 사지四知라 한다. 몰래 남에게 음식물을 보내주고도 그랬고, 육신을 벗을 때도 비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장계향의 한없는 겸허함에 모두들 감동하였다. 이웃의 늙은이와 마을의 할머니들이 모두가 장계향의 은덕에 감동하여 오래 살고 복받기를 빌었으며, 죽어서도 반드시 은덕을 보답하겠다고 축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것은 장계향이 선을 행하고도 행하였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아상我相을 벗어난 허심虛心이 엮어낸 특별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을 완성한 여중군자 장계향

다음으로 장계향은 비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넘어서 행복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삶의 완성이란 본질적으로 이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삶의 무게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있어도 이를 넘어서 행복할 수 있음이 삶의 완성이라는 것! 장계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삶의 무게를 넘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었다. 그 여과餘果로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라 할 수 있는 83세의 수를 누렸다. 그 많은 삶의 무게를 경감하여 자기치유와 자재해탈을 성취한 것이다.

첫째, 임진왜란(1592, 선조 25년)과 정유재란(1597, 선조 30년), 정묘호란

(1627, 인조 5년)과 병자호란(1636, 인조 14년)의 영향으로 피폐해진 시대상과 민생을 적극적으로 안아내었다. 10대 초에 「학발시」를 지을 정도로 애민에 민감한 장계향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장계향이 태어난 1598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6년이 되는 해였고, 정유재란이 일어난 지는 1년이 지난 시기였다. 그의 성장기는 두 왜란의 크나큰 후유증과 함께 한 것이었다. 또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장계향의 30대를 관통한 시대적 변고였다. 이 심대한 전쟁의 참화로 국토는 유린되고 민초들은 흩어져 유랑민으로 전락하여 떠돌았다. 손위 두 동서가 일찍 세상을 떠나 사실상의 맏며느리가 된 장계향은 영해 창수 재령 이씨 가문의 많은 재물을 풀어 민초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한 아름다운 이름이다.

둘째, 시대와 불화한 시아버지 운악 이함과 남편 석계 이시명을 섬겨서 바르게 서게 하였다. 운악은 47세(1600, 선조 33년)와 56세(1609, 광해군 1년)에 문과급제를 하였다. 두 번이나 급제할 정도로 학문적 자질이 뛰어났으나, 첫 번째는『장자』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하여 취소되었고, 두 번째는 광해군의 난정을 보고 스스로 전원으로 돌아와 뜻을 펴지 못하였다. 석계 또한 1638년(인조 16년) 관찰사의 모함으로 포승줄에 묶여 서울로 압송되어 욕을 당한 바 있으며, 병자국치 이후 깊은 산골인 영양 수비로 유거幽居하였다. 장계향은 학식이 넓었던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극진히 봉양하여 미쁨이 되었으며, 좌절한 남편에게 당신께서는 이미 세상을 피해 살면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마땅히 『시경』과 『예기』로써 아들과 손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세월에 맞추어서 어른과 아이들을 거느리고서 학문을 강론하고 예절을 익히도록 하여, 전대前代를 빛내고 후진을 계발시키는 사업을


自史人共東胞民 建節館



정부인안동장씨예절관과 유물전시관

크게 이루지 않으십니까?(『장계향 행실기』) 라고 하여 구원처가 되었다.

셋째, 전실 2자녀를 포함한 10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양육하였다. 장계향은 자신이 낳은 8자녀는 물론이고, 전실 광산 김씨가 낳은 상일과 큰 딸도 차별 없이 제대로 키웠다. 계실로서 전실의 자녀 양육을 삶의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루만져 주고 사랑하기를 지극히 한 것이다. 전실 소생의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자신이 낳은 자녀들 때보다 더 많은 혼수와 물건을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계향의 놀라운 안목과 도량은 후일 상일의 양자를 들일 때 드러난다. 자신이 낳은 6남 평재 이융일의 맏아들 벽계 이은을 장자 정묵재 이상일의 양자로 들이게 하였는데, 이것은 평재의 부인이 광산 김씨로서 석계의 전실과 같은 광산 김씨인 점에 착안한 것이다. 광산 김씨의 혈맥이 장자 상일가계로 흐르도록 따뜻하게 배려한 것이다. 혈통중심의 사고라기보다는 생모를 일찍 여의고 아들이 없는 상일의 허전함을 보살핀 깊은 인간애라 하겠다.

넷째, 10자녀 중 4자녀를 자신보다 먼저 잃고서도 승화시켰다. 전근대의 조선조에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이 집집마다 많았으나, 장계향은 4자녀나 먼저 보냄으로써 그 슬픔이 컸다. 자신이 맨 먼저 낳고 어질며 학문이 뛰어나 특별히 아낀 2남 휘일과 막내 아들 운일, 그리고 두 딸을 가슴에 묻는 큰 아픔을 겪었다. 사람들은 슬픈 감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손상시킬 것으로 염려하였으나, 장계향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감정을 줄이고 슬픈 마음을 억제하여 지나치게 상심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자신의 애통이 절박하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내 몸을 훼상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장계향이 10대 초에 쓴 「경신음敬身吟」의 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감히 이 몸을 공경

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敢不敬此身) 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몸을 공경 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 경철학과 몸철학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시집 온 후 이사를 아홉 번 이상 다니는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나갔다. 농경사회에서 이사를 이처럼 많이 한 것은 드문 일이었고, 그만큼 장계향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영해 창수에서 영양 석보와 수비로, 다시 안동 서후와 풍산으로 이거하고 또 하였다. 이것은 석계와 장계향이 의논하여 결정해 나간 행로이지만, 지금도 하늘 아래 첫 동네같은 깊은 산골인 수비면에서 20년 넘게 공부와 개간과 농사에 전심한 것은 그 당대에 이미 후한後漢 순씨팔룡荀氏八龍의 고사에 비견되곤 하였다. 석계와 일곱 아들은 조선의 이씨팔룡이었던 것이다. 수비시절의 식솔은 3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자급자족하면서 학문을 깊이하여 미래의 희망의 싹을 틔워나갔다. 손위 두 동서가 순절하였기에 실질적인 맏며느리로서 창수에 안주할 수 있었으나, 장계향과 이시명은 자식들과 더불어 새로운 광명의 길을 알뜰살뜰히 걸어갔으니 참으로 신선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장

여성,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 강윤정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실장





남자현 초상화(안동독립운동기념관 소장)

만주를 울린
영양의 여장부, 남자현

남편의 죽음으로 독립운동에 나서다

남자현南慈賢(1873.12.7~1933.8.22)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출신이다. 그녀는 1873년 12월 통정대부 남정한南珽漢과 이씨부인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남자현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다고 전한다. 이를 헤아린 부친이 딸에게 일찍부터 글을 가르쳤다. 일곱 살에 이미 한글과 한문을 터득하고, 14세에는 사서四書를 독파할 정도였다. 그 뒤 19세에 안동시 일직면 귀미동 출신의 김영주金永周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896년 의병항쟁에 나섰던 남편이 전사했기 때문이다. 남편 김영주는 1896년 7월 11일 진보군 진보면 흥구동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전한다.

이 때 남자현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남편이 죽은 뒤 태어난 그 유복자가 바로 김성삼金星三이다. 남자현은 3대 독자인 유복자를 기르며 시어머

니를 봉양하였다. 그녀는 효부로 이름나 진보군 진보면에서 효부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무렵의 남자현은 다른 보통의 여인들처럼 평범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은 민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기에 1910년 나라의 멸망은 그녀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라가 무너지자 남자현은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13년부터 최영호崔英鎬 · 채찬蔡燦(백광운) · 이하진李河鎭 · 남성노南聖老 · 서석진徐錫振 · 권모權某 등과 연락하며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뒤 5년 동안 국내조직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최영호와 채찬은 당시 모두 만주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국내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남자현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채찬의 주요 활동무대는 서간도였고, 백서농장白西農庄에도 참가하였다. 백서농장은 안동출신 김동삼이 장주庄主로 활약하면서 독립군을 기르던 병영이었다.

그 뒤 손에 잡히는 남자현의 활동은 1919년 서울에서 3 · 1독립선언에 참여한 것이다. 남자현은 만 46세가 되던 1919년 2월말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아들 김성삼의 회고에 따르면 남자현은 서울 남대문통에 살던 김씨부인의 편지를 받고 상경하였다. 서울로 온 남자현은 연희전문학교 근처의 한 교회에서 김씨부인을 비롯한 교회신자들과 3 · 1독립만세에 참여하였다. 김씨부인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회와 연결된 인물로 추정된다. 남자현은 열흘 남짓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3월 9일 만주로 향하였다.

만주에서 그녀가 펼친 초창기의 활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교육이었다. 남자현은 50세가 되던 1920년대 중반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여자교육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활동을 펼쳤다. 그가 만주로 망명

한 뒤에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펼쳤다는 것은 망명 전부터 교회쪽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그녀의 이름이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27년에 일어난 길림사건吉林事件 때이다. 길림사건이란 안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계 지도자 47명이 중국 관헌에게 검거된 일이다. 당시 독립운동계는 대동단결을 다지기 위해 길림에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중국관헌에게 체포된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일본경찰 손에 넘어가면 독립운동계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계가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때 남자현은 이 사건을 여러 곳에 알리고 비상대책반을 꾸리는 등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금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은 풀려나게 되었다.

교육활동에서 의열투쟁으로 전환하다

길림사건 뒤 남자현의 활동은 큰 변화를 보였다. 남자현은 사이토오齋藤實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거사에 나섰다. 교육활동에서 의열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열투쟁이란 적의 주요기관이나 주요인물을 직접 공격하는 투쟁방법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테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략이다. 그녀는 1927년 4월 박청산朴靑山 · 김문거金文居 · 이청수李靑守 등과 함께 길림성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4월 중순 드디어 남자현은 김문거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탄환 8발을 받아 직접 서울로 숨어들었다. 혜화동 28번지 고모高某 집에 머물며 교회신자로 변장하고 총독 암살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남자현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갔다.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터 (현재 화원소학교)

그 뒤 남자현의 움직임이 다시 드러난 것은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이 체포된 뒤였다. 1931년 10월, 만주지역 독립운동계의 최고 지도자 김동삼이 체포되어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갇히게 되었다. 남자현은 친척으로 가장하여 김동삼을 면회하고, 안팎 소식을 알렸다. 마침 신의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현은 구출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이동 날짜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1932년 들어 남자현의 활동무대였던 만주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1932년 3월 1일, 만주는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일본의 만주침략을 비난하는 국제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국제연맹은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현은 독립의 뜻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담은 혈서를 써서 전달하기로 하였다. 1932년 9월 19일 국제연맹조사단장 릿튼의 방문 때를 혈서 전달 날짜로 잡았다.

남자현은 하얼빈 남강에 있던 한 중국인 음식점에서 왼쪽 무명지 두 마디를 잘랐다. 그리고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 이란 다섯 글자를 썼다. 독립을 원하는 우리 민족의 뜻을 붉은 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잘린 손가락을 함께 싸서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전달할 기회를 살폈다. 그러나 경계가 엄중하여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 생각 끝에 남자현은 인력거꾼에게 1원을 주어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자현이 보여준 기개와 용기는 독립운동사에 우뚝하다. 또 그녀는 부녀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 사건 뒤 남자현은 만주에 파견된 일본 전권대사 부토武藤信義를 처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만주국 수립 1주년 행사가 열리는 1933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1933년 1월 20일, 남자현은 우선 무기 확보를 위해 부하 정춘봉鄭春奉을 비롯한 몇 명의 중국인과 무기 조달방법을 논의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권총 한 자루와 탄환, 그리고 폭탄 두 개 등을 전달받기로 약속하였다. 2월 27일 오후 4시, 남강 길림가 4호 마기원馬技遠 집 문 앞에 내걸린 붉은 천을 암호로 하여, 무기가 든 과일 상자를 전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거사

를 며칠 앞둔 2월 22일, 남자현은 무송도사진관에서 최후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거사장소를 확인한 뒤, 노파로 변장하고 무기와 폭탄 운반에 나섰다. 그러나 밀정의 밀고로 거사 직전인 2월 27일, 하얼빈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남자현은 하얼빈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여섯 달 동안 가혹한 고문에 시달렸다. 당시 일본총영사관 지하에는 감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규모는 500㎡나 되었고, 1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었다. 독감방도 11개나 되었다. 독립운동의 거목들이 고초를 겪던 곳이다. 일송 김동삼을 비롯하여 정의부 군사위원장 오동진 등도 이곳에 투옥되었다. 지하실 감방에는 30㎡나 되는 고문실이 따로 있었다. 이곳에서 갖가지 고문이 이루어졌다. 사람을 달아매고 사정없이 매질을 하거나, 입에 고춧물을 쏟아 넣거나, 인두를 달구어 살을 지지기도 하였다. 손톱에 바늘을 박아 넣기도 하고, 끓는 물을 온몸에 붓기도 하였다. 촛불로 살을 태우거나, 못 판에 앉히는 등 입에 올리기 어려운 갖가지 고문이 가해졌다. 끝내 굴복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초죽음이 되어 감방으로 돌아왔다. 당시 감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담요는 검붉은 피에 늘 젖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60세의 남자현도 온갖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이렇게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항거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남자현은 음식을 끊은 지 9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가혹한 고문과 단식으로 인해 그녀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순국 직전의 모습

감옥을 나온 남자현은 한 여관에서 아들과 여러 동지들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고, 그녀는 몇 가지 유언을 남겼다. 하나는 조선이 독립되는 날 자신의 돈 200원을 독립축하금으로 바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손자에게 교육을 시켜 내 뜻을 알게 하라는 유언이었다. 그리고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남자현 묘지(독립혈사 제2권)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닷새만인 1933년 8월 22일, 그녀는 만 60세로 순국하였다. 장례는 바로 다음날 오후에 진행되었다. 8월 23일 오후, 유지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여관에서 영결식이 치러졌고, 마가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하루 만에 치러진 장례였다. 5일 뒤 부토武藤信義 모살범謀殺犯 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순국 사실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만주를 유일한 무대로 조선OO운동에 종사하던 남자현(여자)은 당지 감옥에 구금중이든 바, 단식 9일 만인 지난 17일에 보석 출옥하였는데, 연일 단식을 계속한 결과 22일 상오(하오) 12시 반경에 당지 조선려관에서 영면하였다.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7일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녀를 기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50일 뒤인 1933년 10월 12일 오후, 하얼빈의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힌 남자현 묘 앞에 비석이 세워졌다. 하얼빈시 남강구南崗區 동대직가東大直街 1호, 남강南崗 러시아공동묘지 서쪽 한인묘역이 그곳이다. 러시아묘지는 지금의 문화공원 자리에 있었다. 한인묘역은 문화공원 서문으로 들어가 동방정교 교회 건물(현재 예술세계라는 전자오락실 위치)을 지나 비슬나무와 버드나무 고목사이로, 어린이 놀이공원 끝자락 부근이다.

순국 1주기에는 당시 교하蛟河에 거주하던 아들 김성삼의 집에서 추도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만 십여년래 쓰러져가는 조선민족사회를 위해 일향분투하던 고 남자현여사는 작년 가을 하르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옥중고초의 여독으로 마침내 세상을 떠난 바 지난 8월 22일은 동여사의 1주기이므로 현재 교하蛟河에 거주하는 김성삼金星三씨 자택에서 1주년 추도회를 거행하였다더라.

<동아일보> 1934년 9월 5일자

남자현의 투쟁을 기리는 작업은 해방 뒤 한국여성단체에서 이어갔다. 1946년 8월 22일, 독립촉성애국부인회가 추념회를 개최하였다. 13년 전, 17일 단식으로 옥사한 남자현여사를 추념한다 는 기치아래 인사동 승동예배당에서 모임이 열렸다. 남자현은 여성운동사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어 1962년 나라에서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그녀의 고향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도 남자현을 기리는 일이 추진되었다. 1954년 삼의열사기념사업회三義烈士紀念事業會에서 영양의 3의사를 기리는 삼의각三義閣을 건립하였다. 3의사란 김도현과 엄순봉, 그리고 남자현을 이른다. 이어 1977년 이들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삼의사비三義士碑를 세웠다. 이 때 남자현지사기적비가 세워졌다. 그런데 영양군은 1998년 지금의 영양군민회관 앞으로 비를 다시 옮겨 세웠다. 비에 담긴 그 행적 내용이 미흡하고, 장소도 군민회관 앞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1999년 11월, 영양군은 남자현지사 생가를 복원하였다.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94번지 일원이다. 원래 생가 터가 있었던 393-6번지 바로 옆이다. 본채 · 문간채 · 추모각 등의 건물과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얼빈의 남자현 묘역은 사라지고 말았다. 1998년 여름, 남자현의 손자 김시련이 하얼빈을 찾았다. 할머니의 묘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 김성삼이 남자현의 묘지 앞에서 동지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이 들려있었다. 그러나 묘지는 이미 40년 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1958년 하얼빈시 도시건설 대약진 때에 시내에 있던 중국인과 외국인 묘지가 모두 황산皇山 공원묘지로 옮겨갔다. 이때 조선인 묘지도 없어지면서 남자현의 묘는 주인 없는 묘 가 되어 평지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김시련은 이곳에



영양 삼의사비(남자현 중앙)

서 조선인 묘역을 돌보던 9명의 할머니를 만났다. 김시련은 그들에게 할머니의 묘지는 찾을 수 없지만 할머니가 싸우다 세상을 뜬 하얼빈을 보고 가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남자현은 전통적인 규범 속에서 성장한 구여성 이었다. 그러나 당당히 그 껍질을 벗고, 46세 나이에 외아들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 뒤 14년 동안 만주에서 조국광복에 헌신하였던 그녀는 독립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열혈 투쟁가였다.



남자현 생가터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의義를 머금고, 광복의 꽃이 된 안동의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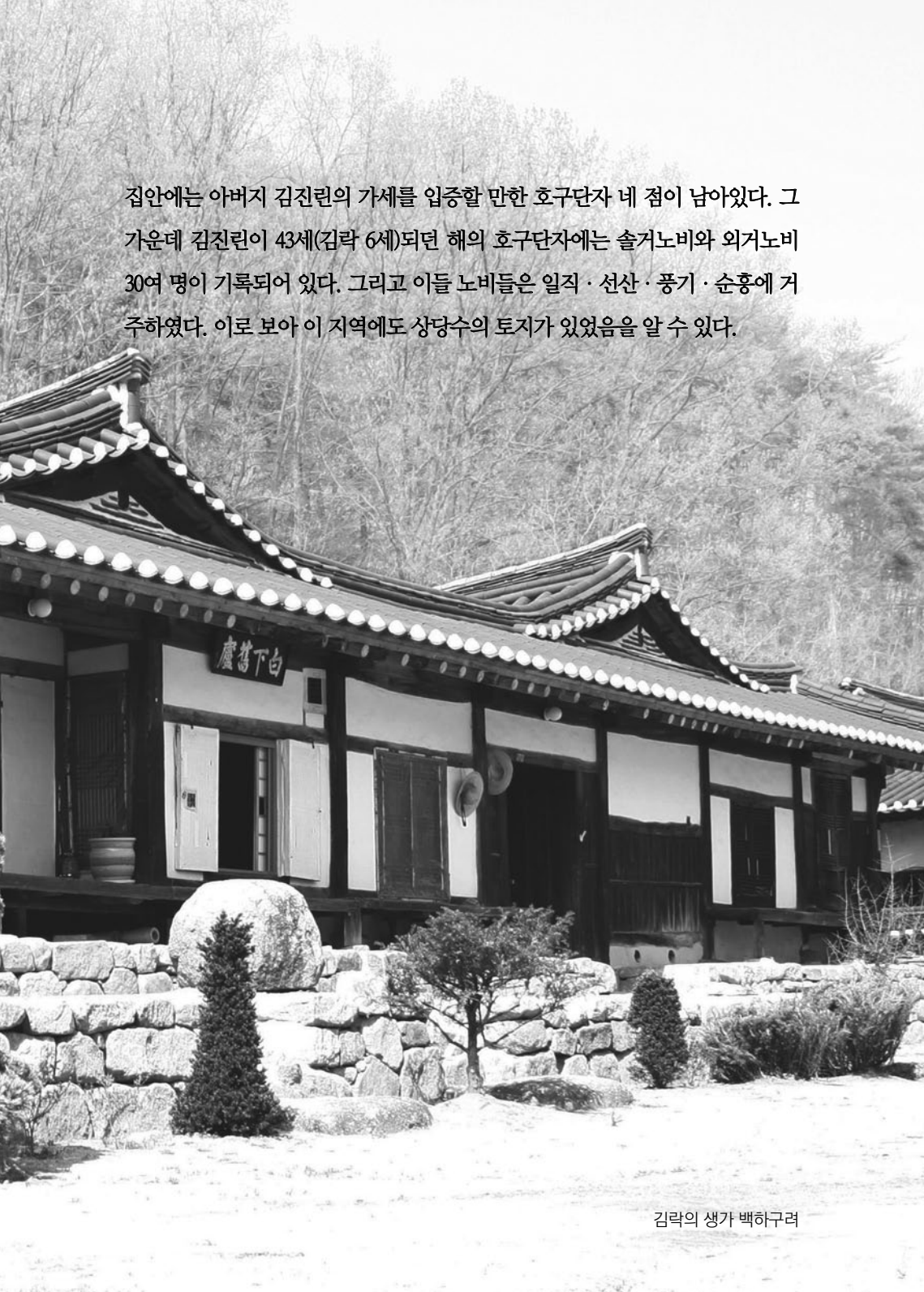
의義를 머금은 민족의 어머니 김락

김락金洛(1862.12.2~1929.2.12)은 남자현과 더불어 경북의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이다. 그녀는 1862년 음력 12월 2일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내앞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우파愚坡 김진린金鎭麟(1825-1895, 의성 김씨)이며, 어머니는 박주朴周(1824~1877, 함양 박씨)이다. 김락의 고향 내앞마을은 의성 김씨 청계靑溪 김진金璡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아버지 김진린은 입향조 김진의 둘째아들 귀봉龜峰 김수일金守一의 후손이다.

김진린은 1825년 김헌수金憲壽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인 김억수金億壽에게 양자를 들었다. 그가 도사都事를 지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이 집을 도사댁으로 부른다. 도사댁은 세칭世稱 사람 천 석 · 글 천 석 · 살림 천 석 , 삼천석 댁 으로 불렸다. 그만큼 경제력과 학문을 두루 갖춘 집안이라는 뜻이다.



집안에는 아버지 김진린의 가세를 입증할 만한 호구단자 네 점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김진린이 43세(김락 6세)되던 해의 호구단자에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3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노비들은 일직 · 선산 · 풍기 · 순흥에 거주하였다. 이로 보아 이 지역에도 상당수의 토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락의 생가 백하구려

또한 도사댁은 사람 천 석 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상당히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4남 3녀 가운데 막내딸이었던 김락은 위로 네 명의 오빠와 두 명의 언니를 두었다. 김대락金大洛(1845~1915) · 김효락金孝洛(1849~1904) · 김소락金紹洛(1851~1929) · 김우락金于洛(1854~1933) · 김정락金呈洛(1857~1881) · 김순락金順洛(1860~1937)이 바로 그 오빠와 언니들이다. 이 가운데 김우락과 김순락이 언니이다. 가세가 좋은데다 큰 오빠였던 김대락과는 17살이나 차이가 나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평온한 날만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김락은 만15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

어머니를 여의고 3년이 지난 1880년, 김락은 만18세의 나이로 결혼을 하였다. 시댁은 안동 도산면 토계리 하계마을에 자리잡은 진성 이씨 문중이었다. 남편은 이중업李中業(1863~1921)이었고, 시아버지는 양산군수를 지냈던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였다. 결혼한 지 4년만에 첫 딸 이호李鎬(1884-1917)가 태어났다. 김락은 보통의 여인들처럼 시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집안을 꾸려 나갔다. 어쩌면 그녀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한 때였을 것이다. 2년 뒤 김락은 시어머니를 여의고 말았다. 시어머니 권씨(1841~1886, 권승하權承夏의 딸)가 만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시집온 지 6년 만에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쏟아졌다. 김락은 홀로 된 시어른을 모시며, 일곱 살 된 어린 시동생과 자녀들을 보살펴야 했다. 그로부터 3년 뒤 1889년 첫아들 이동흠李棟欽이 태어났다.

무거워진 그녀의 삶에 또 다른 과제가 더해졌다. 바로 나라의 운명이었다. 국운이 점점 기울더니 1895년 급기야 명성황후 시해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시아버지 이만도는 의병항쟁으로 국권회복에 나섰다. 선성의진宣城義陣을 꾸리고 대장을 맡았다. 1905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김락의 시가 향산고택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시아버지 이만도는 을사늑약을 파기하고,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 뒤 일월산에 들어가 산나물로 목숨을 이어갔다.

1910년 8월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아버지 이만도는 9월 17일부터 음식을 끊기 시작하였다. 가족들과 친척들, 제자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그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단식을 이어가던 향산 이만도는 24일째 되던 1910년 10월 10일 순국하였다.

경북 지역에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자결로써 저항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안으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물은 것이고, 밖으로는 일제 강점의 부당성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다. 특히 이만도는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과 부끄러움에 자신을 살려둘 수 없었다. 이들이 걸었던 길은 비록 옛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투쟁의 의지를 열어주었다. 자신은 비록 죽지만 끝까지 뜻을 꺾지 말

明治三十九年以降ニ於ケル暴徒ノ蜂起及大正八年萬歲騷擾カ遠クハ壬辰ノ役以來培ハン來リタル排日ノ事實ヨリ出發シ居レルハ明カナル處ナルカ之等ノ二大騷動ニヨリ一般鮮人間ニ植付ケラレタル排日ノ觀念ハ更ニ一層大ナルモノアルヘク就中良民ノ殺戮、暴民ノ死傷等ニヨリ其眷族ハ擧ケテ日本ニ怨恨ヲ挾ムニ至ルハ當然ノ歸結ニシテ現ニ安東ノ兩班故李中業ノ妻ハ大正八年騷擾當時守備隊ニ引致取調ヲ受ケタル結果失明シ爾來十一年間苦シミタル末昭和四年二月死亡シルタメ日本ニ對スル敵意ハ日夜忘却シ能ハサル旨實子李棟欽自ラ告白シ居レルカ如キ其一事例ナルカ本件ノ如キ隱レタル事實ハ他ニモ相當多キヲ算スヘク排日ノ因ハ之等ニヨリテ更ニ其範圍ヲ擴メ加フルニ明治三十八年日韓保護條約締結以降時世ヲ憤慨國外ニ走レルモノ或ハ暴徒ノ討伐及騷擾檢擧ノ手ヨリ免

『고등경찰요사』

라는 유지를 남겼고,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이어갔던 것이다.

시아버지의 자결 순국은 김락에게도 일생의 큰 교훈이자 과제가 되었다. 만 48세의 김락은 안으로는 시아버지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밖으로는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김락에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더해졌다. 친정 큰오빠 김대락이 친척을 이끌고 만주 망명길에 오른 것이다. 게다가 언니 김우락金宇洛의 가족들까지 만주로 떠났다.

언니 김우락은 바로 석주 이상룡의 부인이다. 더구나 큰 오빠는 67세의 노인이 아니던가! 1910년은 나라의 운명만큼 김락에겐 모질고도 모진 한해였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맏아들 이동흠李棟欽도 항일투쟁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1917년 무렵 광복회에 들어가 독립운동 자금모집 활동을 펼쳤다. 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단체로 만주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이동흠은 1918년 그 활동이 드러나 체포되어 5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19년 남편도 독립운동에 나섰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듬해 파리에서 전쟁 뒷마무리를 위한 강화회의가 열렸다. 남편 이중업은 여기에다 독립청원서 를 보내는 활동을 펼쳤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이렇게 온 가족에게 조국광복 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김락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도 1919년 3월 독립만세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가 바로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이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 경북경찰부가 만든 고등계 형사들의 지침서이다. 여기에 안동의 양반 이중업의 처는 1919년 소요 당시 수비대에 끌려가 취조받은 결과 실명失明했고, 이후 11년 동안 고생한 끝에 1929년 2월에 사망하였

다 라는 기록이 나온다. 김락은 3월 17일과 22일, 안동의 예안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녀의 나이 58세였다. 그런데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년 뒤인 1921년 남편마저 잃고 말았다. 2차 독립청원운동을 준비하던 남편 이중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어 둘째 아들 이종흠도 1926년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1년의 옥고를 치렀다. 홀로 남아 고통스러운 만년을 보내던 그녀는 두 번의 자결을 시도했다고 전한다. 그 뒤 김락은 1929년 2월 12일 6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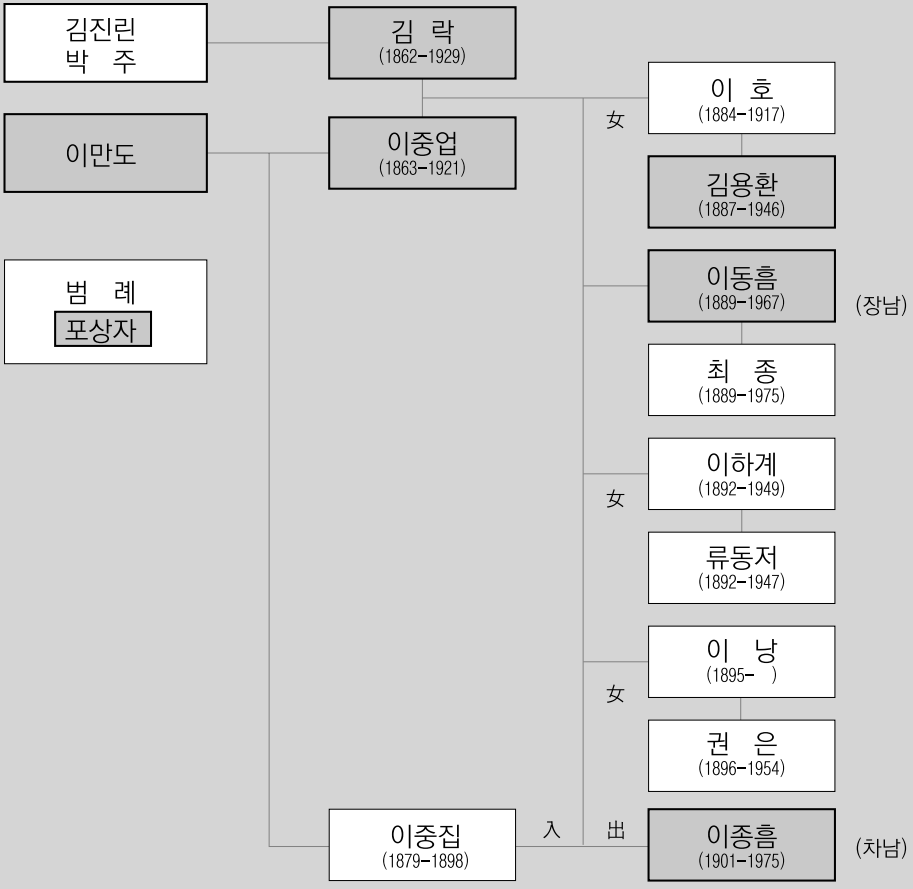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펼쳤던 한 가문의 복판에서 김락은 한 아내, 한 어머니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 다음 기록은 그가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의로운 길은 곧 아들 이동흠의 이정표 가 되었다. 이것이 김락 열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슴 뜨거운 교훈이다.

> 안동의 양반 고 이중업의 처는 대정 18년(1919) 소요 당시 수비대에 끌려가 취조 받은 결과 실명失明했고, 이후 11년 동안 고생한 끝에 소화 4년(1929) 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밤낮 적개심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들 이동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
> 『고등경찰요사』

김락의 묘소



가계도


김진린
박 주
김 락
(1862-1929)
이 호
(1884-1917)
女
이만도
이중업
(1863-1921)
김용환
(1887-1946)
이동흠
(1889-1967)
(장남)
범 례
포상자
최 종
(1889-1975)
이하계
(1892-1949)
女
류동저
(1892-1947)
이 낭
(1895-)
女
권 은
(1896-1954)
이중집
(1879-1898)
入
出
이종흠
(1901-1975)
(차남)



만주항일투사의 버팀목이 된 임청각 종부, 김우락! 허은!

석주 이상룡의 부인 김우락

1911년 음력 1월 27일, 압록강 칼바람을 가로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주에 독립군기지를 세우기 위해 신민회와 약속했던 땅! 유하현 삼원포로 향하는 걸음이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이다. 그 행렬 속에는 아내 김우락金宇洛(1854-1933)과 며느리 이중숙李中淑(1875~1944)을 비롯한 여인들이 있었다.

이상룡의 부인 김우락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내앞 마을) 출신이다. 1854년



유하현의 한인 마을

아버지 김진린과 어머니 박주 사이에서 4남 3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큰 오빠는 김대락金大洛이며, 막내 여동생이 김락金洛이다. 그녀는 성장하여 석주 이상룡의 부인이 되었다. 1875년 9월 아들 이준형이 태어났고, 이때 그녀는 만 21살이었다. 이를 통해 그녀의 결혼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녀는 가진 재산도, 누리는 신분도 모두 남부럽지 않은 큰 집안의 종부였다. 그러나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은 평범한 종부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 이상룡은 국권회복운동에 적극 나섰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자 가야산에 의병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1만금을 투자하였다. 거병이 실패하자 이상룡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그는 애국계몽운동으로 전환하여 대한협회 안동지회장을 맡아 교육과 식산흥업을 통한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찾고자 하였

다. 그러나 1910년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남편 이상룡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가야산 기병과 대한협회안동지회가 실패하고 나라가 망한 지금 다만 결행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렇다고 이상룡은 자진을 선택할 수 없었다. 어떤 경우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것 이 유가의 근본임을 알고 있지만 그 바른 길 이 곧 죽음 이라는 확신이 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백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을 뜻으로 단군성조의 영토, 고구려 강역 만주로 옮겨가 독립운동을 펴겠다 는 단안을 내렸다. 그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이상룡이 만주망명을 선택한 까닭이었다. 김우락도 남편의 뜻을 좇아 망명 준비에 나섰다.



임청각 옛 모습(일제강점기)

이상룡과 김우락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 첫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들은 정월 명절을 새고 음력 1월 4일 선산에 있는 도곡에서 고향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사당에 나가 조상들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이상룡은 일가의 전송을 받으며 만주로 가는 첫 걸음을 옮겼다. 그의 출발을 알고 찾아온 동문들과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였다. 이상룡은 지금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조국을 되찾는 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별이니,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들을 달래며 떠났다.

이상룡은 가족들을 대동하지 않고 단신으로 출발하였다. 망명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편이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일본경찰의



임청각(현재)

감시를 받았다. 아들 이준형은 경찰서에 끌려가 고초를 받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가가 서간도에 모두 모이는 데 꼬박 3개월이 걸렸다.

김우락은 57세의 나이로 망명길에 올랐다. 1914년 만주에서 쓴 「간운ᄉᆞ」에는 망명 무렵을 회상한 부분이 있다. 「간운ᄉᆞ」는 김우락이 1914년 무렵 고국의 형제자매를 그리워하며 지은 가사이다. 그녀는 살림과 전택을 버리고 속절없이 고국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리고 여자의 소견으로 충의보다는 삼종지의를 따랐다고 하였다.

갑오년후 심여연을 비ᄉᆞ비야 은거ᄒᆞ니
연비가 업ᄂᆞᆫ곳의 셔신조ᄎᆞ 희소터니
경슐연 츄칠월의 세ᄉᆞ가 망측ᄒᆞᆫ지
즁국의 고심혈성 건국의ᄉᆞ단 졍ᄒᆞ니
무식ᄒᆞᆫ 여ᄌᆞ소견 충의열심 잇ᄀᆡ스랴
마음의ᄉᆞ 불합ᄒᆞᄂᆞ 삼종지의 썻썻ᄒᆞ니
아니가고 엇지ᄒᆞ리 살림전턱 다바리고
금슈갓ᄒᆞᆫ 우리조국 동은하량 호가ᄉᆞ를
헌신갓치 던져주고 속졀업시 ᄯᅥ날시예(중략)

일행은 기차를 타기 위해 추풍령까지 걸어갔다. 추풍령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다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향했다. 신의주에 먼저 도착한 이상룡은 뒤따라 올 가족을 기다리며 화폐를 중국 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만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1월 27일, 드디어 압록강에 도착한 김우락은 먼

저 도착해 있던 남편과 함께 강을 건너 중국 단동으로 들어갔다.

김우락이 처음 머문 곳은 회인현懷仁縣 횡도천橫道川이다. 현재 지명은 환인현 항도촌恒道村이다. 1988년 편찬된 『환인현 조선족지』에는 1911년 2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조선 반일조직 신민회의 이상룡 · 김형식 · 황도영 · 이명세 등이 환인현 심택진의 집에서 회의를 열고, 반일운동기지 건설에 관한 유관사항을 토론했다 고 기록하였다.

2월 7일 항도촌에 도착한 김우락과 가족들은 한인 심택진의 집에 잠시 여장을 풀었다. 2월 15일 북산동北山洞에 빈집을 빌려 기거할 때까지 함께 지냈다. 망명시 그들의 목적지는 유하현 삼원포였다. 안동사람들이 항도촌에 머물고 있을 때 이미 이회영李會榮 일가와 이동녕李東寧 등은 유하현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편은 이동녕에게 편지를 써서 거주할 집과 경작할 토지를 구하기 위해 아들 이준형을 유하현으로 보냈다.

석주 일가의 첫 정착지 환인현 항도촌



그러나 유하현에 거처할 집과 토지를 구하려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우락 일가는 항도촌 북산北山에 집을 세내어 2월 15일 이사하였다. 그런데 북산에서도 집주인의 독촉으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사한지 보름만인 3월 2일 다시 두릉구杜陵溝로 이사했다. 4월 10일 시동생 이봉희가 도착하였다. 이로써 망명을 계획한 가족 친인척들이 모두 서간도에 도착하여 해후하였다. 김우락은 5월 하순경 다시 유하현과 통화현의 경계에 위치한 영춘원永春源으로 이사하였다. 10월 하순 재차 유하현의 대우구大牛溝로 옮겨야 했다. 그 사이 남편은 삼원포 추가가를 오가며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1910년대 만주에서 펼친 남편 이상룡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동포사회의 사회 ·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서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한인들의 안정된 생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석주 이상룡은 만주의 풍속과 자치제도를 조사하고, 중국민적의 입적入籍문제와 관련하여 호적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서간도의 농업환경과 경작방식도 검토하였다.

둘째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 자치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 첫 조직이 경학사耕學社였다. 이상룡은 경학사 사장이 되어 한인사회를 이끌었다. 이상룡은 「경학사취지서」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백 번 꺾여도 변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 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이미 예견된 어려움을 굳센 의지로 극복하자는 강한 메시지였다. 이 무렵 서간도 한인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굳센 의지와 희망! 바로 그것이었다. 경학사는 그 뒤 부민단扶民團과 한족회韓族會로 계승되었고, 이는 남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는 민족교육기관 설치와 교육활동이다. 이들은 첫 학교로 1911년 삼원포 추가가에 신흥강습소를 열었다. 신흥강습소는 독립군을 양성할 기반이 되었고, 신흥무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넷째는 병영兵營의 설치이다. 1910년대 한인사회의 큰 목표는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흥학교와 같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곳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백서농장白西農庄 · 마록구농장馬鹿溝農庄 · 길남장吉南庄과 같은 병영을 세웠다.

1910년대 남편을 비롯한 독립운동계의 노력으로 동포사회는 독립군을 길러내는 인적 · 물적 자원을 제공하였고, 자치단체는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중심기구로 기능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병영은 실제 독립군을 길러내는 곳이었다. 청년들은 학교와 병영에서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독립군으로 성장했다. 그 가운데 백서농장은 서로군정서로 편제되어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청산리전투를 이끄는 역할을 해냈다. 만주지역 독립군단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1920년 청산리전투의 승리는 1910년대 무장투쟁론이 일구어낸 중요한 결실이었다.

김우락은 지도자의 아내로 어려움을 꿋꿋하게 감내하였다. 그녀의 만주생활은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다. 어린 손녀와 손자를 잃었고, 1915년에는 오빠 김대락도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김우락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잡았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쓴 「간운ᄉᆞ」에서 잘 드러난다.

어와 우습도다 육십경역 우습도다
슈양ᄉᆞᆫ 칙미가을 우리먼져 간심ᄒᆞ여

어와 우습도다 육십경역 우습도다
슈양ᄉᆞᆫ 칙미가을 우리먼져 간심ᄒᆞ여
비사지심 먹지말고 활대한 심ᄉᆞ로셔
희망부쳐 지내리라. (중략)
슬푸다 내일이야 진몽인가
이싸이 어대련고 아마도 쑴이로다
즁천의 져기력이 너난엇지 나라가노
이몸이 남ᄌᆞ런들 세계각국 두루노라
쳔ᄒᆞᄉᆞ업 다홀거슬 무용여ᄌᆞ 의들도다

그녀는 만주생활을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사는 것에 비유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하였다. 또 자신이 남자라면 세계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천하 사업을 다하고,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겠지만 무용無用의 여자임을 애달파하기도 하였다.

함께 갔던 며느리 이중숙은 몸이 쇠약하여 만주에서도 잦은 병치레를 하였다. 이중숙은 1875년 이만유의 딸로 태어나 이준형과 혼인하였다.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산리대첩 이후 이어지는 간도참변에 많은 목숨이 만주에서 스러졌다. 남편 이상룡에게는 현상금이 걸렸다.

이를 딛고 1920년대 이상룡은 다시 독립군단 통합에 나섰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자 이병화는 어엿한 독립군으로 성장하였고, 1922년 허은許銀(1907~1997)과 혼인하였다. 손부 허은이 들어오면서 김우락은 그 짐을 나누게 되었다.



석주 이상룡 손부 허은

조국의 운명은 나의 운명! 허은

허은은 구미시 임은동에서 태어났다.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왕산 허위가 그의 재종조부이며, 이육사의 어머니 허길이 바로 그녀의 종고모이다. 허은은 8세에 아버지 허발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만주 영안현으로 망명하였다. 16세가 되던 1922년, 허은은 이상룡의 손자 이병화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이 무렵의 자신에 대해 항일투사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투사의 집으로 시집간 것은 운명이었고, 이천팔백 리 시집가는 길은 앞으로 전개될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는 길이기도 했다. 조국의 운명이 순탄했으면 그리 되었겠는가? 라고 훗날 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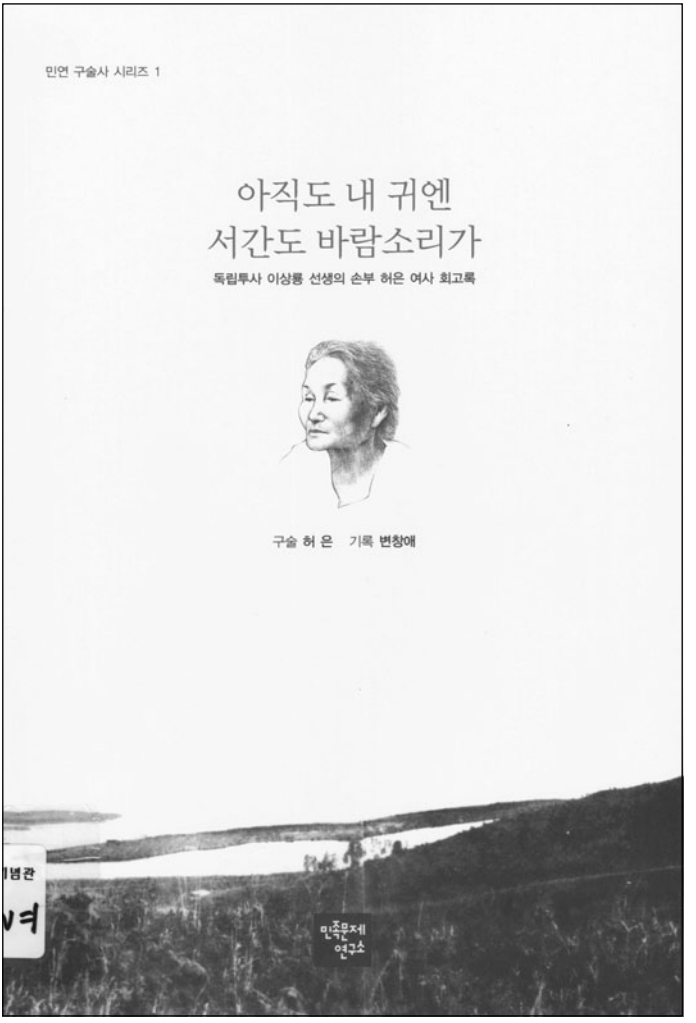
그 뒤 그녀는 조국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꿋꿋하게 살아갔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항일투사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투사 집으로 시집간 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라의 운명 때문에 한 개인의 운명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천팔백리 먼 길은 내 시집가는 길이요, 앞으로 전개될 인생길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길이기도 했다. 조국의 운명이 순탄했으면 그리 되었겠는가?

(허은 회고록)

그녀는 가족은 물론 만주지역 항일지사들의 그림자가 되어 온갖 고난을 견뎌냈다. 굶주림과 추위, 각종 전염병과 맞서야 했다. 잔혹한 일제와 중국 마적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특히 서로군정서 회의와 같은 각종 회의가 집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하루하루 부족한 땟거리를 마련하는 일도 결코 녹록치 않았다. 시집온 이듬해에는 감기가 들었는데 쉴 수가 없어 부뚜막에서 쓰러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서로군정서 대원들과 김동삼 · 김형식과 같은 항일투사들에게 손수 옷을 지어 드렸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녀는 이들을 잘 보필해 드리는 것이 곧 나라를 되찾는 길이라 여겼다.

군정서 회의로 항상 손님은 많았는데, 땟거리는 부족했다. 점심 준비하느라 어떤 때는 중국인에게서 밀을 사다가 국수를 만들곤 하였다. 마당의 땡볕 아래서 맷돌을 돌려 가루를 내고, 또 그것을 반죽해서 국수를 뽑았다. 고명거리가 없으니 간장과 파만 넣어 드렸다. 삼시 세끼 준비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시집온 다음 해


민연 구술사 시리즈 1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구술 허 은 기록 변창애
민족문제
연구소

허은 회고록

에 한번은 감기가 들었으나 누워서 쉴 수가 없었다. 무리를 했던지 부뚜막에서 죽 솥으로 쓰러졌다. 그때가 열 입곱 살, 그러니까 1923년이었다.

서로군정서에서는 의복도 모두 단체로 만들어서 군정서 조직원들에게 배급해 주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식 검정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도록 했다. 이 두루마기 한 벌을 받으면 다 해지도록 입곤 했다. 나도 그 옷을 숱하게 만들었다. 김동삼 · 김형식 어른들께 손수 옷을 지어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개가 헤아릴 길 없다.

1932년 5월 이상룡이 끝내 만주 땅에서 순국하자, 허은은 시조모 김우락과 시어머니 이중숙을 모시고 귀국길에 올랐다. 망명도 힘들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더 어려웠다. 일제경찰의 감시를 피해 밤에 이동해야 했고, 거기다 습종濕腫에 걸린 김우락은 손자에게 업혀 와야 했다. 그녀는 귀국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1933년 4월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11년 뒤인 1944년 시어머니 이중숙도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귀국 후에도 5년 동안 중풍을 앓았다. 1942년 시아버지 이준형이 자결하고, 2년 뒤 그녀도 세상을 떠난 것이다.

1932년 만주에서 돌아와 조상대대로 물려 내려온 임청각을 처음 대면한 허은은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제의 감시가 심해 월곡면 도곡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여전히 궁핍한데다 힘들었다. 그 뒤 그리 원하던 광복이 되었지만 해방정국의 상황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6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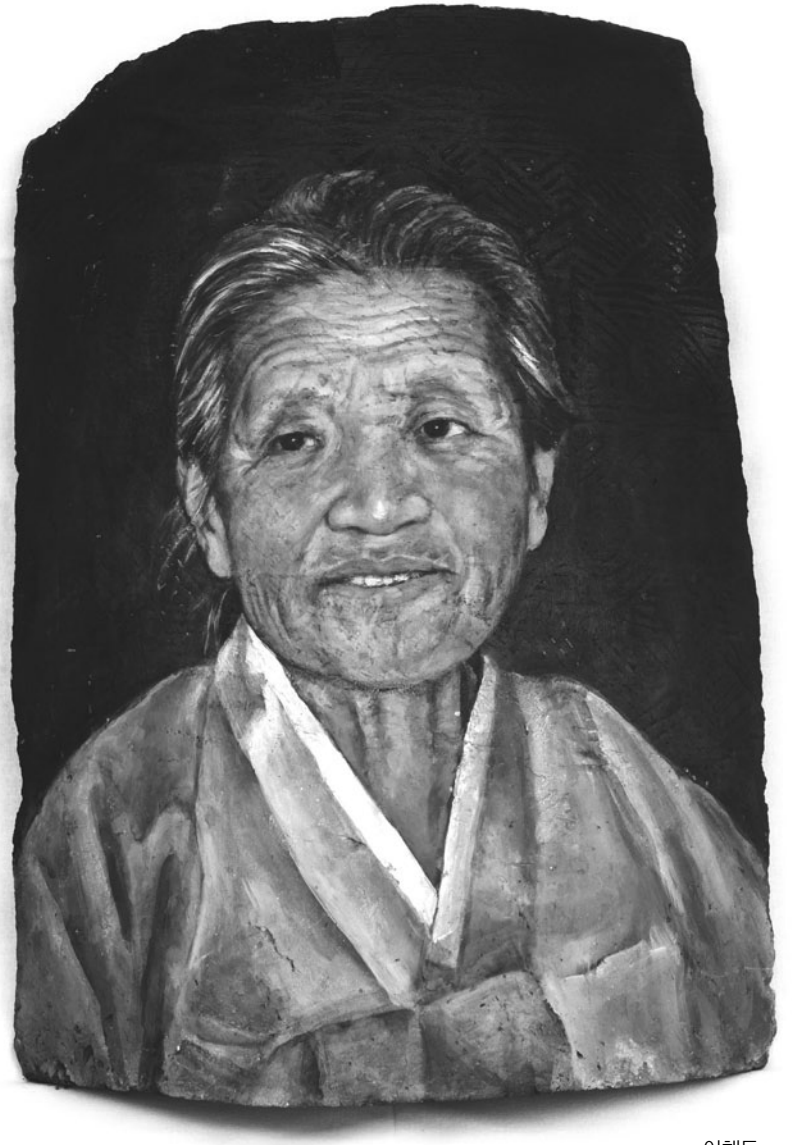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고 말았다. 43세의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을 견뎌냈던 그녀에게 1990년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시조부 이상룡의 유해가 중국에서 봉환되었고, 남편 이병화도 독립장에 추서된 것이다. 그리고 1995년 88세가 된 그녀는 만주생활을 담은 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를 출판했다. 허은은 이 책 말미에 이제 좋은 시절 만나 여한이 없다. 비록 고달픈 발자국이었지만 큰일하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라 고 썼다.

임청각 독립운동가 3대 뒤에는 종부 3대가 있다. 그녀들은 만주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독립운동가를 지키며 길러냈다.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여겼다. 그녀들은 희생의 진정한 가치 를 돌아보게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작은 희생도 버거운 무게가 되었다. 사실은 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가면서!

1990년 이상룡의 유해봉환식장에서 헌화하는 허은 여사





이해동

만주벌 호랑이, 일송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

이해동李海東(1905-2003)은 1905년 도산면 토계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조부 이강호李綱鎬는 진성 이씨 만화공의 주손이다. 예안면 인계리에 위치한 만화공댁은 바로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가 단식순절한 곳이다. 이강호는 이만도가 단식하는 동안 이를 뒷바라지하며, 많은 방문객들을 맞았다. 이어 이만도가 순국하자 장례를 치른 뒤, 아들 이원일李源一을 앞세워 가족 모두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해동 일가의 망명에는 이처럼 이만도의 장렬한 자정순국이 정신적 바탕으로 깔려 있었다. 그 때문에 가는 걸음이 더욱 비장하고 장엄했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이원일은 협동학교 출신으로 일송 김동삼의 제자이자, 투철한 동지였다. 나라가 무너지자 아버지 이원일은 1911년 망명길에 올랐다. 그 망명 대열에는 여섯 살의 이해동이 있었다. 이해동은 조부와 조모, 아버지와 어머니, 숙부 이원행과 숙모, 고모 두 명과 함께 영하 30도의 추위를 가르며 만주로 향했다. 추위와 싸우는 것으로 첫 고생이 사작되었다.

훗날 이해동은 그의 회고록에서 아래윗니가 연방 방아질을 하였고, 손발은 얼어서 제 감각을 잃었다. 고향을 떠나 만주벌판에서 추위와 싸우는 것으로부터 첫 고생이 시작되었다. 조모께서는 고놈의 날씨 왜놈보다 더 독하고 하셨다 고 기록하였다.

고향에서 가져온 재산도 별로 없었던 이해동의 집안은 생활난을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동포들은 첫 농사의 흉작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풍토병으로 노약자는 물론 젊은 사람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해동 일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20대의 청년이었던 숙부가 목숨을 잃었고, 이어 1년 뒤 10대의



이해동의 생가터 (예안면 인계리 향산 유허비)

소녀였던 두 고모도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이원일은 경학사耕學社 조직에 참여하여 간도지역 독립운동 기반조성에 온 힘을 바쳤다.

세월이 흘러 15세가 되던 1920년 이해동의 혼사 이야기가 오고 갔다. 마침내 일송 김동삼의 아들 김정묵金定默으로 혼처가 정해졌다. 그런데 그해 시삼촌이 될 김동만金東滿이 일제에게 무참하게 학살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청산리 전투 후 간도에서는 3,500여 명의 한국인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를 간도참변이라 부른다. 이 때 김동삼의 동생 김동만도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희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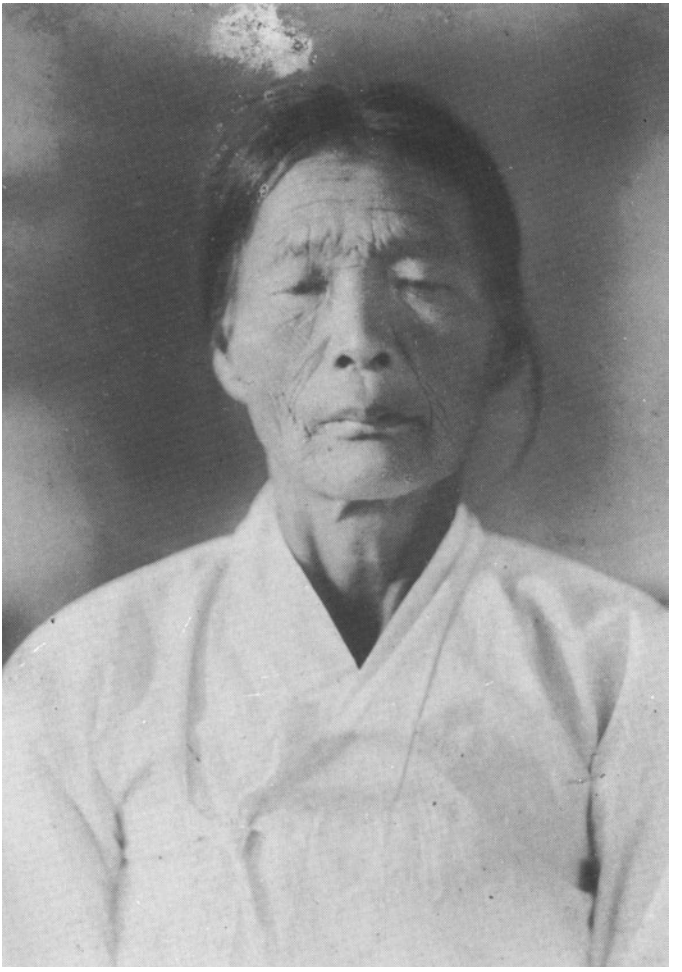
이로 말미암아 결혼이 미뤄졌다. 그런데 간도참변으로 위협을 느낀 이원일은 김장식金章植과 논의 끝에 북만주로 가족을 이동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장식은 김동삼의 4촌 동생이다. 김동만이 참극을 당하자 동생의 몫을 대신

할 사촌동생을 만주로 부른 것이다. 1921년 북만주로 이동하는 계획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다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름이 결혼식이지 그저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을 뿐이었다.

이해동은 북만주 영안현 주가툰周家屯으로 옮겨갔다. 양가 일행이 나선 길은 마차로 개원開源(심양과 장춘사이에 있는 현청 소재지)까지 가서, 그곳에서 기차로 하얼빈까지 이동하는 길이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며칠을 달려 개원에 이르러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했다. 다시 목단강으로 가는 밤기차로 이동하여 해림역에 내렸다. 친정 가족은 여하呂河라는 중국인 마을에 터를 잡았고, 이해동은 영안현 주가툰에 정착했다. 처음으로 친정식구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결혼 후 집안일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와 가족들은 북만주를 떠돌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 나갔다. 1926년 봄 아성현으로 옮겼다. 가족들은 아성현의 여러 곳을 돌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 뒤 이해동은 다시 하얼빈에서 장춘방향으로 100km 떨어진 채가구로 옮겼다. 여기에서 이해동은 첫 아들 김장생金長生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아버지 김동삼을 두 번째로 만났다. 1928년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가족을 찾아온 것이다. 그나마 다른 곳에 머물고 있던 시어머니 박순부는 김동삼을 만나지 못했다.

생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때로는 마적들과 맞서며 힘겨운 생활을 하던 이해동에게 1931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만주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이어가던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으로 면회를 갔고 이는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박순부는 이때도 함께 면회를 가지 않았다. 그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



시어머니 박순부

라 여겼고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박순부朴順夫(1882~1950)는 반남 박씨 박제희朴濟禧의 딸로 태어나 김동삼의 부인이 되었다. 1911년 김동삼이 만주로 망명하자 그녀도 아들 형제를 데리고 만주로 떠났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부인으로 살면서 남들처럼 따뜻한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만주에서 남편을 만난 것은 단 두 번이었다.

일송 김동삼은 1931년 국내 형무소로 옮겨졌고 만주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처지는 더욱 힘들어졌다. 일본의 만주점령으로 동포들은 더 이상 독립군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머물던 소가하는 마적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해동은 1931년 11월 하얼빈으로 옮겨갔다. 시어머니와 아이들만 떠나는 피난길이었다. 벼 베기는 다 하였지만 타작을 미처 못해 농사를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1932년 이해동은 도외道外 오도가五道街 중국인 셋집 한 칸을 얻어 시어머니와 아이들과 겨우 연명하였다. 남편과 형제들은 농사철이 되면 소가하에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 그런데 그해 여름, 큰 비로 송화강 둑이 터져 하얼빈시는 물바다가 되었다. 하얼빈시 2/3를 뒤덮은 큰 수해였다. 이해동이 살던 오도가는 바로 송화강 옆이었다. 이해동은 홍수를 피해 옷가지와 이불만 지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남강이라는 높은 언덕으로 피신하여 목숨은 구했지만 살 집을 잃었으니 막막하였다. 그녀는 언덕길 옆 판자집에 가마니를 깔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이상 움막에 머물 수 없어 다시 셋집을 구하였다. 이번에는 빈강역에서 가까운 승덕가에 셋집 한 칸을 얻어 들게 되었다.

이듬해 석주 이상룡의 조카 이광민이 이해동의 딱한 사정을 보고 취원창으로 옮겨가길 권하였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고생하던 가족들은 1933년 취원창으로 이주하였다. 이해동은 만삭의 몸이라 잠시 더 승덕가에 머무르며 둘째 아들 김중생을 얻었다. 이 무렵 이해동은 딸 하나와 아들 두 형제를 둔 30세의 어머니였다. 그 뒤에도 이해동은 여러 남매를 키웠지만 온갖 풍파 속에 모두 잃고, 둘째 아들만 살아남았다.

1933년 경성형무소에서 시아버님 김동삼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가족의 안부와 새로 출생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긴 편지였다. 처음 받아보는 시아버님의 편지에 반갑기도 했지만 면회 한 번 못가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었다. 가족들은 사진을 한 장 찍기로 하였다. 이 사진이 만주생활 반세기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이해동은 1934년 초봄 예정대로 취원창으로 향하였다. 하얼빈에서 송화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70리, 마차로 꼬박 하루가 걸렸다. 300호가 넘는 큰 동리였다. 취원창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부분 고향이 경상도였다. 그 가운데 의성 김씨 일족도 10여 호 살고 있었다. 서로 도와가며 화목하게 살았고, 시아버지 덕분에 교포들에게 존경도 받았다. 이곳에서 이해동은 어느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불행은 이어졌다. 1937년 비보가 날아들었다. 시아버님의 옥사 소식이었다. 병이 위중하다는 전보를 받고 남편이 서울로 떠났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전날 눈을 감은 후였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남편은 요시찰인물로 지목되어 매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1945년 그리 기다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다는 소



경성형무소에 있는 김동삼에게 보내기 위해 찍은 가족사진. 뒷줄 왼쪽 큰아들 정묵, 오른쪽 둘째 아들 용묵, 앞줄 왼쪽부터 큰손자 장생, 큰며느리 이해동과 둘째 손자 중생, 손녀 덕축, 아내 박순부와 용묵의 딸 귀생, 딸 영애, 둘째 며느리

식에 취원창은 온통 승리의 기쁨으로 들끓었다. 경축대회도 이어졌다. 그러나 감격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급변하는 중국의 정세 속에서 교포들은 취원창을 떠나야 했다. 이해동도 10년 넘게 정착했던 취원창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는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다.

1946년 7월부터 1947년 6월까지 시행되었던 1차 토지개혁 당시 이해동의 집은 부농으로 분류되어 일체의 살림살이를 몰수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다. 가진 토지는 많지 않았지만 남편이 취원창 교포상점에서 일하는 몇 해 동안 고용일꾼 한 명을 둔 것이 화근이었다. 이 일로 남편은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 시기 이해동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회고록에 자세히 드러난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을 마음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어린 지식들을 두고 생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 바가지를 들고 동냥에 나섰다. 허기진 몸으로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교포들에게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모두 불쌍히 생각하고 동정해 주었기에 동냥 쌀이 두 포대 되어서 그해 겨울 양식은 당분간 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밤이 올까봐 제일 겁이 났다. 추운 겨울 서북풍은 살을 에는 날씨인데 이불한 채 없이 밤을 새우자니 배고픈 고생보다 더 무서웠다. 참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중략) 나도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 왔고 출가하여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힘에 겨운 모든

고생을 참아가면서 살아왔지만, 이때처럼 외롭고 슬픈 시절을 처음 겪었다. 왜놈을 반대하여 목숨걸고 싸운 우리가정이 공산당 통치하에서 이렇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사실 이런 참변은 그 당시 북만주 교포들 중 우리 한집만은 아니었다."

처지가 이렇다 보니 이해동은 가시에 찔린 손가락을 그대로 두었다가 잘라내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듬해 이해동의 집은 계급성분이 중농으로 고쳐져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불행은 이어졌다. 1950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을 이끌면서 요시찰 인물로 고초를 겪었던 남편이 중공 치하에서 억울하게 부농으로 오인 받아 죽도록 매를 맞고 결국 2년이 못되어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해동은 남편의 일생이 한없이 원통하였다. 남편이 죽자 농사일과 집안일은 모두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 1955년부터 이해동은 집단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도 아들이 아성현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농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아들이 숙청대상에 들어가면서 이해동의 가족은 또 한 차례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온갖 풍상을 이겨낸 그녀는 1989년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여섯 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만주로 갔던 이해동은 7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만주생활 77년을 끝내고 1989년 1월 18일, 85세의 나이로 영주 귀국한 것이다. 그녀는 19일부터 〈조선일보〉에 난중록을 연재하였다. 이 난중록은 1990년 『만주



1989년 1월 귀국 후 김동삼 묘소를 참배하는 이해동

생활 77년』으로 엮어졌다. 그 뒤 이해동은 고국의 품안에서 13년을 살다 98세를 일기로 2003년 8월 별세하였다.

그녀의 시댁이었던 내앞 마을에서 그녀가 시어머니를 회고하며 남긴 글을 더듬어 본다. 남편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시어머님 생각은 구식 여성으로서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남편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었고, 말없이 참고 침묵으로 살아온 시어머님의 일생은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시아버님께서 직업혁명가로 평생을 국권 회복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님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시어머님은 혁명가의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0세의 나이로 고향에서 남편과 갈라진 시어머님은 아들 형제를 데리고 만주에 와서도 남들처럼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여 본 적이 없었다. 정말 과부나 다름없이 청춘을 살아 오셨던 것이다. 하얼빈 영사관에서 체포되어 가족이 면회를 가는데 시모친은 남편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남편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시어머님 생각은 구식 여성으로서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남편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었고, 말없이 참고 침묵으로 살아온 시어머님의 일생은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시아버님께서 직업혁명가로 평생을 국권 회복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님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 칠십 노인이 세상풍파를 다 겪고 살아 왔으며 유일하게 믿고 있던 아들이 먼저 떠났으니 생활 욕망의 마지막 기운이 없어졌을 것이다. 남편이 죽은 다음 실성한 사람처럼 말이 없고 그래도 제 정신이 있을 때는 내가 들일을 하고 있으니 집안 살림을 힘가는 데까지 돌봐 주었다. 비록 남편이 가고 쓸쓸한 집안이지만 늙은 시어머님이 생존하였을 때는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이해동의 회고록에서)



이해동의 회고록 『만주생활 77년』

만주에서 남편을 따라 자결한 김씨부인

배재형裵在衡의 부인 김씨는 안동시 서후면 금계마을 출신이다. 의성 김씨 김익모金益模의 딸로 태어나 성장하여 예안면 정산리 출신 배재형과 결혼하였다. 남편은 협동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아버지 간산艮山 배인환裵仁煥(본관 흥해, 이명은 배인택)을 따라 1912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시아버지 배인환은 대한협회 안동지회에 참가하여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 대한협회는 1907년 11월 서울에서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단체이다. 안동에 그 지회가 만들어진 것은 1909년 3월이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이끈 것은 지회장 이상룡을 비롯한 류인식 · 송기식宋基植 등의 혁신유림이었다. 이들은 교육과 식산흥업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설립 초기 안동의 보수 유림들의 반발과 비판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10년에 이르러 회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0년 8월 일제강점으로 1년 6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이끌던 이상룡은 1911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의 망명은 경북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망명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배인환도 1912년 정월, 일가 10여 호를 거느리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시아버지 배인환은 만주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였다. 처음 정착한 곳은 통화현 을밀乙密이었다. 그 뒤 1914년 합니하哈泥河 청구자靑溝子로 옮겨가 동진학교東進學校를 세우고 교감을 맡았다. 1915년에는 마록구馬鹿溝에 협창학교協昌學校를 설립하고 교감으로 활약하였다. 이때 이해동의 아버지 이원일이 학감을 담당하였다. 이해동은 일송 김동삼의 며느리이다.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망명한 남편 배재형은 1919년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약하였다.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독립전쟁을 통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독립군을 길러낼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 첫 결실이 바로 1911년 삼원포 추가가에 세워진 신흥강습소였다. 신흥강습소는 독립군을 양성할 기반이 되었고 신흥무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신흥학교는 생활 자체가 투쟁이었다. 재학생 스스로도 학교생활을 학 · 병 · 농 투쟁이라 불렀다. 이들의 하루일과는 새벽 6시 기상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팔소리가 울리면 3분 이내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검사장에 뛰어가 인원 점검을 받았다. 살을 도려내는 눈보라와 추위를 견디며 보건체조와 청소를 마친 생도들은 세수를 하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했다. 이어 조례, 애국가 제창, 교장의 훈화가 끝나면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전수업은 군사학과 일반 수



신흥무관학교 터(고산자)

업, 오후 수업은 군사 훈련과 영농 활동이었다. 취침 시간은 저녁 9시였다.

이에 비해 식사와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이들의 식사는 중국인이 사료로도 쓰지 않는 썩은 조밥 한 덩이와 콩기름에 절인 콩장 두어 개가 전부였다. 군사 훈련과 더불어 하루 일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영농활동도 산비탈을 개간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다. 거기에다 겨울에는 허리까지 차는 눈을 헤치고 땔감을 마련하였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훈련에 열중했다.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이들에겐 여섯 가지 정신이 강조되었다. 불의不義의 반항정신, 임무의 희생정신, 체련에 필승정신, 간난艱難에 인내정신, 사물에 염결정신廉潔精神(청렴하고 결백한 마음), 건설에 창의정신 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주린 배를 움켜잡고 강한 정신으로 무장한 독립군으로 거듭났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편 배재형은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부인김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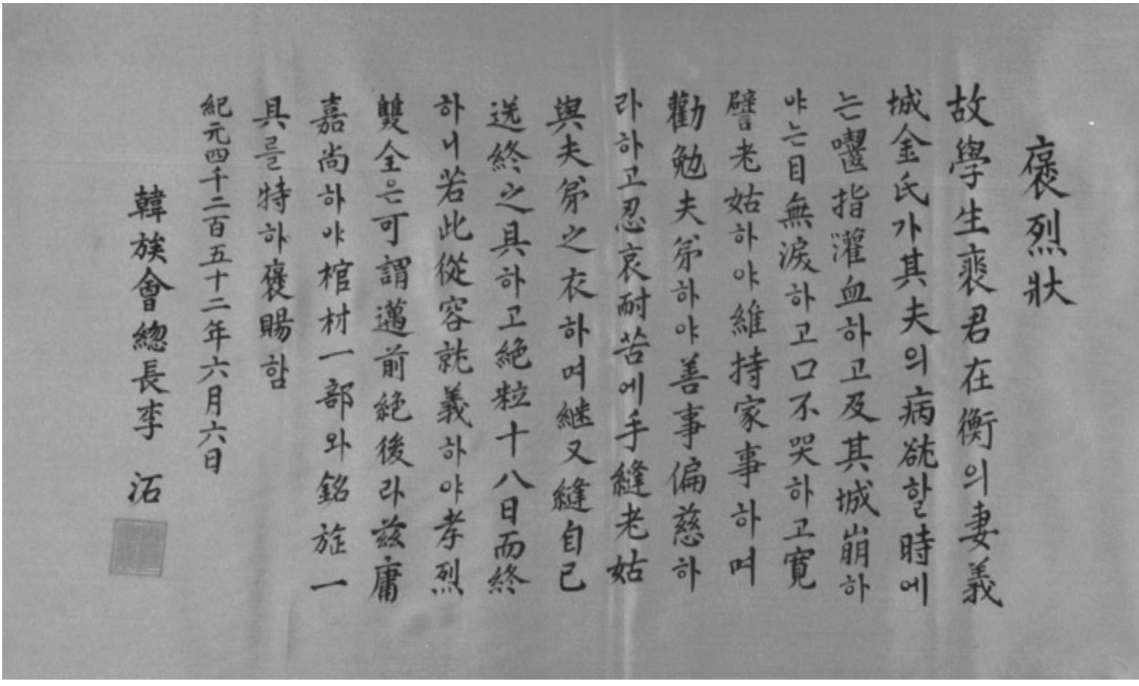
그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살림이 어려웠던 터라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만주에서 목숨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슬픔을 삭이며 장례를 치렀다. 장례가 끝나자 그녀는 시동생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연로한 시모와 시동생의 옷을 지었다. 이어 자신의 임종채비까지 마친 그녀는 음식을 끊었다. 그녀는 18일 단식 끝에 끝내 절명하였다.

김씨부인이 남편이 죽고 단식 · 절명하자 동포사회를 이끌던 자치단체 한족회는 1919년 6월 6일 포열장褒烈狀을 내렸다. 한족회는 목숨을 버려 의를 취하고, 효열孝烈을 온전히 갖추어 역사의 사표가 될 만하다 는 글귀로 그녀의 뜻을 기렸다.

「포열장」

故 학생 배군 在衡의 처 의성 김씨가 남편의 병이 심할 때에는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흘려주고,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울지도 곡하지도 않고, 노시모의 가르침을 받아 집안일을 유지하며 시동생을 권면하여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고 하고, 슬픔을 참고 고통을 이기며 노시모와 시동생의 옷을 손수 만들었다. 또 이어 자기의 임종채비를 하고, 18일간 음식을 끊어 죽었다. 이는 목숨을 버려 의를 취하고, 孝烈을 온전히 이룬 것이니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에 공로가 가상하여 棺材 일부와 銘旌 일구를 특히 포사함

1919년 6월 6일 한족회총장 이탁



褒烈狀

故學生裵君在衡의妻義城金氏가其夫의病危할時에 斷指灌血하고及其城崩하야는目無淚하고口不哭하고寬譬老姑하야維持家事하며勸勉夫弟하야善事偏慈하라하고忍哀耐苦에手縫老姑與夫弟之衣하며繼又縫自己送終之具하고絶粒十八日而終하니若此從容就義하야孝烈雙全은可謂邁前絶後라玆庸嘉尙하야棺材一部와銘旌一具를特하褒賜함

紀元四千二百五十二年六月六日

韓族會總長李 沾

포열장(독립기념관 소장)

김씨부인은 1912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다. 그러나 한족회가 추서한 「포열장」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을 것이다. 지금도 만주는 그 많은 여인들의 눈물과 아픔을 품고있다. 남성들이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투쟁하였다면, 여성들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여기 배재형의 아내 김씨부인은 그 마지막 길마저 함께하였다. 비록 독립운동유공자로 포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김씨부인을 기억할 이유는 충분하다.

풍산소작인회 집행위원 강경옥姜敬玉

강경옥姜敬玉(1850~1927)은 경북지역 여성사에서 보기 드문 인물이다. 그녀는 1920년대 풍산소작인회 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풍산소작인회는 1923년 안동에서 조직된 농민운동단체이다. 그녀는 당시 남성조차 하기 어려운 농민운동의 현장에서 당당히 불의에 맞선 70대 중반의 여류 투사였다.

1920년대 들어 민족운동계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우선 다양한 투쟁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여성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단체의 출현이었다. 1920년 한 해 동안 30여 개의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목적은 여성 스스로 여성을 계몽하고 단결을 다지는데 두었다. 이들 단체는 성격에 따라 애국운동단체 · 교육계몽단체 · 직업단체 · 노동단체 · 종교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교육계몽단체였다. 여성단체의 활동에는 신문과 잡지 등 언론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 ·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와 〈개벽〉 · 〈신여성〉 등의 잡지는 여성의식 향상과 교육계몽에 기여하였다.

안동지역 여성운동은 1925년 안동여성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1920년 창립된 안동부인회가 있었으나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다. 안동여성회는 안동유치원 보모 이기현李基賢 · 주금경朱錦卿 등의 발기로 1925년 11월 7일 안동유치원에서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 첫 사업으로 부인야학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부인야학과 여자야학은 예안과 풍산에서 이미 실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남성이 주도하였다. 안동여성회의 경우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안동여성회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산서원 철폐운동에 적극 나섰다.

안동여성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운동과 민족운동,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몽운동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안동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보수적인 안동 사회의 분위기가 한 몫 하였다. 게다가 신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안동의 청년단체가 당시 여성들의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여성들 자신이 개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경옥의 활동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 강경옥의 일생을 알려주는 자료는 1927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기사 4건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그녀의 생애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그녀는 1850년 무렵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장하여 17세(1867년 경)가 되던 해에



小作運動에 奮鬪한
姜敬玉女史永眠
七十七歲의高齡으로

〈동아일보〉 강경옥 관련기사

전씨와 혼인하였다. 시집 역시 살림이 어려웠으나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붓하게 지냈다. 그런데 31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 그녀는 외아들을 키우며 소작小作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비록 소작농이었으나 생활을 꾸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지주의 무리한 요구와 일제의 정책을 불합리하다고 여겼던 그녀는 풍산소작인회가 창립되자 여기에 가입하였다.

「소작운동에 분투한 姜敬玉女史 영면, 77세의 고령으로」
경북 안동군 풍산면시장에 본영을 둔 풍산소작인회에서 창립 이후 4,5 星霜을 시종이 여일하게 악전고투하든 여류투사 강경옥(77세) 여사는 數月 전부터 신음하든 노환으로 지난 17일 하오 7시에 영원의 불귀객이 되엿는데 여사는 본시 빈한한 가정에 生長하여 17세시에 전씨의 집으로 출가하여 구차한 살님이나마 부부 서로 자미롭게 지내던 중 31세시에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벌인 후로 다만 하나인 어린 아들을 다리고 근근이 생계를 도모하여 남의 소작이라도 자활은 넉넉히 되엿스나 항상 지주의 무리와 제도의 불합리한 것을 분개히 넉이든 바 1923년 봄에 방금 공산당 사건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 중에 잇는 李準泰 權五卨 외 제씨와 가치 풍산소작인회를 창립하여 주야를 불고하고 희생적으로 노력한 결과 7천여 회원의 견고한 결속으로 지금에 이르러는 전조선 유일의 관이 잇게 하엿스며 특별히 여사는 동회의 재정이 궁색함을 보고 자기의 소지품 指環 패물 등을 방매하여 회관 비품과 기타 경비를 보충한 일도 잇다한다. 팔십 노령의 여성으로

소작운동에 그와 가치 헌신한 이는 듬을다 하여 안동 각 단체에서는 여사의 葬式을 단체장으로 성대히 거행할 예정이라더라.

<동아일보> 1927년 9월 2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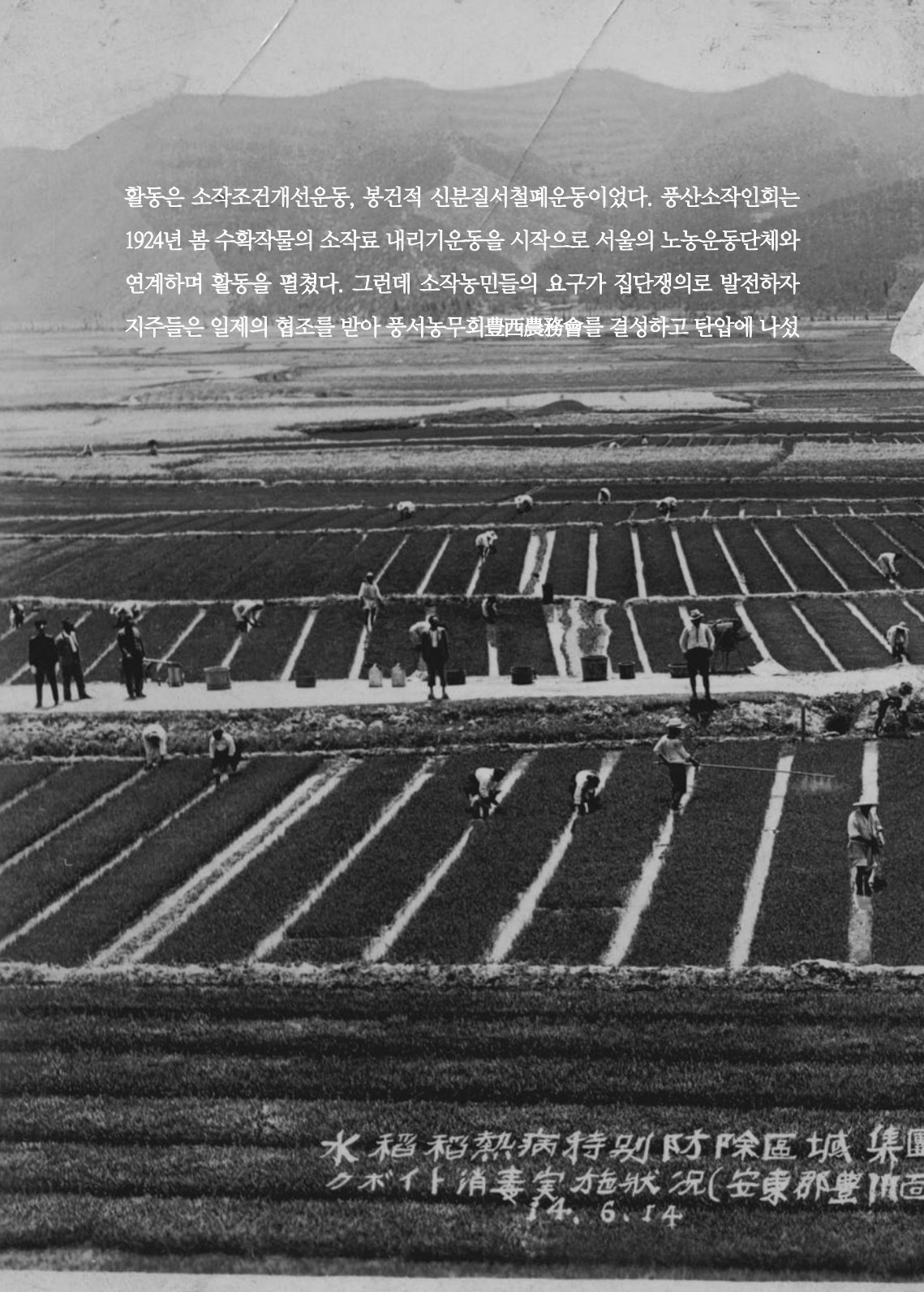
「경찰 간섭 하에 강여사의 장례 1일 오전에」

경북 안동군 풍산소작인회 집행위원 강경옥 여사의 장의는 예정과 갓치 지난 1일 오전 9시경에 풍산시장에서 개최하게 되엿는데 정렬定列전부터 모혀드는 會衆은 수천여 명에 달한 바 벌서부터 주목하고 잇든 안동경찰서에서는 고등계 이하 다수의 경관을 파견하야 몬저 각 단체로부터 온 조기를 압수한 후 영결식을 시장에서는 못하게 하고, 喪旗도 회관 前에는 通行을 금지하엿는 바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한다는 것이엇는데 이로 말미암아 故 여사의 유언도 그대로 실행치 못하게 되엿슴으로 수천 군중이 모인 회장은 울분한 공기가 창일漲溢한 가운데 喪輿를 수동 뒤 山에 운반하야 영결식을 맛치고 석양에 겨우 흣터젓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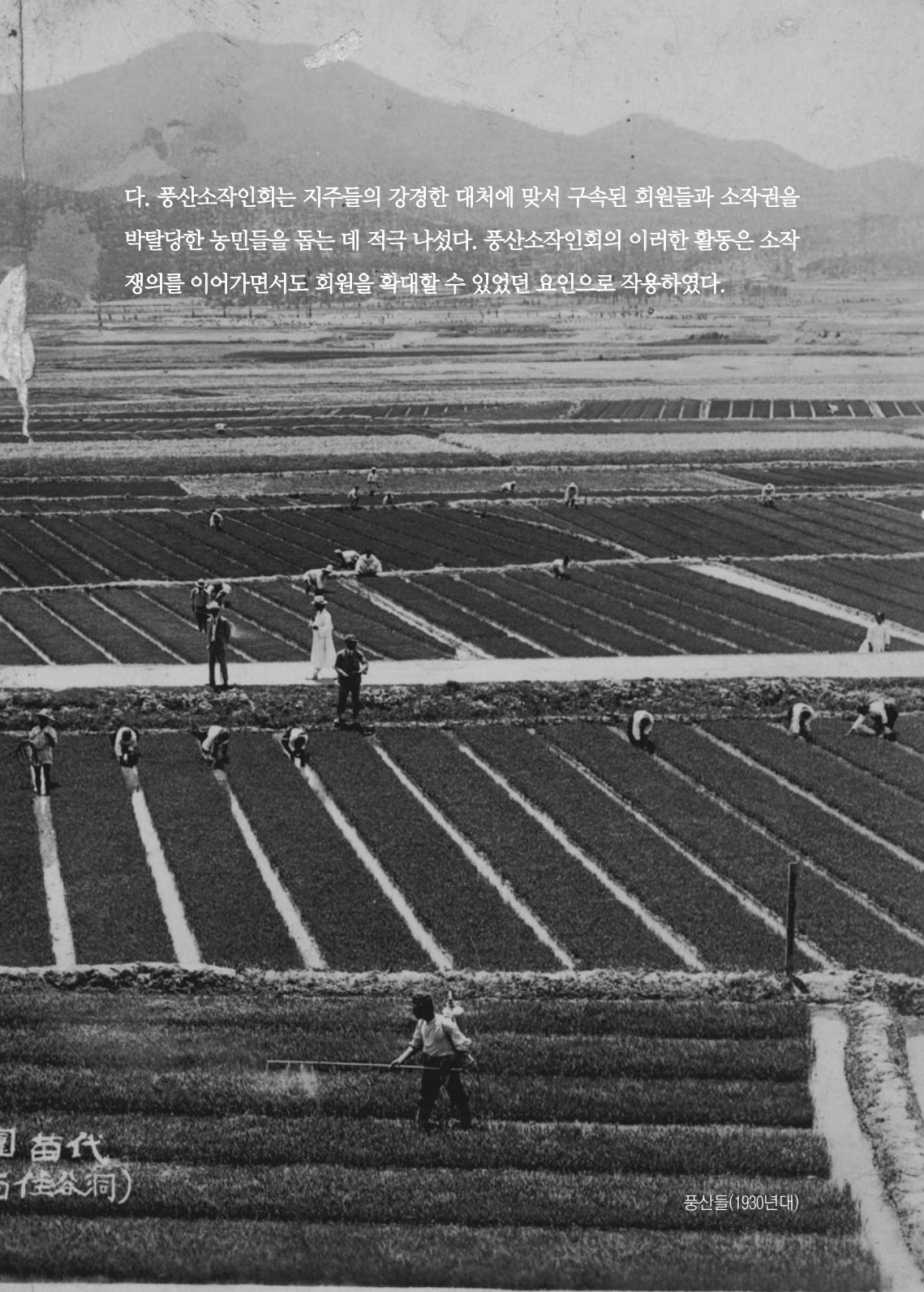
<동아일보> 1927년 10월 6일자

풍산소작인회는 1923년 11월 11일 이준태 · 권오설 · 김남수 등이 만든 단체이다. 설립목적은 소작인 및 준소작인의 상호부조와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삼았다. 결성 장소는 권오설이 꾸리고 있던 풍산학술강습회 사무실이었다. 출발당시 회원이 2백여 명이었으나 1년 만에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주요

활동은 소작조건개선운동, 봉건적 신분질서철폐운동이었다. 풍산소작인회는 1924년 봄 수확작물의 소작료 내리기운동을 시작으로 서울의 노농운동단체와 연계하며 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소작농민들의 요구가 집단쟁의로 발전하자 지주들은 일제의 협조를 받아 풍서농무회豊西農務會를 결성하고 탄압에 나섰



다. 풍산소작인회는 지주들의 강경한 대처에 맞서 구속된 회원들과 소작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을 돕는 데 적극 나섰다. 풍산소작인회의 이러한 활동은 소작쟁의를 이어가면서도 회원을 확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풍산들(1930년대)

그 결과 풍산지역뿐만 아니라 안동군내의 와룡 · 구담 · 괴정 등에 출장소를 두게 되었다. 1925년 들어 풍산소작인회 회관을 건립하고, 8월 28일 낙성식을 하였다.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강경옥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패물을 팔아 회관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경비에 보탰다.

1925년 11월에 이르러 풍산소작인회는 도산서원 철폐운동을 펼쳤다. 여기에 안동의 전 사회운동단체가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도산서원의 토지를 소작하는 농민들이 소작료 납부 날짜를 어겨 서원 측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었다. 안동의 사상단체 화성회火星會가 제일 먼저 이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고, 안동의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도산서원철폐를 주장했다. 여기에 안동여성회와 풍산소작인회가 적극 나섰다.

풍산소작인회는 1926년 12월, 3,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풍산시장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소작대장의 작성, 농사개량과 부업장려 기관의 설치, 농촌부인 및 농민노동자의 교양 교육, 소작료의 인하, 지주의 지세 납부 등이 결의되었다. 이어 1927년 8월 26일 신간회 안동지회가 만들어지자 풍산소작인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신간회는 민족 해방이라는 최우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 · 우가 합작하여 만든 단체였다. 1927년 2월 서울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뒤 각 지역에 지회가 만들어졌다. 신간회 안동지회의 창립되자 풍산소작인회 회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이 회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신간회 안동지회와 더불어 소작쟁의를 이어갔다.

풍산소작인회 창립 이후 오로지 농민운동에 분투했던 강경옥은 이 무렵 건강이 악화되었다. 노환으로 여러 달을 고생하던 강경옥은 1927년 9월 17일, 7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신간회 안동지회가 조직되고 채 한 달이 덜된 시점이



풍산시장

다. 그녀가 죽자 안동의 각 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쏟아졌다. 여성의 몸으로 농민운동에 헌신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에 안동의 각 단체는 그녀의 뜻을 기려 단체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였다. 예정대로 그녀의 영결식이 10월 1일 오전 9시경, 풍산시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녀를 기리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장례식에 참여한 인원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안동경찰서는 고등계형사를 비롯한 여러 경관을 파견하여 장례식을 막고 나섰다. 또 다른 투쟁을 불러올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경관들은 단체로부터 온 조기弔旗를 빼앗고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로 말미암아 영결식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녀의 유해가 실린 상여喪輿는 풍산 수동 뒷산으로 옮겨졌다.

70대 고령의 나이로 풍산소작인회에서 투쟁했던 그녀의 메아리가 남성중심의 전통사회에 끼친 영향은 컸다. 그녀가 가고 안동에서도 사회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여성들이 조금씩 나왔다. 현재 자료상으로 1928년 1월 신간회 안동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 참여한 여성 2명과 1929년 7월 안동청년동맹 제2차 정기대회에 참여한 여성 1명이 확인된다. 이어 1931년 조직된 안동콤그룹 에서 활약한 전금옥과 박금숙이 있다. 역사의 물줄기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강경옥은 바로 그 맹아萌芽였다.



권성의 친정 마을(닭실마을 전경)



전통과 근대의 표상
봉화의 여인들

지아비의 길을 따라
의부義婦의 길을 간 권성

권성權姓(1868~1920)은 1868년 음력 2월 2일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닭실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안동권씨 권양하權養夏이고, 어머니는 풍산김씨 김중태金重泰의 딸이다. 권성은 어린시절 소남小男으로 불렸다. 뒷날 제적등본에 권씨 부인이라는 뜻을 가진 권성 으로 적히는 바람에 권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권성이 태어난 닭실마을은 안동권씨 권벌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성마을이다. 그는 기묘사화(1519)로 세상이 어지럽자 봉화로 입향하였다. 닭실마을은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

온 마을이기도 하다. 1895년 을미의병 때는 권세연權世淵이 안동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이어 1919년 3·1독립선언 무렵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낸 의거에 권명섭權命燮·권상원權相元·권상위權相瑋 등이 참가하였다. 또 1920년 중국 손문과 오패부에게 보낼 제2의 독립청원서를 지은 권상익權相翊도 이곳 사람이다. 특히 권상익은 권성과 관련된 『열부권의인행록烈婦權宜人行錄』을 남겼다. 이 글은 그의 문집 『성재속집省齋續集』 권9에 실려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권성은 어려서부터 순진하며, 기교를 부리거나 모가 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겼으며, 항상 행동과 언어를 조심하여 삼가고 또 삼가는 사람이었다. 권성은 성장하여 17세가 되던 1885년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그녀보다 네 살이나 아래인 이명우李命羽(1872-1920)였다 남편의 본관은 진성, 자는 명보明甫, 호는 성재誠齋이다. 그는 퇴계 이황의 13대손인 이정호李廷鎬와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연李璉의 딸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권성은 맏며느리가 된 것이다. 그녀의 시댁은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이다.

부포마을은 본래 안동권씨安東權氏와 봉화금씨奉化琴氏가 터를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퇴계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진성이씨가 동성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마을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왔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국장일에 일어난 6·10만세를 선창했던 이선호가 바로 이 마을 출신이다. 또 여성독립운동가 이효정·이병희도 모두 이 마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포마을의 흔적은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물속으로 사라졌다. 부포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마을모습은 풍요로움과 넉넉함, 고즈넉한 풍광이 서린 곳이다. 그



권성의 시댁(예안 부포마을)

러나 지금의 부포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여느 조그마한 시골마을과 다를 바 없다. 이명우와 권성의 집도 옛 흔적을 많이 잃어버렸다.

권성이 살던 집은 독립운동가 백농 이동하의 집이었다. 그 뒤 권성의 가족이 떠나고 다시 이선호의 조부가 살게 되었다. 부포마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다 거쳐 간 집이다. 지금의 집은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을 피하기 위해 원래 있던 집 터 옆을 더 돋우어 옮겨 둔 것이다. 그나마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고 다른 주인이 살고 있다.

남편 이명우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한다. 부모님이 드시지 않으면 먼저 먹지 않았고, 편찮으면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가 벼슬길을 포기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도적떼가 아버지를 잡아간 일이 있었다. 그는 홀로 그 소굴로 찾아가 대신 매를 맞고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이야기다. 이명우는 보통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가학家學을 통해 유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4세에 권성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권성은 결혼 뒤 시부모님 모시기를 극진하게 하였다. 아울러 제사 지내는 일과 손님맞이에도 공경과 정성을 다하였다. 1894년에 이르러 남편 이명우가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진사가 되었다. 진사시에 합격한 뒤 부부가 문중 잔치에 초대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권성은 줄곧 법도 있고 조용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권성을 칭송했다고 한다.

과제급제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사마시에 합격한 바로 이듬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이를 애통하게 여기며 세월을 보내던 이명우는 1905년 을사늑약이 있자 문을 닫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1910년 끝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만도를 비롯한 척사유림의 자결순국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근심과 분노로 말미암아 건강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권성은 상황上皇은 아직 무양하시고 양친이 살아계시는데 병에 시달려서야 될 일입니까 라며 그를 만류하였다. 이명우는 당장이라도 순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내의 말처럼 아직 광무황제가 살아있고 부모님도 계시니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1912년 봄, 권성은 가족과 함께 속리산 아래 갈평리葛坪里(충북 보은군 마로면)로 이사하였다. 남편은 나라가 무너졌는데 의리를 지키지 못했으니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다. 그는 죄인된 몸으로 세속을 버리고 자정自靖하겠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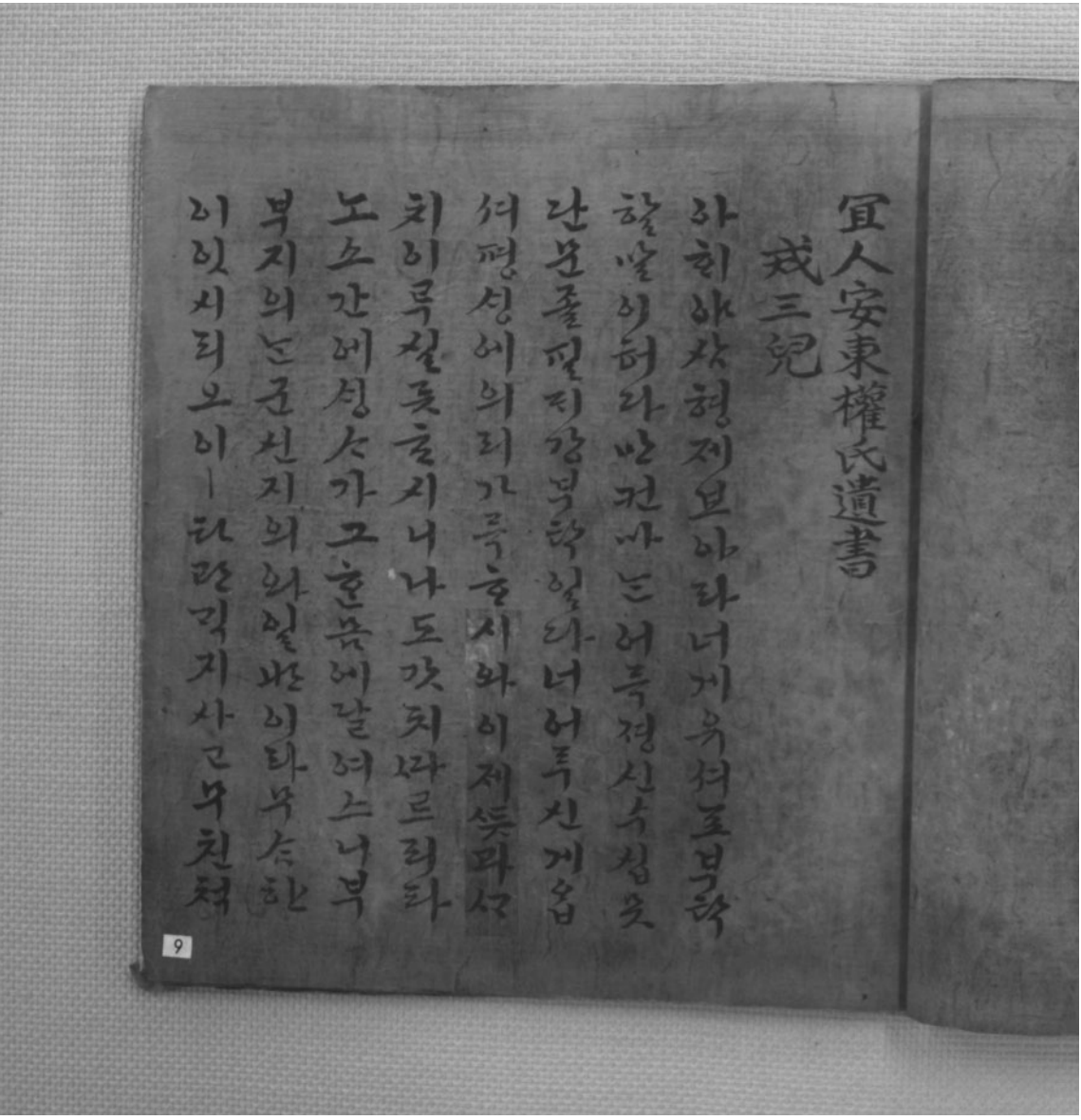
으로 고향을 떠났다. 옮겨간 지 3년 만인 1915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3년 상을 마친 뒤 가족은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 계룡산 아래 봉서리鳳棲里(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로 다시 옮겨갔다. 1918년 11월 5일(음 10. 2)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리고 두 달 보름 지난 1919년 1월 21일(음 1918. 12. 20), 광무황제가 승하하였다. 남편의 지난 결심을 부추기라도 하듯이 모든 일이 연이어 벌어졌던 것이다. 남편은 머리를 풀고 미음을 먹으며 상을 치렀다. 그러면서 아침저녁으로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망곡望哭하며 지냈다.

드디어 1920년 12월 20일(음력), 광무황제의 상기喪期가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남편 이명우는 자결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선비로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켜봐 왔던 권성도 남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하루 전인 12월 19일 저녁, 권성 부부는 자식들을 물리고 유서를 남겼다.

남편 이명우는 「비통사悲痛辭」와 「경고警告」·「유계遺戒」·「분사憤辭」를 남겼다. 이 가운데 「비통사」에는 죽음을 결심하기까지의 분통함과 비장함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망국과 부모의 부재를 슬퍼하며 불충과 불효를 한탄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10여 년 동안 분통함과 부끄러움을 참았으나 이제는 충의忠義의 길을 가겠다. 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그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권성은 「계삼아戒三兒」, 「기친가제寄親家弟」, 「상시숙부上媤叔父」, 「상시숙上媤叔」, 「두 며느리 보아라」로 시작되는 다섯 통의 한글유서를 남겼다. 세 아들과 친정동생, 시숙부와 시숙, 그리고 며느리에게 주는 유서이다.

아들 삼형제에게 주는 글에는 충의의 길 을 가는 남편을 따르겠다는 간곡함이 담겨있다. 임금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듯이 부부사이에도 의리가 있으니


宜人安東權氏遺書
戒三兒
아희아삼형제보아라너게유서로부탁
할말이허라만건마는어늑정신수습못
단분졸필지강밀락일라너어늑신게옵
셔평생에의리가륵호시와이제슺파서
치이룩실듯호시나도갓치따르리라
노쇼간에성스가그훈육에갈여스니부
부지의는군신지의와일반이타무슨한
이잇시리오이-라란각지사근무친쳑
9

권성의 유서 「계삼아戒三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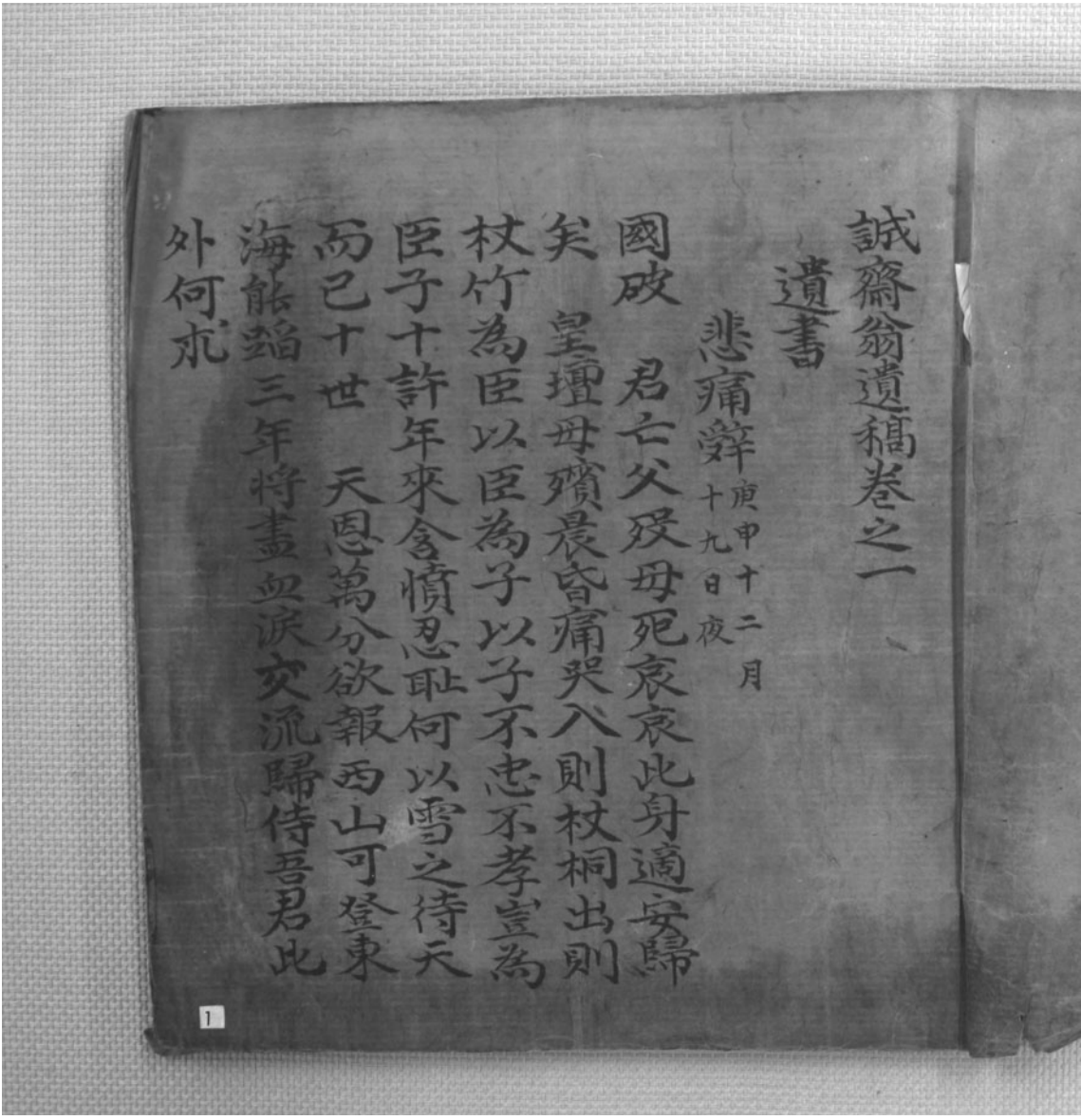
자신은 의부義婦의 길 을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성은 대의를 따르면서도 어머니의 마음 을 놓을 수 없었다. 자식이 가는 길이 바른 길 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봉제사 접빈객을 비롯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염려가 되는 여성의 마음! 이런 마음의 언저리에서 권성은 차마 붓을 놓기 어려웠다. 그녀는 이 액운과 불운을 다 보내고, 좋은 바람 다시 불어 태평세상 되거든 부귀영화 되길 한없이 축원한다. 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유서를 맺었다. 비장하고 서러운 희망이었다.

「계삼아 戒三兒」(세 아들에게 경계하는 말)

아이들아 삼형제 보아라. 너희에게 유서로 부탁할 말이 많다고 하지마는 정신이 어두워 수습하지 못하고, 짧은 글로 대강 부탁한다. 너의 어르신께서(아버님) 평생에 의리가 많으셔서 이제 뜻과 같이 이루실 듯하시니 나도 같이 따르려고 한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 간에 살고 죽음이 그 한 몸에 달렸으니 부부의 의리는 군신의 의리와 같으니 무슨 한이 있겠느냐. 이 타향객지 사방을 돌아다보아야 돌봐줄 친척이란 하나도 없는 외로운 처지를 누가 살뜰한 것이 없고 아득 막막할 듯하여도 남편(네 아버지) 인심 후덕하면 자연 공이 있게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집안의 규범 화평하게 하고 매일 조심하여 시각을 잊지 말고 정신 차려 살아갈 도리를 생각하고 부디 간수 잘하여 조금도 서러워하지 말고 동섭 삼 숙질 못 잊히나 형들이 데면데면하겠느냐? 부모님이 계실 때보다 조금도 다르지 않게 거

두어라. 남자 형제들은 잘 가르쳐 영남으로 정혼하고 손자를 보지 못한 한이 되지마는 설마 얼마 있지 않아 있을 터이고 너의 아내가 아직 부족하니 교훈하여 가르치거라. 네가 살림살이의 주인이니 아침저녁으로 먹던 것이라도 매일 때마다 가르쳐서 보고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 하나도 뜯기지 말고 다식판, 번철은 더욱 각별히 간수하여라. 모든 일이 출중하여 잘 하면 그게 좋지 않겠느냐? 매일 조심하고 봉제사와 접빈객은 집안의 대사이니 있는 대로 잘 받들고 매일 조심하면 군자와 요조숙녀 될 것이다. 그 좋지 않겠느냐? 동희야. 또 한 말 들어 보아라. 이 액운과 불운을 몇 해 사이에 다 보내고 좋은 바람 다시 불어 태평세상 되거든 자손들의 여러 가지 일들, 부귀영화 되길 한없이 축원한다. 할 말이야 여산여해라도 부족하지만 할 말을 이만 줄인다. 글씨가 고약하고 글씨를 쓰지 못한다. 생각하여 보아라.

며느리에게 주는 유서는 너희들과 재미나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너의 시아버지께서 충성과 절의를 지키셔서 목숨을 다하시니 내 어찌 쫓지 않겠느냐? 남편은 여자에게 하늘이요, 여자는 남편에게 매인 몸이라. 인륜대의에 작은 사정을 다 생각하지 못한다 는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며느리에게 집안을 잘 꾸려달라는 간절한 당부를 담았다. 막내아들에 대한 걱정도 함께 썼다. 또 어렵더라도 참고 도와가며 살아가라고 당부하며, 재물은 마치 뜬 구름 같은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거듭 일렀다. 권성은 며느리에게 지아비를 어찌 섬겨야 하는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다. 권성 자신이


誠齋翁遺稿卷之一

遺書

悲痛辭 庚申十二月十九日夜

國破 君亡父歿母死哀哀此身適安歸矣 皇壇毋殯晨昏痛哭入則杖桐出則杖竹為臣以臣為子以子不忠不孝豈為臣子十許年來含憤忍恥何以雪之待天而已十世 天恩萬分欲報西山可登東海能蹈三年將盡血淚交流歸侍吾君此外何求

1

이명우의 「비통사」

몸소 보여주었으니 긴말은 필요치 않았으리라!

시숙에게 올리는 글에는 또 한 번 자식들을 염려하며, 부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다. 친가의 형제들에게 보낸 글에는 당당하게 의부義婦로서의 길을 선택한 자신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날 아버지의 가르침이 여필종부라 한 뜻은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장차 순국하고자 하니, 생각건대 혼자 남는 것이 의리에 맞지 않아 같이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짧은 편지로 영원히 이별하고자 하니 비탄한 마음 감히 토해낼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각각 유서를 남긴 이명우와 권성은 독을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식들이 가서 보니 이미 순절한 상태였고, 부부의 머리맡에는 약 사발이 놓여있었다. 이명우가 가는 길이 충의忠義의 길 이었다면, 부인 권성의 길은 충의忠義를 받든 지아비에 대한 의부義婦의 길 이었다. 이명우와 권성의 자결은 많은 의의를 가진다. 나라를 잃고 부부가 함께 자결순국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이다. 또한 한글 유서를 남긴 사례 또한 흔하지 않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까지 이명우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들이 안동 출신이라는 것과 부부가 함께 독을 마시고 자결순국했다는 것 정도였다. 이마저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힘주어 말할 수 없었다. 특히 부인은 성姓 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1월 이명우 부부의 유서가 들어있는 『성재옹유고誠齋翁遺稿』가 공개되었다. 후손이 묻어둔 자료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독립유공자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어 이듬해 2010년 이명우는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권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듭을 짓



이명우, 권성 부부의 묘소

지 못하고 논의 중에 있다.

우리는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많은 기억을 쏟아낸다. 그 기억 가운데 권성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참 사람의 길, 참 관계 맺음에 답을 주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가치와 진정성이 담긴 관계 맺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유학이 펼치고자 했던 사람다움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에 충실했던 권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자 가치이다.



이효정

문학을 꿈꾸던 노동운동가 이효정

이효정李孝貞(1913.7.28~2010.8.14)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신교육을 받고 노동운동가로 일제에 저항했던 여성이다. 1933년 조직된 사회주의운동 단체 경성 트로이카 의 구성원이기도 하였다. 항일운동을 펼치며 혹독한 고초를 겪은 이효정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져 왔다. 그러다 2006년에 와서 항일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게 되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녀는 1913년 봉화 춘양의 외가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병룡李丙龍, 어머니는 안동권씨 권병하權柄夏의 딸이다. 증조부 이규락李圭洛과 조부 이동걸李東杰, 종조부 이동하李東廈와 이경식李京植, 숙부 이병기李丙驥, 또 고모 이병희李丙禧 등이 모두 독립운동을 하였다. 2009년 3·1절 기념 다큐멘터리에서 왜 독립운동을 했냐는 프로듀서의 질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는 그녀의 대답에서 당시 집안분위기를 쉽게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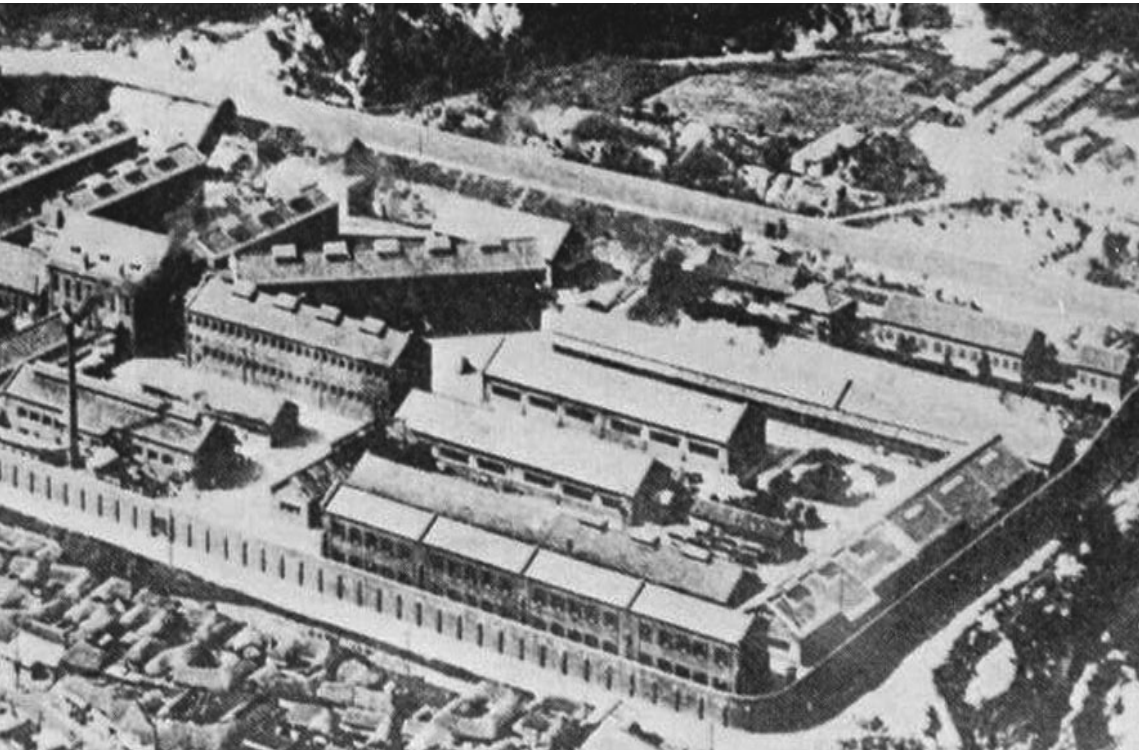
이효정은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뒷날 이효정은 이때가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동덕여고 재학시절 그녀의 꿈은 문학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소녀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2학년에 재학하던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많은 학생들이 매일 체포되었고, 신문에는 이들의 기사가 넘쳐났다. 이효정은 그 신문기사를 보며 많이 울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만세를 불러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였다.



그녀는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시설 백지동맹 투쟁을 벌였다. 백지동맹은 시험지에 답을 쓰지 않고, 백지로 낸 투쟁이었다. 말하자면 시험 거부 투쟁이었다. 이효정은 광주학생항일운동 1주년을 맞아 친구들과 백지동맹을 주도해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이때 전교 1등을 하던 박진홍은 퇴학을 당하고 만다. 17살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어떠했을까?

결국 문학을 꿈꾸었던 여고생은 졸업 후에 노동운동가로 변신하였다. 이효정은 졸업 후에 울산에서 잠시 교사로 있었지만 동덕여고 시절의 경력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학교를 나오게 되었다. 그 뒤 서울로 올라가 사회주의단체 경성 트로이카 에 가입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경성트로이카는 이재유 등이 주도하여 만든 단체로 반제국주의 투쟁, 학생운동, 노동조합운동을 주로 펼쳤다. 이효정의 종고모였던 이병희 역시 이 단체에서 활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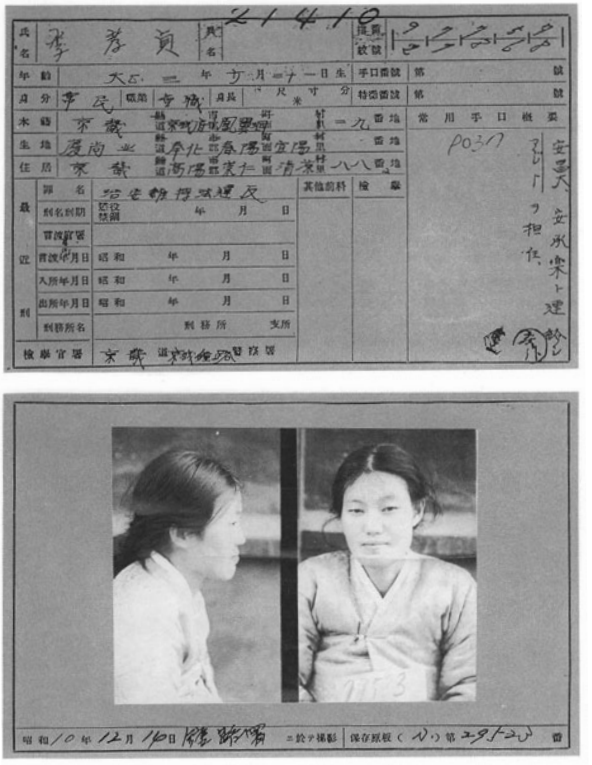
이어 이효정은 1933년 9월 종연방적 경성제사공장 여성 직공파업을 주도하였다. 이는 여공 500여 명이 임금문제로 총파업에 돌입한 사건이었다. 당시 여직공들은 장시간 노동에 비해 임금이 적었다. 여공들의 권익을 위해 일본자본



1934년 서대문형무소 전경

가에 대항하던 이효정은 결국 동대문경찰서 형사에게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 뒤에도 노동운동을 이어가던 이효정은 1935년 11월, 결국 경찰에 검거되어 약 13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이효정은 이때를 회상하며 물고문이 가장 끔찍했다고 술회하였다.

출옥 후 이효정은 사회주의운동가인 박두복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시댁 울산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9년 뒤 그녀가 원하던 해방이



이효정李孝貞 신원카드

찾아오지만, 6·25전쟁과 남편의 월북은 그녀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늘 감시를 받아야했고 여러 차례 취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보니 그늘로 숨어들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복했던 일은 칠십에서 여든 사이에 여고시절의 꿈이었던 시집을 낸 것이었다. 바로 『회상』(1989년)과 『여든을 살면서』(1995년)라는 시집이다. 그 가운데 「꽃을 보는 마음으로」라는 시 한편을 소개한다.

「꽃을 보는 마음으로」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가다가 길이 막혀도
기다림에 목줄이 타버려도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웃는 내 모습 외면당해도
힘껏 외침에 메아리 없어도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2006년에 와서 그녀의 항일투쟁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독립운동유공자로 포상을 받게 되었다. 이 때 이효정은 동지들은 다 가고 없는데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받느냐 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 중 최고령자였던 이효정은 2010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97세의 일기를 마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안타까워했고 그 뜻을 기리는 조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09년 3 · 1절 다큐에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했다 는 그녀의 말은 그녀의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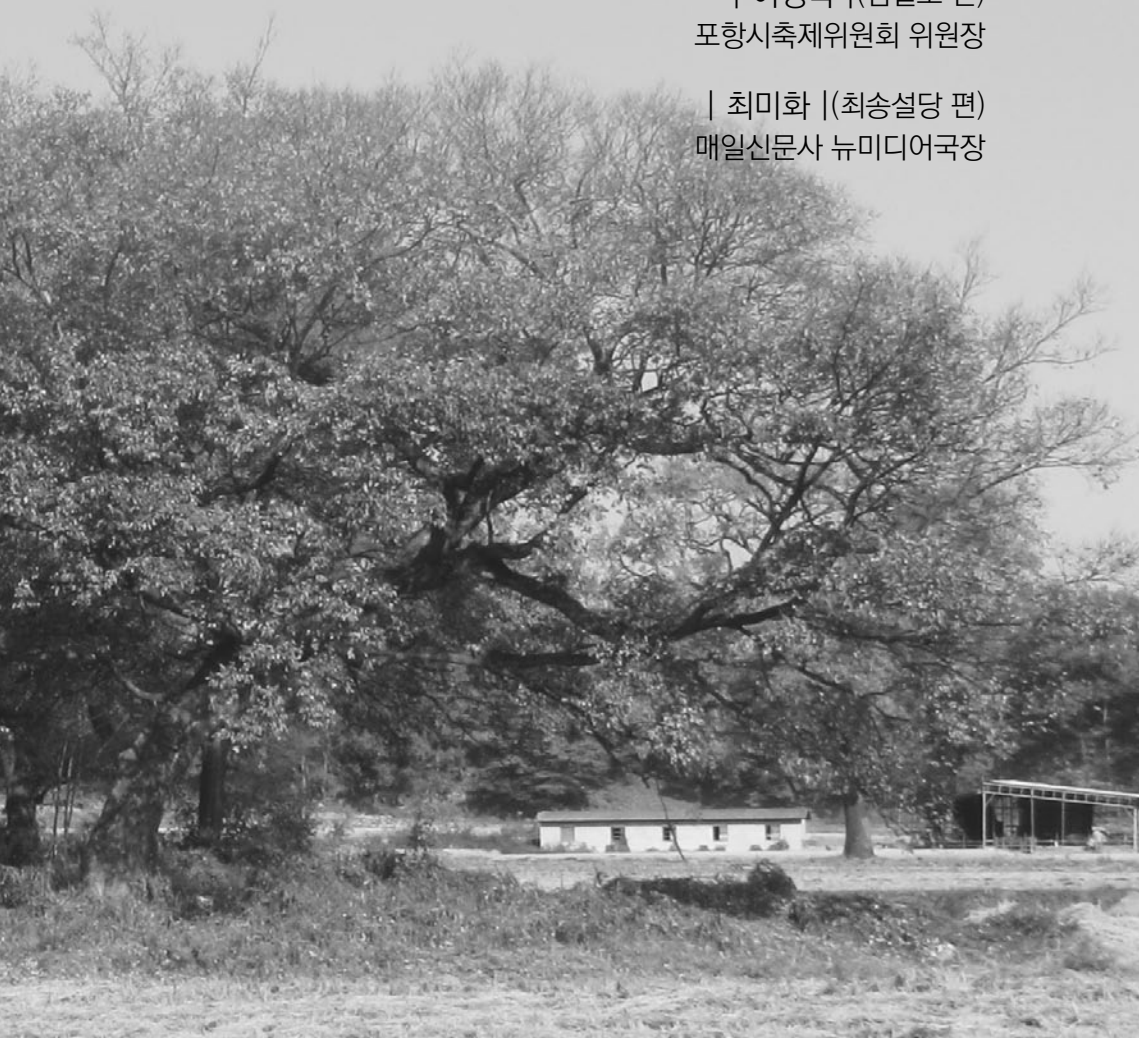


제4장

여성, 새로운 길을 밝히다

| 이정옥 |(김설보 편)
포항시축제위원회 위원장

| 최미화 |(최송설당 편)
매일신문사 뉴미디어국장





여인의 숲 송덕비



생명을 구한 숲의 여인 김설보

상습홍수 막으려는 여인의 고귀한 뜻

여인의 숲 은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329-1번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마을숲이자 인공으로 만든 숲이다. 이 숲은 조선시대 말 역촌驛村에서 주막을 경영하던 김설보金薛甫(1841.12.30~1900.1.18)라는 여인이 조성했다.

김설보가 살았던 하송리는 마치 배의 형국처럼 생겨, 바다가 훤히 보이면 마을의 기운이 바다로 흘러 쇠퇴한다는 풍수설이 있었다. 이에 해문海門을 막고 동편의 샛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토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아로부터 땅을 매입하여 숲을 조성한 후 마을에 기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인의 숲 이란 명칭은 김설보 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후세들이 작명한 것이다.



여기 한 여인이 숲 사랑의 씨를 뿌려 전설 같은 향토사랑의 미담으로 피어나게 하였더라 이 숲 있으매 뭇 생명들 수마에서 건져지고 이 숲 무성하매 이 고을 또한 흥왕하였으니 여인의 고운 손이 이렇게 고귀한 얼을 일구어 후세를 가르치는도다 그 뜻 기리며 뒤쫓아 가려는 의지를 함께 이 비에 새겨두노라

◀ 여인의 숲 송덕비 측면글 1

여인의 숲 송덕비 측면글 2 ▶

이 비는 숲의 소중함을 일찍 깨우쳐 향토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여 마을의 뭇 생명들로 하여금 수마에서 살아남게 한 한 여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숲사랑의 실천적 상징비로 후세에 길이 남겨 교훈이 되게 하려는 뜻으로 포항시가 노거수회의 뜻을 받아들여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사삼육 단오 포항시장 정장식

주인공 김설보 여사의 본은 청풍이요 부사과를 지낸 유기섭공의 처로서 하송리마을이 역촌으로 번창하던 시절에 큰 객점을 경영하여 자수성가한 분이다 거액을 쾌척하여 이 숲 부지를 매입하고 식생이 숲-일명 외연숲을 일구어 마을에 기증하였다 전한다


사삼십육관오포형상정하식
받모교상기끼로실깨이비
사이비면한역하처는숲의
을여가되로서여금여항토의수중의힘을일찌
한노기하세상의마을사숭에의당
수려에당숭고것웃성의정신일찌
회는뜻의실의굳한뜻생아명심을
뜻으로적을금
에외하천가객로지은주
기욕그하한첨번하번청인공
숲여분을창송요풍공
하을식이이형하리기이리
었을생숲다허된마식요실
다구이부하시을공보
천어숲시기여철이이부여
한,를액차에역치사사
다마일애른수촌로과의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여인의 숲 송덕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이 비는 합장한 두 손 사이에 낀 도토리를 감싼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숲의 무궁한 생명력과 번창을 기원하는 뜻을 품고 있다 한다.

여인의 숲 . 색다른 이름만큼 이 숲이 만들어진 연유 또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사연을 담고 있다. 조선 말기, 송라역을 관할하는 찰방이 주재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송라면 하송리에는 봉수대가 있는 역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파발이 들고나는 분주한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 역촌마을에서 주막을 경영한 여성이 바로 여인의 숲 의 주인공이다. 그녀의 이름은 김설보金薛甫 . 교통의 중심지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주막을 드나들었다. 덕분에 그녀는 꽤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해마다 마을엔 큰 홍수가 났다. 마을 북서쪽 호룡골의 저수지가 무너지고 작은 시내들은 모두 범람했다. 다 된 벼농사는 추수도 되기 전에 뿌리째 뽑혀 무더기 무더기 떠내려갔다.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싯누런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대며 잠겼다 떠올랐다. 하늘을 원망할 뿐 그 누구도 손쓸 엄두도 재간도 없었을 때였다.

김설보는 돈을 벌 줄도 알았고 멋지게 쓸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다. 손 큰 여인이었다. 해마다 홍수 피해로 망연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고자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빌렸다. 나무가, 숲이 마을을 홍수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지혜를 얻었다. 돈은 있었다. 무엇이 문제겠는가. 김설보는 거금을 들여 땅을 사고 느티나무, 쉬나무, 이팝나무를 심었다. 수구막이 숲을 만들어 마을에 희사했다.

1892년 그해 마을사람들은 이 숲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송덕비를 세워 김설보



여성이 조성한 숲으로 유일무이한 여인의 숲이 100여년만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03년 여인의 숲 기념비 제막식



의 크고 높고 깊은 뜻을 기렸다.

> 재물을 희사하여 임넌(1892년)에 조성한 우리 숲을 백대로 송덕하노니
> 보기 드문 그 분이 거의 사라질 것을 다시 새롭게 하였으매 옥돌을 캐어
> 다 여기에 새겨두노라

비록 남편 윤기석의 처 김설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초라한 비석일지언정 마을사람들은 영원히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다.

이렇듯 한 여인의 고귀한 뜻에 의해 조성된 숲으로 수많은 후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거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며, 김설보의 남편 윤기석은 고승 대덕의 영정만이 안치되던 보경사 원진각에 영정이 봉안될 정도로 예우를 받았다. 또는 무과에 급제해 부사과(지금의 육군 소위 계급에 해당) 벼슬을 지내기도 했었다는 기록도 남기고 있다.

처음 이 송덕비는 현재 영일만 김치공장 인근 구 7번국도 변에 세워졌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주 비석을 훼손했다. 이후로 윤씨 문중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후손들이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부숴져 떨어진 비석의 윗부분은 시멘트로 붙여 세웠다. 지금은 숲 외진 곳에 글씨조차 희미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숲의 수난사, 그리고 숲을 일구다

이 숲은 일제시대에 들어 큰 수난을 당하게 된다. 일제의 만행은 숲의 나무까지 베었다. 총대와 개머리판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느티나무를 모두 베어간

것이다. 그 이후 상수리나무 위주로 다시 만든 숲은 온전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단오절이면 이 숲에서 그네뛰기도 하고 씨름판도 벌였다. 어른을 따라온 아이들이 길을 잃을 정도로 숲은 울창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당시 군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20여 채의 주택과 논이 파고들어 큰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이제 3ha 남짓 남아 있다. 현재 이 숲 가까이에는 몇 채의 집이 있다. 숲을 끼고 있어 더없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산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김 여인의 노여움을 산 것일까.

이와 같은 숲의 수난이 있었기에 숲의 가치를 되새기며 김 여인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기리고 숲 사랑의 메카로 삼자는 움직임이 태동되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제안은 곧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003년 6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축하 속에 여인의 숲 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식생이수 가 여인의 숲 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이를 기념하는 송덕비도 새로 세워졌다. 그 이후로는 도토리를 따겠다고 나무에 돌팔매질하거나 총질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고도 했다. 여인의 숲 으로의 부활의 의미와 성과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들린다.

이 사업에 산파역을 한 사람은 노거수회 회장이며 인근에 기청산수목원을 경영하는 이삼우李森友 원장이다. 여인의 숲 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비 건립을 주도하였으며 김 여인의 공덕을 기리고 뜻을 이어 발전시켜 갈 것을 다짐하는 헌시를 지어 비에 새겼다.

여인의 숲은 상수리나무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전의 주인인 느티나무도 수난의 과정에서 요행히 살아남은 것이 10여 그루 섞여 자란다. 이 외에도 쉬나무, 말채

나무, 느릅나무와 같은 활엽수들과 소나무 20여 그루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숲 안을 돌아보면 외과치료를 한 나무도 더러 눈에 띄며 느티나무, 이팝나무, 쉬나무 등 후계목들이 심은 지 얼마되지 않은 듯 지주에 받쳐져 숲 언저리에서 자란다. 이렇게 국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숲을 지키고 가꾸며 나무를 심고 있음이 다행스럽기만 하다.

생명의 숲에 은덕 받은 마을들

상송, 중송, 하송을 합친 마을 삼송리는 조선조 초기 건너편 언덕 너머에 찰방이 들어서고 이 일원에는 역촌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히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생긴 마을이라 전한다. 원래는 현 마을의 북쪽 언덕 일원에 소규모의 부락이 있어 만성이라 불려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곳에 송라역(일명 만성역)이 있었다고 하며, 조선 태조 때 종9품직인 역승을 두어 주위의 6개 역 즉, 흥해



의 망창역, 연일의 대송역, 장기의 봉산역, 기계의 인비역, 청하의 송라역, 신광의 육역을 관장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460년(세조 6년), 이르러 영해, 영덕, 청하, 흥해, 영일, 장기, 경주, 울산 등 경상도 인근 8읍에 소재하는 14개 역을 송라도松羅道라 칭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할하는 송라도찰방松羅道察訪을 현 청하면 덕천리(관동館洞)에 설치하여 종6품이 관할하게 하였다.

그 후 세조 8년에 13개 역을 관할하는 역승도로 격하되었지만 중종 30년(1535년)에는 찰방(종6품)이 다스리는 송라도로 다시 격상시켜 경상도의 6개의 길 중 하나가 될 만큼 군사적 요충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다.

덕천리에 설치된 송라도 찰방은 내역內驛이라 하였다. 그리고 삼송리에는 송라도찰방의 직속역이 있었다. 찰방의 바깥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흔히들 외역外驛이라 불렀다. 이 외역에 관리와 역노비 도합 72인이 배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김설보가 기증한 숲을 외역숲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삼송리 중 한 곳인 하송리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바닷바람인 샛바람의 피해를 줄이고 바다로 새어 가는 마을의 기운을 막는 해문海門의 역할을 가진 인공숲이 된 것이다.

이 숲의 나무들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 대홍수가 들이닥쳤다. 안청계리의 호룡골 저수지도 붕괴되었다. 마을 앞 하천이 범람하였다. 볏단이며 가구며 가축들은 물론 사람까지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이 숲에 걸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숲에 또 하나의 별칭을 붙인다. 사람을 살린 숲(식생이수食生而藪)이라 불린 것은 이때부터다. 또한 김설보의 고마움이 다시 세간의 칭송을 받게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할 여인의 숲

여인의 숲은 현재 이 마을 주민은 물론 45세 이상 된 청하, 송라지역 주민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정신적 고향과 같은 향수어린 터전이다. 포항시민의 휴양처로서 혹은 자연자원의 보존과 도시경관조성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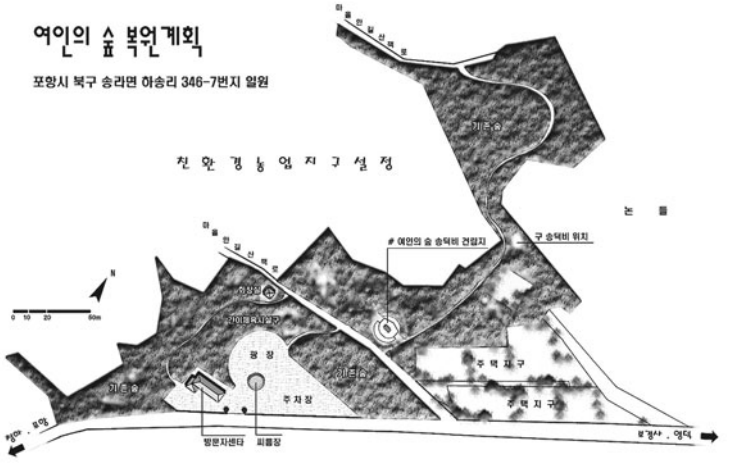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계획적인 개발로 점차 숲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현재 포항시에는 환호 해맞이공원과 호미곶 해맞이공원 등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여인의 숲도 복원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 송덕비가 새로 세워졌다. 그러나 이 숲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충분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공원들은 포항시 50만 인구에 비해 흡족하지도 않은 실정이다.

김설보가 조성한 여인의 숲은 여성이 조성한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인의 숲은 여성사 뿐 아니라 숲 조성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인의 숲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여성이 조성한 숲이라는 특이함을 동시에 지닌 역사적인 공간이다. 이 여인의 숲이 100여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 막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여성의 갸륵한 정성으로 기부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무들을 가꾸고, 더 큰 숲공원을 만들어 포항시의 명소로 조성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진다.





최송설당

한국육영사업의 어머니 최송설당

가문과 민족 지킨 여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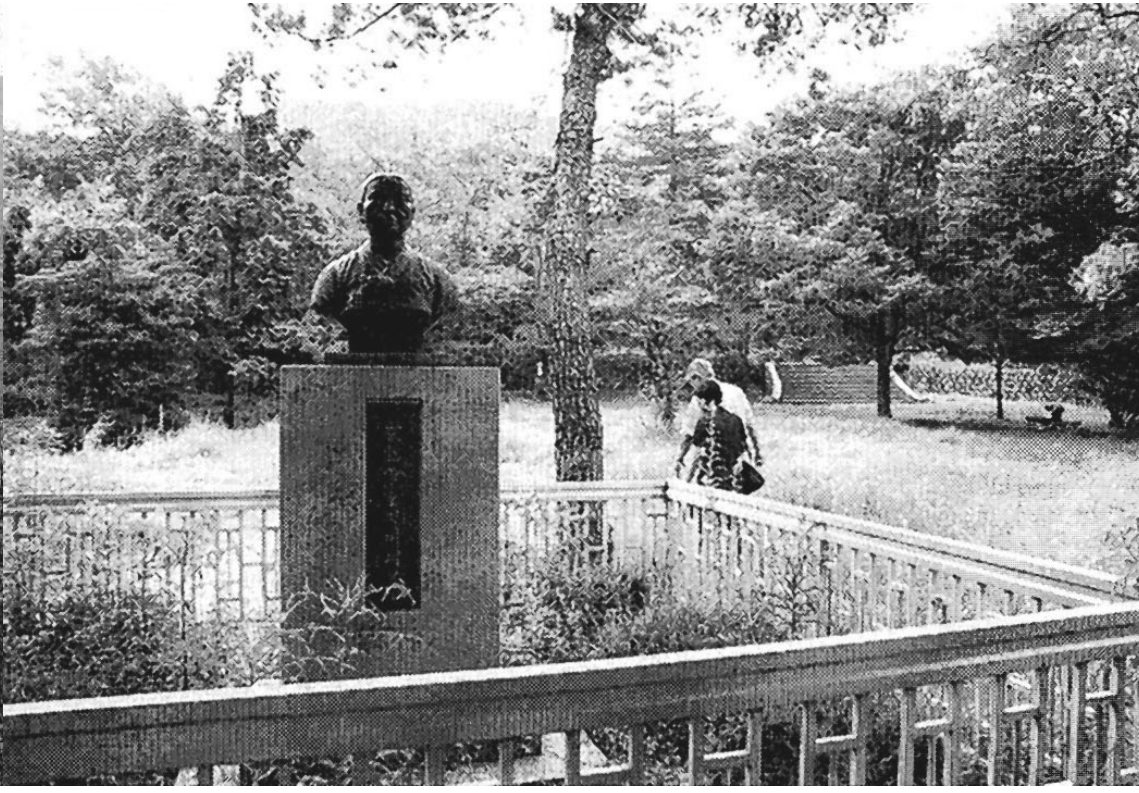
최송설당崔松雪堂(1855.8.29~1939.6.16)은 딸의 한계를 뛰어넘어 몰락가문의 1백년 억울함을 풀어주고, 여성의 굴레를 벗어나서 민족의 앞날을 짊어질 인재들을 길러 낼 교육기관을 설립한 한국육영사업의 어머니이다. 호적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딸이 멸문 집안의 명예를 90년만에 되찾고, 백척간두에 선 한 민족의 5천년 역사를 다시 일으켜세울 힘을 김천고등보통학교, 현 김천고 설립으로 길러낸 민족의 은인이다.

자립형 사립고로 제2도약기를 맞고 있는 경북 김천고등학교가 바로 1931년에 최송설당이 세운 김천고등보통학교이다. 이름없이 고종이 내려준 당호 송설당松雪堂만 남아 있는 화순최씨 집안의 송설당은 조선의 마지막 왕세자 영친왕의 보모였다. 그 보모가 역경을 딛고 모은 전 재산을 희사하여 교육기관

교정을 내려다보며 영면중인 최송설당 묘소



송정 뒷모습



최송설당여사의 첫동상은 일제강점기에 공출됐고 교정뒤편에 새로 세워진 흉상

을 설립한 것이다. 지위나 벼슬이 있는 남자도 아니었고, 선교에 목적을 둔 외국 종교단체도 아니었다. 일개 조선의 보모가 평생 깨끗하게 모아서 민족정신을 이어갈 학교를 세운 것이다. 자신이 세운 김천고보 뒷동산에 누워있는 최송설당은 말없이 영원무궁토록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을 학생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최송설당은 1855년 8월 29일 김산군 군내면 문산리(현 김천시 문당동)에서 아버지 최창환과 어머니 경주정씨 사이에서 무남삼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배지 전라도 고부에서 선대 고향이던 경북 김천으로 옮겨온 지 5년만의 일이었다. 최송설당의 집안은 원래 경북 김천에 살던 양반가였다. 송설당의 선대가 평안도에서 벼슬을 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 평안도로 갔다가, 홍경래 난에 연루되는 바람에 전라도 고부로 유배를 갔고 다시 아버지가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송설당의 11대조는 남명 조식의 수제자인 수우당 최영경, 6대조는 예조좌랑을 지낸 최세호, 고조부는 함흥중군을 지낸 최천성, 증조부인 최봉관은 부호군을 지낼 정도로 뼈대있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증조부 최봉관이 홍경래난에 연루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홍경래난이 터지던 1811년 증조부는 평안도 부호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부호관은 당연히 난을 진압해야 한다. 그런데 최봉관의 외가 강릉유씨가 난군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최봉관 자신도 평안도 선천군이 함락될 때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가 체포되어 옥사했다. 최봉관의 맏아들인 최상문(송설당 할아버지)을 비롯한 네 아들은 전라도 고부로 유배되었다. 이름난 집안이 하루아침에 멸문의 위기에 처했다. 유배지 고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아버지를 여읜 최창환은 고향이 그리워 김천으로 돌아왔다. 하



김현철 작 최송설당 초상화

지만 누구하나 반길 이 없는 최창환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였다. 고향으로 돌아온지 5년만에 장녀 송설당을 낳았다. 훗날 최송설당이 고부 할매 라고 불린 연유도 여기서 비롯됐다.

최창환은 첫 아내 사별 이후 다시 만난 아내 정씨와의 사이에서 맏이 송설당을 낳고, 그 뒤로도 두 명의 딸을 더 낳았다. 멸문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최송설당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서당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한학과 한글을 배웠다. 집안 신원의 소망을 품은 채 고향에서 서당 훈장 생활을 하던 최창환은 맏딸 송설당을 마음먹고 가르쳤다. 큰 벼슬없이 지식인 그룹에 들었던 세 딸의 아버지 최창환은 특히 맏이 송설당을 총애하여 어려서부터 글을 제대로 가르쳤다. 송설당이 남긴 유언이나 3권으로 된 문집 『송설당집』을 보면 그가 유학의 경전과 사서시문을 자유자재로 원용할 정도의 식견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송설당은 문장이 단아하고 구김살이 없으며 유창한 167편의 한시와 49편의 가사를 필사본 문집 『송설당집』에 남겼다. 중년이 될 때까지 세파를 겪으며 문학적 재능을 펴보지 못하던 최송설당은 1897년 입궐하여 엄비를 보좌하며 십여년간 안정된 궁중생활을 하는 동안 잠재된 재능이 발산되어 우수한 시문을 남긴 근대기 한국의 여류 문인이기도 하다. 중년에 쓴 송설당의 가사에는 평생 지켜온 길인 지조와 절개가 잘 드러나 있고, 가문의 번성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있다.

인생 첫 승부수 상경

송설당은 김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졌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김천은 그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이다. 송설당이 김천에 거주한 시기는 두 차례이다. 첫 시기는 1855년에 태어나서 1894년 상경하기까지 약 40년이다. 이후 서

울에 정착하고 1930년까지 김천을 오가며 30여년을 지냈다. 그리고 김천으로 돌아와 정착한 1930년 이후 1939년 타계할 때까지 10년을 더 김천에서 살았다. 결국 송설당의 84년 생애 가운데 김천에서 산 시기는 상경전 40년, 마지막 10년 등 모두 50년이다.

송설당은 1894년에서 1896년 사이에 상경했다. 1931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 교육사업에 희생한 최송설당 일생, 전재산 삼십이만원으로 에 직접 언급한 동학난에 살 수가 없어서 난을 피해왔지요 라는 대목이나 1939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병신년(1896년)에 상경했다는 기사가 그를 뒷받침한다. 송설당의 삶에서 첫 승부수는 상경 결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 올라온 송설당은 적선동에 자리잡고 집안 신원문제에 전념했다. 집안 신원문제는 입궁하여 영친왕 보모가 되면서 해결됐다. 김천의 한 맺힌 양반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입궁하게 된데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송설당이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드나들며 엄상궁의 여동생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송설당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옮길 무렵인 1897년 2월 엄상궁의 여동생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이 여동생의 남편이 바로 덕수궁 이모 과장으로 알려진다. 같은 절에 다니면서 엄상궁의 동생과 교분을 갖게 된 송설당은 엄상궁의 잉태소식을 듣자 왕자를 점지해달라고 백일기도를 올렸다. 송설당이 스스로 기원하는 엄상궁의 왕자 점지 기원 백일기도 는 제부(덕수궁 이모 과장) 혹은 여동생을 통해 엄상궁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민비가 시해된 지 닷새만에 부름을 받고 다시 입궐한 엄상궁이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가 아닌가. 엄상궁은 왕자생산을 위한 백일기도와 출산용품을 바친 송설당을 궁으로 불러들여 아들 영친왕의 보모로 삼았다.



영친왕 보모시절을 회상하는 최송설당　　경암 이양원 작

영친왕 출생을 현몽

또 하나는 송설당이 영친왕의 출생을 현몽했다는 것이다. 상경한 송설당은 엄상궁 거처를 드나드는 문상궁을 알게 됐다. 문상궁은 엄상궁이 아들을 잉태했다는 태점胎占을 쳐줄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송설당은 자신이 엄상궁의 생남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지난밤 꿈에 월궁月宮에서 부른다기에 따라 올라갔더니 금전金殿이 즐비하고 옥루가 높이 솟아 있는데 상제를 모신 선관仙官들이 시립해 있었습니다. 그때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오기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중화전中和殿이 보

이고 황금으로 경선궁이라 썼습니다. 이 꿈은 확실히 엄상궁께서 생남하실 꿈입니다. 바라옵건대 해산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은 소첩이 장만해 올리려고 하오니 받아주시도록 주선해주십시오.

문상궁은 송설당의 꿈 이야기를 엄상궁에게 전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엄상궁은 크게 기뻐하며 고종께 태몽과 출산용품을 바치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 고종은 기뻐하며 출산용품을 윤허했다. 영친왕을 낳고, 귀비로 승격한 엄비의 요청에 따라 궁에 불려 들어간 고부댁 송설당은 그렇게 영친왕의 보모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는 한국일보에 연재한 「잊지못할 여류명사들」 1962년 5월 24일자에 최송설당의 이런 전략적 사고를 계단정책으로 설명했다. 엄상궁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송설당이 왕자 탄생을 위해 백일불공을 드렸고, 그 사실이 엄상궁 동생을 통해 엄상궁에게 전해졌으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출산용품 일체를 고급품으로 장만하여 진상하였고, 그 결과 영친왕의 보모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계단전략이라는 것이다. 결국 송설당은 대한제국 최고 권력자인 고종을 향해 한 계단 두 계단 딛고 올라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휘둘려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송설당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확실히 세운 것이다. 입궁경위야 어떻든 송설당이 집안 신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궁궐에 들어가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영친왕의 보모로 덕수궁에 들어간 지 4년만에 송설당은 지상과제였던 집안의 신원 문제를 해결했다. 1901년에 고종은 화순 최씨의 몰적沒籍 조치를 풀고 사면 복권 시켰다. 남존여비의 구습으로 호적에 이름조차 오르지 못한 최창환의 맏딸 송설당이 몰락한지 90년만에 가문을 되살려낸 것이다.

송설당이라는 당호를 갖게 된 연유도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하나는 입궁 생활과 연관된다. 입궐한 송설당이 고종을 만났을 때 엄비가 말했다. 지난날 제가 의지가지 없이 떠돌 때 최씨가 세한歲寒의 눈덮인 소나무를 수놓아 주면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고종은 기쁜 얼굴로 말했다. 허허, 그랬는가. 그대야 말로 송설의 집(松雪堂)이라 할 만하구나. 내 그렇게 부르리라. 해서 그녀의 당호가 송설당이 됐다는 설이다. 하지만 정작 송설당은 『송설당서』에서 삼동에도 타고난 성품을 더럽히지 않는 자, 사물 가운데 눈 속의 소나무, 설중송雪中松이 있는 고로 외람됨을 무릅쓰고 이를 호로 삼는다 며 송설당이 스스로 붙인 자호自號임을 밝혔다.

계단 전략으로 거부가 된 여장부

송설당이 재력을 지닌 시점은 궁궐에서 나온 전후이다.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면서 송설당의 조선의 보모 역할도 끝이 났다.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이 일제에 의해 퇴위당하면서 영친왕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말이 일본유학이지 볼모였다. 10년간 마지막 왕세자를 키우며 덕수궁에서 살던 송설당도 영친왕이 궁궐을 떠나면서 궁밖으로 나와야했다. 엄비와 이별하고 사회로 되돌아온 송설당은 집안문제를 해결한 뒤여서 사회와 민족을 위한 삶으로 나아간다.

송설당의 후원자 노릇을 단단히 한 엄비는 영친왕을 낳고 경선궁이라는 궁호를 받았다. 경선궁에 많은 토지가 주어졌다. 엄비가 교육에 뜻을 두고 진명여고 등을 건립하면서 기부한 땅들이 그런 땅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선궁 뿐 아니라 영친왕궁에도 꽤 많은 토지가 불하됐다. 영친왕 보모 송설당이 궁을

나올 때 그 일부를 받은게 송설당이 큰 재산을 갖게된 동기 중의 하나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설에서는 송설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거론되는 이용교의 창원군수(1897년), 김해군수(1899년), 진주군수(1903년)직 수행이 송설당의 큰 재력으로 연결됐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송설당이 송설교육재단에 기부한 토지는 몇 지역에 집중되는데, 김천이 대표적이고 김해지역도 적지 않다. 김해지역에서만 154필지나 된다. 김해지역은 엄비의 경선궁 소유지 양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용교의 김해군수 재임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송설당은 늘 엄비의 은혜가 태산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다고 표현했으며, 그 은혜를 반드시 내세에 갚겠다는 의지를 삶에서, 작품에서 되뇌이고 있다. 송설당은 여러 작품에서 지조와 절개 신의와 충효를 중요하게 여겼다. 평생동안 변치않고 마음을 주었던 대상은 좁게는 가문과 은인 엄비, 넓게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이었다. 집안의 신원을 여자의 손으로 풀어냈듯이, 민족과 국권회복을 누구보다 염원했던 송설당은 결국 세파를 견디며 모은 막대한 재산을 육영사업으로 귀결시켰다. 육영사업 결정은 쉬이 변하지 않았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 비움으로서 한국육영사업의 어머니로 영생했다.

궁에서 나온 1912년 무교동에 55칸짜리 저택을 짓고 송설당 이란 당호를 내걸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석물을 안치하는 문중 현창顯彰 사업도 마쳤다. 후손된 도리를 모두 마쳤을 때, 최송설당의 나이는 이미 환갑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 나이면 만사 중단하고 뒷방 늙은이로 들어앉을 때였다. 송설당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전국 사찰마다 크고 작은 시주를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게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인 경북 청암사이다. 청암사 일주문 들어가기 전 200여



김천고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최송설당 동상.
최송설당은 일제강점기에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를 세움으로써 민족의 앞날에 희망을 쏘아올렸다.

미터 앞에 높이가 1미터 약간 넘는 시주비와 청암계곡에 새겨진 최송설당이라는 글씨가 그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시주비는 자연석 표면을 갈아서 만든 각석인데, 대시주 최송설당 大施主崔松雪堂이라고 새겨져있다. 최송설당이 큰 시주를 한 것을 기리는 현장이다. 시주를 한 시기는 경신년(1920년) 모춘暮春, 늦은 봄 등 여러차례 계속되었다.

청암사는 1911년 9월 21일 대화재를 만났다. 독실한 불자였던 송설당이 청암사 복원에 큰 시주를 했을 것이고, 또 그 이전에도 청암사 주지 대운당을 통해 극락전 복원 불사금을 냈다. 대운스님은 훗날 송설당이 김천고보를 설립할 뜻을 밝힌 뒤 결성된 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법주사 복천암 촉대와 명문이 새겨진 명기冥器,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정양사, 화왕산 도성암 등에도 크고 작은 시주를 했음이 그 사찰마다 송설당을 새긴 각석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송설당의 이름을 새긴 각석이 그녀의 아름다운 시주를 묵언으로 드러내고 있다.

송설당의 나눔에 관한 기사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부터 등장한다. 미국 동포가 간행하는 공립신보를 보다가 의연금을 모집하는 취지서를 읽고 감동해 4원을 기탁했다는 기사다. 1912년에는 김천 교동 주민을 위한 벼 50섬 희사, 1915년 경성부인회 거액 기부, 1917년 김천공립보통학교 기부, 금릉유치원과 금릉학원 유지비 쾌척, 소작인에게 1년 추수를 내줬다는 미담기사까지 있다.

청암사 일주문 밖 최송설당 각서



만해, 육영사업에 기부 조언

송설당은 고향 김천에서 여생을 마무리지을 생각을 굳혀 나갔다. 만 65세이던 1919년 김천시 부곡동 뒷동산 고성산록에 고부재실 「정걸재貞傑齋」를 지었다. 정침과 취백헌이라는 부속건물로 이뤄진 정걸재는 지금은 없다.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소실되었다. 취백헌은 1935년에 지어졌는데, 안채이면서 송설당이 식사하던 곳이자 송설당을 뒷바라지하던 가족들의 거처이기도 했다. 정걸재를 지은 다음해인 1920년에는 정걸재 바로 뒤편에 자신이 묻힐 가묘까지 설치했다. 살아생전 만년을 보낼 양택과 죽어서 평생 살 음택을 다 마련한 송설당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거나 유명인사에게 받은 글을 담은 문집 『송설당집』을 발간했다. 1922년이었다. 전3권으로 된 『송설당집』은 1권이 한시, 2권은 가사, 3권은 부록으로 되어있다. 송설당은 자신의 문집을 전세계 도서관에도 보냈다고 전해진다. 최근 타계한 모산 심재완 박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학계에 알려지게 된 송설당 가사는 모두 49편, 한시가 167편이다.

1920년대 민족지사들은 3 · 1운동 이후 실력양성운동을 펴면서 범국민적인 결속을 다지려했다. 김천지역에서도 언론 집회 결사운동이 일어났고, 실력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교육기관 설립운동은 1923년 고등보통학교 설립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있었지만, 3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으지 못하고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송설당은 1930년 6월 29일 김천으로 내려왔다. 불심이 깊었던 송설당은 한때 재산을 정리해서 해인사에 기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해인사 주지가 친일승려였기 때문에 만해가 말렸다. 송설당은 만해의 의견을 따라 육영사업에 쓰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도 깨끗하게 돈을 모아 육영사업에 쓰라고 당부하지 않



정걸재. 송설당은 만년에 송정 뒷산 정걸재에서 기거했으며, 정걸재 정침에서 타계했다.

았던가. 학교는 인문계 고보를 짓기로 작정했다. 처음에는 고아원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다. 그전에는 김천공립보통학교에 거액을 기부해 조선총독의 표창을 받았다. 1926년 11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재산 전부를 사회적 기업에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부모없고 가여운 아이들을 교양하기 위해 고아원 혹은 유치원을 설립하려한다 고 적혀있다. 김천고보 설립기성회가 송설당을 찾아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이미 송설당이 고아원이나 유치원 설립에 뜻을 둔데다, 자신의 재산이 김천고보 설립에 필요한 30만원에 모자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설당이 해인사 시주에서 김천고보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시기는 1930년 새해 벽두로 알려지고 있다. 송설당은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어



거금 30만 2천 100원을 희사해서 건립한 옛 김천고보 건물-1931년

느 정도인지 조사에 나섰다. 송설당이 조사를 맡긴 인물은 이한기였다. 이한기는 재산 규모 파악에 들어감과 동시에 김천고보 설립운동에 앞장서던 고덕환에게 알렸다. 기부의 방향을 해인사에서 김천고보 설립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앞장섰다. 대표적인 인물이 만해와 이인 변호사이다.

송설당은 전 재산 30만2천100원으로 학교법인을 세웠다. 교육재단 설립자금으로 기부한 재산은 김천, 김해, 대전 세 곳에 흩어져 있는 20만2천100원 상당의 토지와 10만원의 은행예금까지 모두 30만2천100원이었다. 당시 백미 상품 1섬은 29.77원. 32만원이면 1만섬 이상을 살 수 있었다. 1930년대 민족의 앞날이 암울하던 시대에 겨레의 등불이 될 인재 양성에 송설당은 모든 것을 던

졌다. 가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알려지기도 전에 한국적인 기부를 송설당이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는 백선행, 남한에는 최송설당이라는 말이 생겼다. 최송설당은 구식여성이지만 한국여성사 또는 조선문화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기에 충분하다. 『개벽』 제2호(1934년 12월 1일)에서 김동수는 「최송설당 · 백선행 두 부호가 재산을 사회사업에 내놓은 것을 예찬함」이라는 글을 통해 남에는 최송설당, 북에는 백선행 이라는 여성 재력가 2인의 사회사업을 찬양하였다. 1932년 6월2일자 『동광』에 춘원 이광수는 최송설당 등 사회봉사자들의 갸륵한 행위가 서양식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도리어 전설적 조선정신에서 나온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자선 여왕

최송설당의 김천고보 개교는 적막의 김천을 활기의 김천으로, 초야의 김천을 이상의 김천으로 만들었다 고 동아일보 1931년 4월 25일자는 적고 있다. 송설당의 자선이 그만큼 진실되고, 거대하고, 순수하다는 것이다. 일제 치하, 한반도 동쪽 자락 김천에서 청사에 남을만한 여성 육영사업가가 탄생한 것이다. 김천고보를 설립할 법인이 세워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송설당은 인문계 고교 쪽으로 기부가닥을 잡고 일을 추진했으나 일제는 인문계 학교 증설억제책을 썼다. 일제 학무국이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송설당은 인문계 고보가 아니면 기부를 취소하겠다 고 강하게 치고 나왔다. 깊이 사고할 줄 알고, 민족의 앞날을 살려낼 인재를 양성하려면 인문계 학교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가문의 신원을 벗기 위해 계단식 전략을 구사, 최고 권력자에게 접근하여 뜻을 이루었듯이 또다시 강

온 양동작전을 폈다.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해법으로 송설당은 사이토모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아내 사이토 하루코齋藤春子를 만나서 부탁했다. 결국 송설당의 이 전략은 먹혀들었다. 일제는 고등보통학교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인문계학교에 실업과목을 교과에 첨가하기로 하고 학교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김천고보는 개교가 1년 밀린데다, 1930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쌀값이 폭락해 기부된 토지에서 나온 소출로 공사대금을 치르기에는 비용이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천에 내려오기 전에 살았던 무교동 55칸 집을 내놓았다. 대지 234평, 집값은 2만3천원이었다. 학교 설립의 마지막 위기를 다시한번 더 기부함으로써 깨끗이 벗어났다. 여러 고비를 넘기고 김천고보는 1931년 개교했다. 김천고보가 문을 열자, 김천만이 아니라 경북지역 전체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상주, 의성, 선산, 성주, 고령은 물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진학했다. 김천고보가 문을 열면서 김천은 일약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지역으로 발돋움했다. 적막하던 김천이 활기가 넘쳤다. 이런 변화를 당시 동아일보 등 기사는 말해주고 있다.

송설당이 생전에 기거하던 정걸재에 모인 김천고보생들



최송설당은 한국여성사의 으뜸

김천고보의 설립은 송설당 생애 마지막 승부수이자, 대단한 성공작이었다. 송설당이 만 80세가 되던 1935년 11월30일, 김천고보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1931년 5월 우여곡절 끝에 개교한 김천고보는 대구 경북에서 대구고보(현 경북고)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 사립으로도 대구 계성학교에 이어 두 번째 고보였다. 11월 30일 김천고보 뒷동산에 송설당 동상 제막식 날이었다. 동상은 전 재산을 쾌척하여 김천고보를 설립한 최송설당이 살아있을 때 추진되었으나 거부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전국적인 호응을 었었다. 일제말기 공출되어 지금은 볼 수 없는 송설당의 첫 동상은 조각가 김복진의 작품이었다.

동상 건립을 위해 10전에서 50원에 이르는 성금을 보내온 사람만 해도 1천명이 넘었다. 당일 오전 10시30분에는 개교 기념식과 신축교사 낙성식, 설립자 동상 제막식 등 세 가지 행사가 차례로 거행될 예정이었다. 시간이 가까워오자 하객이 물밀듯 몰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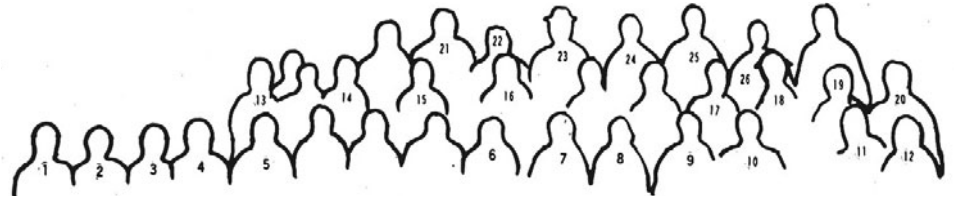
행사가 거행될 김천고보 운동장에는 교직원 37명, 전교생 250명, 하객 700여명 등 1,000여 명이 운집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오카자키岡崎 경북도지사, 와타나베渡邊 학무국장,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여운형 조선중앙일보 사장,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이인 변호사 등 경향 각지의 저명인사가 총출동해 단위에 앉았다. 이인 변호사는 만해와 함께 송설당을 설득, 해인사 시주에서 김천고보 설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든의 송설당이 밝은 얼굴로 하객을 맞았다.



최송설당 동상 건립식에 참석한 송진우(왼쪽), 여운형.



개교5주년기념행사 및 교주 동상 제막식.



1. 백관수
2. 최규동
3. 김천여고교장
4. 송진우
5. 전성오
6. 오국영
7. 김병익
8. 강석준
9. 이창구
10. 선응수
11. 서춘
12. 이인
13. 이정택
14. 신상태
15. 정열모
16. 심상민
17. 황찬주
18. 고덕환
19. 권상집
20. 석태인
21. 여운형
22. 최석태
23. 이한기
24. 김종호
25. 최동열
26. 김도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여인'

산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해 5월 시작된 김천고보 설립자 동상 건립 운동은 김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조만식, 방응모, 윤치호 같은 저명인사가 성금을 보내왔고, 신의주고보, 동래일신여학교, 대구계성학교, 금오산공립보통학교 등에서 성금을 보내왔다. 만주에서 성금을 보내온 사람도 있었다. 경향각지에서 502명이 5,945원을 희사하여 동상 제막식 경비로 썼다.

제막식에서 여운형은 최송설당이 세운 김천고보를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겼다. 살아생전 큰 복을 지은 덕에 기라성같은 인물 1,000여 명의 축하를 받으며 동상을 봉정받은 최송설당은 특별교실(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용을 내겠다고 보답했다. 전재산을 기부하여 무일푼이 된 송설당 여사에게 재단이 지급한 생활비를 아껴서 과학관을 지어주겠노라고 약속한 것이다.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큰 감동을 남긴 송설당은 한국여성사에서 으뜸자리를 차지하여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추운 날씨 속에 오전 10시30분부터 장장 3시간에 걸쳐 치러진 행사였지만, 그 누구도 짜증내거나 한눈팔지 않았다. 한결같이 송설당의 업적을 기리는 이야기가 오갔다. 주요 일간지들이 뉴스와 논설로 송설당의 업적을 찬양하였고, 동상제막식 참관 소감을 연재하기도 했다. 시중에는 송설당의 육영사업을 본받은 제2, 제3의 교육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학교를 짓고, 학교 뒷동산 정걸재에서 만년을 보낸 송설당은 1939년 6월16일 오전 10시 40분 만 84세로 타계했다. 그런데 그가 떠나기 보름전에 학교 유지

와 인재 양성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

송설당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교정을 내려다보는 정걸재에 기거하면서 학생들이 찾아오면 연당에 수박 참외를 띄어놓았다가 썰어주거나, 인사를 차리고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꼭 카라멜을 쥐어주었다. 그랬던 그가 학생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채 영면의 길을 떠나면서 죽어도 못잊을 유언을 남겼다.

최송설당의 유언

'학교가 영원하도록 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하라. 교육받은 한 사람이 나라를 바로잡고 한 사람이 동양을 지배한다. 이 길을 꼭 지켜 내 뜻을 저버리지 말라.'
(영위사학永爲私學 함양민족정신涵養民族精神 일인방정국一人邦定國 일인진동양一人鎭東洋 극준차도克遵此道 물부오지勿負吾志)

학교장으로 엄수된 장례식은 수백개에 이르는 만장과 조화, 3백여통의 조전, 수만의 조문객으로 인해서 김천 지방에서는 전무후무한 진풍경을 그렸다. 재학생과 동창생 3백여명이 악대 뒤를 따르고, 만장과 화환을 앞세운 동창생의 운구대 뒤에 수천명의 조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김천고보 발인 현장에서 장례식장인 공설운동장(현 모암초교)까지 이어졌다. 참여한 모든 조문객들이 최송설당의 영생을 기원했다. 송설당의 묘소는 학교 송정 뒷산에 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레 공수거 정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진 모든 재산을 김천고보를 위해서 희사, 한국 육영사업사의 신영역을 개척한 최송설당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제5장

여성, 예술을 탐하다

| 최미화 |
매일신문사 뉴미디어국장





백신애(유족 공개)

일제 사슬에 저항한 불꽃 지성 백신애

영달보다 문학정신을 불사른 자유인

백신애白信愛(1908.5.20~1939.6.23)는 32세로 요절한 여성 항일운동가이자 여성계몽가요, 30년대 저항문학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불꽃같은 지성이었다. 미모와 총명함을 타고났는데도 아버지의 재력과 가정적인 넉넉함에 안주하지 않았고, 개인 영달 대신 문학정신을 불사르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독립이라는 고도를 향해 여성운동과 문학운동을 동시에 편 백신애는 육체적인 괴로움과 핍박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또 누렸다. 한없는 정진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간 고고하고 아름다운 개척여성이다.

수재로 알려진 오빠 백기호를 많이 따르고 큰 영향을 받았던 점이 경북 청도 출신의 오누이 시조시인 이호우-이영도와 닮은 꼴이다. 그러나 이념적인 문

제로 백신애와 백기호 가정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자손들의 단명이 거듭되는 바람에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백신애는 첫 신춘문예 출신 문인이면서 본격적인 저항 문학을 추구했다. 신학문을 한 여성으로서 평범하게 묻혀 잊혀버리는 행복보다 여교사로서, 여성운동가로서, 여류작가로서 치열한 삶을 선구적으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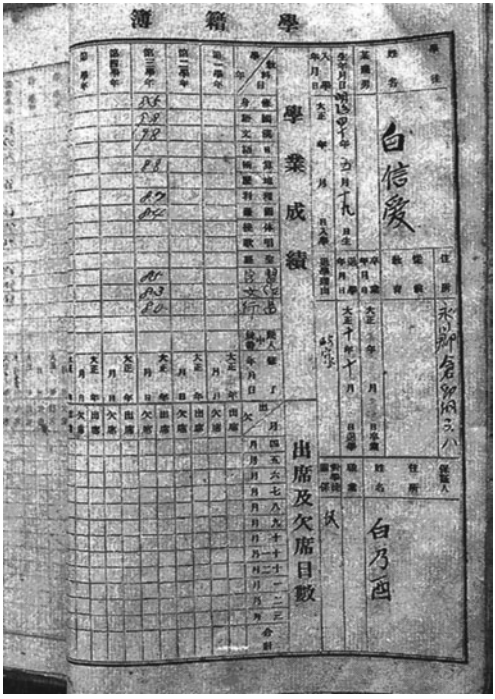
백신애는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의 어머니」가 당선되면서 꿈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는 여성이었지만, 문학의 세상에서 그는 자유로왔다. 모순과 비리에 찬 현실을 주시하였고 식민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무지와 궁핍한 삶을 다루기도 하였다. 들을 빼앗겨 시베리아 만주로 떠도는 겨레들의 참상을 다루기도 하였고, 일제 압박을 털고 일어서기를 촉구하는 특강을 다니기도 하였다.

일상의 안락함에 빠져들기 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강한 도전정신을 삶과 문학으로 동시에 보여주었다. 친정의 재력에 기대지 않고, 남편의 삶속에 매몰되지 않고 지식인 여성으로서 가야할 길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걸어간 영천의 빛이다.

백신애는 1908년 5월 20일 경북 영천군 창구동 68번지에서 아버지 백내유와 어머니 이내동 사이에 태어났다. 어릴때 이름은 무잠이었고, 무동, 계화 등 다른 이름도 여러 개나 된다. 종로초등학교 학적부에는 백신애로 나오고 있다. 이 학적부에는 1907년 5월 19일생으로 적혀있어 알려진 생년월일과 일년 정도 차이가 있다. 아버지 백내유는 5형제중 장남으로 딸을 끔직히 귀여워했다. 아버지 5형제는 다 부자였다. 백씨네 5형제 돈이 마르면 영천에 돈이 마른다고 할 정도로 백씨 가문의 경제적 세도는 대단했다.



11살 난 백신애(앞줄 오른쪽), 어머니 이내동(왼편), 아버지 백내유(뒷줄 왼쪽),
외조모(뒷줄 오른쪽)와 함께



백신애 대구 종로 초등 학적부

일제시대 영천 한복판에서 정미소를 하고, 대구 반야월에 천그루가 넘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가진 재력가 집안에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난을 모르고 자랐으나 어릴때부터 매우 병약했다. 다섯 살까지 엄마젖을 먹고 자란 백신애는 예닐곱살 때부터 이모부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아버지 백내유는 일찍 개화한데다 친일 성향마저 없지 않아 구태여 딸을 신학문에 접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었을 듯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학구열이 강했던 백신애는 어느정도 체력이 회복되자 영천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구 종로초등학교 학적부에는 1921년(대정 10년) 10월에 퇴학한 것으로 적혀있다. 총명한데다 어려서부터 서당교육과 한문교육을 받아서인지 종로초등학교 학적부에서 한문과 국어성적은 각각 98점을 기록하고 있다. 산술, 이과 등의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나와 있다.

백신애의 독서량은 엄청났다. 특히 일본에서 발간되는 온갖 잡지를 비롯해

서 문학 작품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대구대 이강언 교수는 『대구 · 경북 근대문인연구』 백신애 편 「궁핍한 시대의 여성과 삶」에서 적고 있다.

1922년 열 다섯살이 되었을 때 백신애는 여학교에 가고 싶었다. 아버지는 영천에서 가까운 대구에 공립사범학교가 생기자 도립 사범학교 강습과에 들어가 교사가 되어라 며 허락했다. 그러나 종로초등에서도 1921년에 퇴학한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통학교 졸업장이 없었다. 1922년 12월 백술동이라는 이름으로 생년월일도 1916년 5월 20일로 고쳐 영천보통학교 4학년에 다시 편입하였다. 몇달뒤인 1923년 3월 영천공립보통학교를 4년 졸업하게 한 다음달인 4월에 경북 공립사범학교 1년 단기 강습과에 입학시켰다. 당시 입학생 40명 가운데 백신애는 홍일점이었다. 경북공립사범학교 여교사 제1호가 된 백신애는 훈도가 되어 모교로 부임하였다.

이듬해에는 자인공립보통학교로 전임되었다. 자인공립보통학교로 옮겨온 1925년에 조선여성동우회(1924년 5월 10일 결성), 경성여성청년동맹(1925년 1월 21일 결성)에 가입하여 여성운동가로서의 길을 분명히 했고, 첫사랑의 쓴 맛도 경험했다. 깨어진 사랑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데다,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탄로나면서 교직에서 권고사직 당하였다.

식민지 여성의 고단한 삶을 보다

서울로 올라온 백신애는 본격적으로 여성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단체 간부를 맡고, 집회를 열면서 저항문학인으로 거듭났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사회변혁에 대한 열망과 저항의지를 심어주려 애썼다. 특히 백기만이 주선한 김천 강연에서 백신애의 활약은 대단했다. 백

기호의 둘째 딸 영미씨는 2008년 영천에 백신애 문학비가 들어설 때 참석하여 백신애의 서울행을 이렇게 증언했다.

보통학교에 다니던 저를 데리고 서울에 가서 노천명 시인의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다. 고모는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미모로 인해 남자들이 많이 따라 다녀 외출 할 때는 늘 (나를)데리고 다녔다. 주로 백석 시인,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 오빠 최승호 등을 만났다 고 전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녹음자료)

경성여성청년동맹 상임위원이 된 백신애는 1927년 2월 천도교 회관(서울 종로)에서 열린 경성여성청년동맹 2주년 기념식 집회 허가를 혼자 받아냈을 뿐 아니라 대회도 거의 혼자 치렀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무지와 몽매에서 깨어나도록 열변을 토하던 백신애는 1927년, 어느날 홀연히 시베리아로 방랑을 떠났다.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려는 계획된 고행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을까?

시베리아 방랑에서 죽음을 맛보다

백신애가 어떤 경로로 시베리아로 갔는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밀항했다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백신애기념사업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녹취한 결과에 따르면 백신애는 밀항했으리라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오는 조선인들을 스파이이거나 일제 앞잡이일 것으로 여기는 러시아인 병사들과 일경의 감시를 이중으로 피해야 하는 시베리아는 결코 낯선 여인 백신애에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약한 몸에 먹지도 못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헤매던 백신애가 굶어 쓰러져 다 죽어가는 것을 러시아의 한 노인이 구해주어 간신히 살아나기도 했다. 이 시베리아 방랑길에서 백신애는 밀정



백신애 어머니 이내동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다. 귀국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다시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어 처참한 고문을 당했다.

아버지의 힘으로 어렵게 풀려난 백신애는 고향집 과수원에 내려와 품팔이 여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라잃은 서러움을 서로 나누었다. 이 시기 백신애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29년이었다. 시베리아 방랑의 고통으로 인해 백신애의 민족의식은 더욱 선명해졌고, 문학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고향에 내려와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하던 백신애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모집에 「나의 어머니」란 작품이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첫발을 내디뎠다. 어머니라는 주제는 백신애가 평생 그리워하고 의지하던 마음속 의지처가 아니던가.

필명은 박계화였다. 박계화는 그의 집에 자주 머물던 이종사촌의 이름이다. 하룻밤에 써내려간 이 작품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백신애는 신춘문예 당선작가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었다.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대학 예술과에 적을 두고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다. 그는 체호프의 연극 「개」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도 있다. 하지만 별로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해 연극을 그만두고 문학에만 전념했다. 일본에서 연극을 할 때 남긴 사진은 성장에 화장까지 한 모습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러던 어느날 빨리 귀국하라는 아버지의 엄명을 받았다. 돌아와 보니 부산 모 해운회사 사장의 아들과 혼사를 앞두고 있었다. 두말하지 않고 부모님을 안심시킨 다음 그날 밤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고 말았다. 아주 귀국한 것은 1932년 가을이었다. 동래고보 및 오사카 상고 출신으로 은행에 다녔던 이근채와 32년에 약혼을 하고 이듬해 봄에 대구 공회당 큰 홀에서 신식결혼식을 올렸다. 이근채는 상처하고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였다. 몰려든 하객들 때문에 역원들도 놀랐다. 1934년에는 대구 친정 과수원에서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옮겼다. 대구시 동구 괴전동에 있던 백신애의 신접 살림집은 2000년대 초까지도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공장으로 변해 버렸다.

백신애는 신춘문예 등단작가였지만 본격적인 문학활동은 결혼하고 난 1934년부터 하였다. 1934년 대표작「꺼래이」를 신여성 1~2월호에 연재 발표하였고,「적



백신애가 살던 신혼집 (1934년)

빈」을 개벽 12월호를 통해 세상에 내놓았다. 시베리아 방랑의 경험을 살려 한국인의 생활상을 그린 「꺼래이」를 잠깐 본다.

> 끌려갔습니다.
> 순이들은 끌려갔습니다.
> 마치 병든 거러지 떼와 같이…
> 굵은 주먹만큼한 돌멩이를 꼭꼭 짜 박은 울퉁불퉁하고도 딱딱한 들길 위로 오랜 감금의 생활에 울고 있느라고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랐으나 여러 가지를 미루어 생각건대 아마도 동짓달 그믐께나 되는가 합니다
>
> 백신애 단편 「꺼래이」 첫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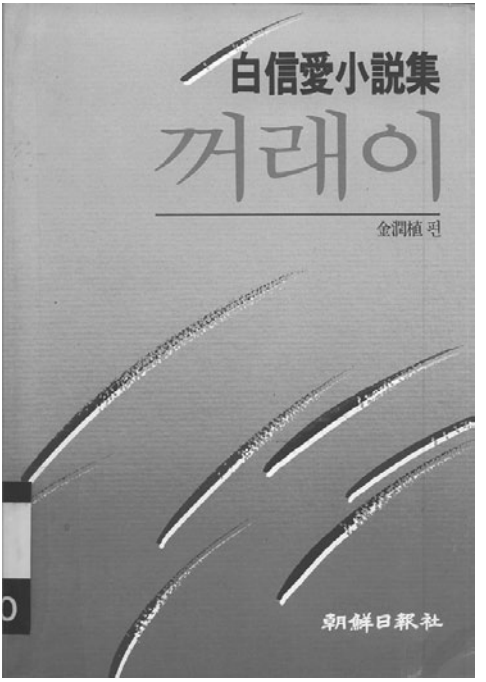
시베리아를 전전하는 동안 일제의 총칼에 조국을 잃고 황량하기만한 남의



영천 시민운동장에 들어선 백신애 문학비


작가 白信愛의 고향
(1908 — 1939)
白信愛는 일찍이 槿友회원 등으로
국내외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펴며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첫 여
성으로 「꺼래이」 「적빈」 「아름다운 노을」
등의 작품을 남긴 작가의 고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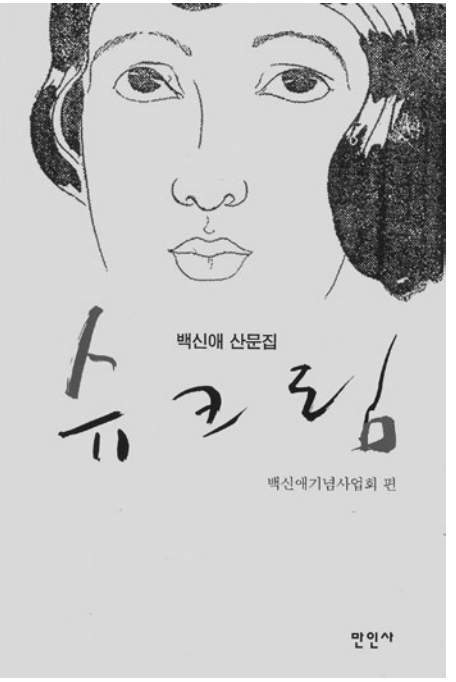
영천 백신애 기념비



백신애 소설집 『꺼래이』

땅을 헤매는 수많은 꺼래이(고려인)들의 극한적인 고통까지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던 백신애였기에 문학적 상상력만으로는 결코 그릴 수 없는 생생한 유랑이민들의 황폐한 삶을 가감없이 담을 수 있었다.

「꺼래이」를 쓴 1934년 친정 과수원 신혼집에서 단편 「채색교」(『신조선』,11월), 「복선이」(『신가정』,5월), 「적빈」(『개벽』,12월), 「낙오」(『중앙』,12월) 등 작품을 왕성하게 발표했다. 1935년에는 소년소설 「멀리간 동무」(『소년 중앙』,1월), 장편「의혹의 흑모」(『중앙』,8월 연



백신애 산문집 『슈크림』(만인사)

재 1회) 「악부자」(『신조선』,8월) 등을 선보였다. 1936년에는 단편 「빈곤」(『비판』,7월), 「어느 전원」(『영화 조선』,9월)을 발표하는 작품활동뿐 아니라 상경하여 서울 삼천리사 초청 여류작가 좌담회(사회 김동환, 박화성 모윤숙 이선희 장덕조 최정희 등 참석)에도 나가는 문단활동도 펼쳤다.

1938년에는 단편 「광인수기」(『조선일보』,6월 25일~7월 7일), 「소독부」(『조광』,7월)까지 발표했다. 유명을 달리한 1939년에는 단편 「혼명에서」(『조광』,5월)를 발표했다. 「아름다운 노을」(『여성』,11월~1940

년 1월)은 유고작이다. 타계하기 전 5~6년 동안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백신애는 누구보다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겉으로는 빈곤을 소재로 한 모순된 현실을 다루지만, 속으로는 여성이어서 겪는 비극을 다루고 있다.

백신애는 결혼 이후 송전리 신혼집에 살면서 왕성한 집필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17편의 소설과 8편의 수필을 창작했다. 낮에는 과수원 일을 돌보며, 품팔이를 하는 여성들과 김매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왕성한 작품활동과는 달리 부부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아기도 없었다. 1938년 5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대구 용계동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건강악화로 입원했다가 9월 25일 퇴원한 뒤, 닷새 뒤에 오빠 백기호와 함께 인천항을 통해 중국 청도 상해 등지를 40일간 유랑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1936년에 터진 일장기 말살사건 영향으로 인해 애국지사에 대한 감시가 심했다. 전부터 애국부인단체와 인연을 맺고 있던 백신애와 사회주의 성향의 백기호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오누이는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문인들과 교제도 했다. 11월 15일에는 집사를 시켜 법적 이혼수속을 밟고, 이혼했다.

어릴때부터 병약한데다 시베리아 유랑과 치명적인 고문을 당한 백신애의 건강은 악화일로였다. 상해에서 백신애의 위장병이 도졌다. 할 수 없이 오빠 백기호가 누이동생의 손을 잡고 귀국했다. 1939년 백신애는 몸져누웠고, 5월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신세를 진지 한달만인 6월 25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33세, 이제 막 문학적인 열정을 꽃피우기 시작하던 터에 죽음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프로문학이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던 1930년대 초에 작품을 시작하여 30년대





영천시와 백신애 기념사업회 등은 백신애 추모사업을 활발하게 펴고 있다.

말 1939년에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10여 편 남짓 작품을 남긴 그의 짧은 인생은 한 마디로 파란만장하였다. 당대에 쉽지 않는 정열과 혈기가 넘치는 여성작가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부자 아버지를 두고도 편안한 삶을 거부했다. 직접 여성운동에 뛰어들었고, 일제에 저항하는 활동을 폈고, 유랑생활로 민족의 참상을 체험했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민족과 문학을 택했던 백신애의 삶은 화려한 꽃봉우리들을 채 다 피우기도 전에 스러졌다. 선각자의 면모를 갖춘 여류소설가 백신애도 죽음을 이겨 내지는 못한 것이다.

향토 영천에서 태어난 백신애는 치열한 현실인식을 갖고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작품을 남겼㉮. 영천에서 내노라하는 재력을 지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유학까지 한 신여성으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의 안락한 삶 대신 궁핍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가는 작가의 길을 택했다. 시대와 함께 살고, 시대의 아픔을 작품에 담아내려한 백신애는 작품을 위해 시베리아 유랑도 거침없이 택했고, 달콤한 결혼생활도 스스로 벗어던졌다. 과수원 품일을 하는 여성들과도 거침없이 얘기



요절한 백신애

를 나누는 소박한 인간성을 지녔나하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순회 강연을 다니기도 하였다. 나라를 되찾아야한다는 신념을 구호로만 외던 일부 지식인과는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강연을 준비하고 전국을 돌며 특강도 서슴지 않은 실천적 운동가였던 백신애는 가고 없다. 여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여성운동으로 드러냈고, 작품속에 녹여낸 백신애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생의 본질을 향해 정열적으로 투신한 탁월한 작가, 백신애의 향기는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백신애 유품



박녹주

소리로 한국을 사로잡은 명창 박녹주

소설가 김유정이 연모한 여인

단아한 체격으로 명품 동편제를 뽑아내던 박녹주朴綠珠(1905.2.15~1979.5.26)는 「봄봄」, 「동백꽃」을 쓴 소설가 김유정이 꿈에도 잊지 못하며 석달 간 연서를 보낸 주인공이다. 연희전문에 다니던 4살 연하의 강원도 실레마을 출신 엘리트 소설가의 연모가 이미 소리명창의 영예를 얻고 있던 당대 스타 박녹주의 삶에 파고들지는 못했다.

경북 선산(현재 구미) 고아에서 1905년 2월 15일(음력 1월 25일)에 태어난 박녹주의 본명은 명이命伊, 호는 춘미春眉이고, 녹주는 예명이다. 박녹주는 호적상 박재보朴在普와 박순이의 자녀로 태어난 걸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중근과 권순이의 3녀로 태어났다. 다소 강한 억척같은 성격에 쟁쟁한 목소리를 내던 박녹주는 12살 되던 해(1916년)에 나라 제일의 명창으로 만들고

싶다 는 아버지 손에 끌려 선산 도리사 사하촌에 머물고 있던 가신歌神 박기홍朴基洪 앞에 섰다. 동편제 「적벽가」에 능한 박기홍은 박녹주에게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소리를 배우도록 했다. 소리하는 자세부터 엄하게 한 박기홍은 무릎을 세우고,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운 자세로 쉼없이 소리를 하라고 가르쳤다. 점심 때를 제하고는 새벽녘 개밥바라기별이 뜰 때까지 「춘향가」를 가르쳤다. 박녹주는 불과 두 달만에 「춘향가」전 바탕과 「심청가」일부를 익혔다. 이때 예명을 녹주로 지었다.

어린 박녹주는 권력으로 위협해도 목숨걸고 이도령과의 순수한 사랑을 이뤄내는 「춘향가」중 옥중가와 몽중가가 맘에 들었다. 천지 삼켜 사랑나고, 사람생겨 글내일제 뜻정자 이별별자를 어이허여 내였든고. 뜻정자를 내였거든 이별별자를 내지를 말거나 이 두 글자 내던 사람은 날로두고 지였던가. 도련님이 떠나실 적에 지어주고 가신 가사 한창허니 가성열은 동창의 슬픔이요, 수다에 몽불성은 정부사의 설움이라...

어려운 가사를 외다가 잘못 외면 박기홍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렸다. 목에서는 피가 났다. 도리사 부근에 머물던 박기홍은 「춘향가」외에 「심청가」를 조금 더 가르친 뒤 선산을 떠나갔다. 소리를 다 배우기도 전에 박기홍 명창은 떠나고, 박녹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녹주가 소리를 한다는 소문이 벌써 꽤 났다. 선산은 물론 김천, 왜관, 상주 등지에서도 초청이 왔다. 이때 벌써 과연 소리는 녹주야 라는 평가를 들었다. 앳된 박녹주가 우렁찬 소리로 「춘향가」 일절을 부르면, 좌중이 다 놀랐다.

14살 되던 해(1918년)에는 노대가 김창환金昌煥을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를 전수받았다. 제비노정기는 박녹주가 가장 애창

하던 대목이다. 어린 소녀가 설움을 받아가며 김창환의 소리를 전수받은 덕에 대부분 소리꾼들이 박녹주의 제비노정기를 이어받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박녹주의 세 번째 선생은 대구 강창호였다. 앞산 절에 머물던 강창호는 예순이 다 된 노인이었으나 소리가 쩡쩡했다. 별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리를 퍽 잘하는 편이었다. 강창호에게 박녹주는 초입부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데까지, 「수궁가」 중 고고천변 을 두 달동안 배웠다.

강창호에게「심청가」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권번에서 기생수업을 받게 했다. 소리를 배우는 것조차 꺼려하던 어머니와는 달리 박녹주의 아버지는 3년간 딸을 맡기고 돈 2백원을 받아갔다. 대구 달성공원 앞 달성권번이었다. 달성권번에서 행수기생 앵모[1]의 양딸이 되었다. 당시 행수기생 앵모라면 우리나라 한량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수백명의 기생을 거느리고 있었고, 젊었을 때는 미녀 기생으로 명성을 날렸다. 박녹주가 15살 되던 해에 행수기생 앵모는 환갑을 맞이했는데 이때 서울 한성권번과 조선권번 기생을 필두로 부산, 동래, 광주, 원산 강경 기생들이 몰려왔다. 1천여명이 넘는 기생들은 대구 방천 옆에 2개의 가설극장을 세우고 앵모 환갑기념공연을 가질 정도였다.

1) 앵모가 대구여성국채보상운동에서 거금을 쾌척한 대구기생 앵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대구기생 앵무는 기생들의 국채보상운동의 첫 장을 연 인물로 의연금 1백원을 쾌척하였다. 당시 앵무는 국채보상운동 기금 수취소에 1백원을 기부하면서 "누군가 1천원을 출연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하겠다"고 선언한 여성이다. 『청평논가』라는 책에는 "여자로서 누구든지 1천원을 출연하면 죽기를 무릅쓰고 따라 한다하니 기생은 참 앵무같은 기생이로고" 라고 쓰여있다. 『청평논가』에는 기생 앵무의 출연에 감동한 대구의 서상돈, 김병순, 정재착 등 남성 국채보상선구자들이 각기 기만원씩 더 출연하기로 결의하여 '의출남자'로 불렸다고 한다. 기생 앵무가 출연한 이후, 대구의 권번에서 활동하던 채옥, 쾌연, 춘옥, 향선, 향란 등 십여 명이 나라빚 갚기에 앞장섰다.

앵모 밑에서 소리 춤 시조를 배우던 박녹주는 단박에 두각을 드러냈다. 앵모는 녹주, 너는 장래 크게 될 거다 면서 격려를 해주었지만 어린 나이에 기생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받은 돈 2백원을 갚은 박녹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는 1919년으로 한창 기미년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1919년 4월 서울로 갔다가 소득없이 다시 고향 선산으로 내려와서 여름을 고향에서 보내고, 박녹주는 다시 아버지를 따라 대구로 왔다. 아버지 친구집에 머물면서 권번에 드나들었다. 이미 대구에서 김초향 다음가는 소녀명창으로 이름을 날리던 열다섯살 박녹주는 달성권번에서 알려진 김점룡, 음준옥, 조진영 등으로부터 육자배기를 배웠다. 육자배기는 판소리와 똑같은 소리이나 명창들은 천박하다고 부르기를 꺼려했다. 조진영에게 배운「화초사거리」는 민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박녹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

1920년, 16살이 된 박녹주는 키도 훌쑥 자라 156cm가 되었다. 하룻밤 초청되어가면 그때 돈 10원을 받던 박녹주는 아직 머리를 얹지 않은 동기童妓였다. 당시 풍습으로는 기생이라면 화초머리를 얹어야 더 인기를 끌었다. 화초머리란 낭군을 맞지는 않고, 그저 머리만 얹는 풍습이다. 머리를 얹어주는 사람은 명사이거나 부자양반이었다. 서로 바라는 것 없이 동기가 커서 유명해지면 그때 가서 보답을 하는 식이었다. 박녹주에게 화초머리를 얹은 사람은 변씨라는 충청도 부자였다. 박녹주가 16살 되던 가을에 댕기를 가져간 변씨는 그때 풍습대로 세간 등 모든 것을 그저 사주었다.

변덕스럽던 박녹주의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초머리를 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씨로부터 얻은 세간을 모두 팔아서 딸을 고향으로 데려갔다.

설을 쇠고, 다시 대구로 딸을 데리고 나간 박녹주의 아버지는 이번에는 강릉에서 대구 부자 박참봉의 돈으로 권번을 차리자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산까지 걸어가며 마을마다 명창대회를 열어 많은 돈을 벌었다.

국창이 될 사람

원산 명창대회는 박녹주의 창에 반한 앙콜소리로 떠나갈 듯 했다. 명창대회라고 해서 지금의 명창 대회같은 공인받은 것은 아니고, 조금 규모가 큰 감상회 정도였다. 공연 다음날, 박녹주는 원산 부자인 남백우로부터 초청을 받고 소리를 했다. 여기에서 22살 연상 남백우를 만났다. 보성전문을 졸업한 남백우는 한창 때라 풍채도 좋고 인자한 편이었다. 남백우는 반세기를 소리로 물들일 명창을 대번에 알아봤다. 녹주, 자네는 우리나라 국창이 될 사람이야. 내가 소홀히 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고 물었다. 박녹주는 늘 고생하던 어머니가 이곳 선산에 살지 말고, 멀리 이사가서 사는 게 내 소원이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를 원산에 모셔다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고 한 박녹주의 바램대로 남백우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원산 중리의 큰 기와집을 세 얻어주고 이사비용을 댔다. 남백우는 박녹주의 첫 남편이다.

18살 되던 1922년에는 서울에서 송만갑宋萬甲(1865~1939)을 만났다. 송만갑은 우미관優美館 명창대회에 출연하고 있었다. 송만갑은 단가 「진국명산」을 불렀다. 앞이마와 뒷머리가 툭 튀어나와 재주가 넘쳐 흐르는 송만갑은 천생 예술가였다. 몸집이 작아서 성량은 크지 않았으나 높고 강한 철성鐵聲이어서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였다. 당시 한성권번에 선생으로 다니던 송만갑을 따라 한성권번에 가서 1923년부터 「진국명산」과 「춘향가」를 배웠다.



젊은 시절 박녹주(명창 박녹주기념사업회 제공)

헌종 때 가왕으로 불렸던 국창 송흥록이 큰할아버지인 송만갑은 이미 10살에 명창의 칭호를 들었다. 박녹주는 송만갑으로부터 「춘향가」 중 사랑가로부터 십장가 까지 배웠다. 24살 되던 1928년에는 조선극장에서 팔도명창대회가 열렸다. 지금 종로세무서 위편에 있던 조선극장은 단성사 우미관과 함께 3대 극장으로 손꼽혔다. 전국 명창들이 모두 출연하다시피한 이 공연에서 재창 삼창 앙콜을 받은 박녹주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고려대 설립자이자 전 부통령인 인촌 김성수의 부친 김경중, 또 한 사람은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던 대학생 김유정金裕貞이었다.

김경중은 일국의 명창이 관철동 전셋집이 웬말이냐 며 수운동에 3천원 짜리 집을 사주었다. 뿐만 아니라 박녹주가 1929년 송만갑의 수제자인 김정문金正文에게 소리를 배우도록 주선해주고, 매달 1백원이나 되는 비용도 대주었다. 소리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었다. 박녹주가 김정문으로부터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데 까지 배웠기에 오늘날까지 동편제 「흥보가」가 온전히 전승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박타령 과 비단 나오는데 는 박녹주가 즐겨 부른 대목이고, 심청가 전 바탕도 김정문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박녹주의 흥보가는 김소희를 통해 소리판의 맥을 잇고 있다.

유성준劉成俊으로부터는 「수궁가」 일부를 배웠다. 「봄봄」,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金裕貞은 뛰어난 예술성의 박녹주에게서 어릴 때 여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만 짝사랑에 빠져버렸다. 나는 조선극장서 선생이 소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당신을 연모합니다. 나는 22살의 연전 학생이오.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오. 그로부터 김유정은 석달 동안 매

일 편지를 보냈다. 정말 밤에 본 당신은 아름답더이다. , 나는 그 길가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 연상의 남편 있는 명창 박녹주를 사랑하는 김유정의 연모는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혈서로 때로는 납치극으로 변했다. 한번만이라도 사랑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던 김유정은 피묻은 편지도 보냈다. 애끓는 마음을 혈서에 담아보냈지만, 박녹주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김유정의 사랑고백은 온 천지로 퍼져나가 원산의 남편 남백우나 김경중까지 다 알게 되었다. 때로는 박녹주에게 너무 매정하다. 는 비난이 되돌아오기도 했다.

1929년 김유정은 「소낙비」란 소설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로 중앙일보에 동시에 당선됐다. 김유정이 박녹주에게 보낸 연애편지들은 지금도 강원도 실레마을에 있는 김유정문학관의 유품으로 남아있다. 결국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제어하기 힘든 일방적인 사랑으로 박녹주 바보 가 되어버린 김유정은 1937년 늑막염에 폐결핵이 더해져서 유명을 달리했다. 소설가로서 막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으나 30살, 젊음을 채 꽃피우기도 전에 타계한 것이다. 과한 연모가 엘리트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김유정의 생명까지 앗아간 것일까? 너무 짧고 그래서 더 애틋한 김유정의 삶은 서른 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때 박녹주는 33살이었다. 김유정은 바로 네가 죽였지!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된 박녹주가 연희전문 학생 신분이던 젊은 소설가의 열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김유정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다.

12살부터 소리길을 닦아온 박녹주는 20대에 벌써 대명창들과 교제하였고, 여류명창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1928년에는 콜럼비아 레코드사에서 「심청가」를 취입했고, 연이어 빅터 태평양 레코드에서 판소리 네 바탕을 모

두 출반하여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렸다. 1930년에는 관훈동 성악 연구회에 자주 나가며 평탄하게 지나갔다. 이 성악연구회란 당시 우리나라의 명창인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이 주동이 된 국악인 모임이었다. 1931년 봄, 박녹주는 두 번째 남편 우석友石 김종익金鐘翊을 만났다. 김종익은 박녹주와 송만갑을 위해 익선동에 성악연구회 사무실로 9천 5백원짜리 집을 사줬다. 그럴듯한 집을 가진 성악연구회는 정식 총회를 갖고 이동백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마음이 넓은 둘째 남편 김종익은 늘 너의 몸은 네 것이지만 소리는 세상 사람들 것이니 그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것, 레코드 취입하는 것, 성악연구회에서 창극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였다.



동아일보 주최 제2회 판소리류파 발표회-앞줄 왼쪽 세번째 안경 쓴 사람이 박녹주 명창
(명창 박녹주기념사업회 제공)

소리는 세상사람들에게 돌려줘야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 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박녹주는 1935년 동양극장에서 처음 공연을 가진 「춘향가」(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정정렬 연출)에서 춘향역을 맡았다. 인물이 곱거나 연극을 잘해서가 아니라 소리 하나만으로 춘향역을 맡은 것이다. 그해 봄 동양극장을 1주일간 인파로 가득 메운 「춘향가」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긴 창극으로 명사 치고 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국창은 모두 출연했던 이 공연은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오후 7시에서 자정까지 두 차례 열렸다. 서로 떠밀고 들어오느라 유리창이 깨지고, 출입문이 부서지는 대소동 가운데도 「춘향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도령 역은 정남희(6 · 25때 납북), 방자 역은 오태석, 변사또 역은 5대 명창으로 손꼽히는 김창룡, 곡성 원님 역은 송만갑, 임실 현감 역은 정정렬이 했다. 당대 60대 대명창이 조연을 맡을 정도였으니 「춘향가」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명창들은 요샛말로 애드립도 잘했다. 대사에 없는 말로 관중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한 예로 잔치 도중 운봉역을 맡은 이동백이 송만갑을 보고 여보게 곡성영감. 당신은 어디가서 못 크고 그렇게 작은가 하곤 농을 거는 게 대표적이다. 원래 키가 작은 송만갑을 놀린 것이다. 그러면 송만갑은 운봉영감은 뭘 먹고 그리 컸소. 좀 알려주소 하고 응수를 했다. 박녹주는 성악연구회의 창극에서 늘 주연을 했는데 34세부터 춘향역을 내놓았다. 그러나 몸이 작고 제격이라고 해서 심청역은 39세까지 했다. 성악연구회에서의 창극생활은 39세까지 계속됐다.



제2회 판소리류파 발표회 대회에서

1938년 가을에는 「숙영낭자전」을 동양극장서 초연初演했다. 전통적인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같이 깊고 해학이 짙은 맛은 없었지만 젊은 남녀의 러브스토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박녹주는 숙영낭자역도 맡았다. 「숙영낭자전」은 현진이란 백白진사의 외동아들이 집안의





2011년 명창 박녹주기념제 11회 전국국악대전 수상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녀 숙영낭자와 사랑 끝에 결혼한다는 줄거리이다. 숙영낭자역을 맡은 박녹주는 극 중 남편 백현진의 어머니 역을 맡은 임소향林小香에게 절을 해야했다. 임소향은 박녹주보다 열 살 넘게 어렸다. 큰언니로 모시던 박녹주의 절을 받는 게 미안해서 임소향은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면 박녹주는 작은 소리로 때려 죽일 년, 절 받아라 하면서 절을 했다고 전한다.

대부분 창극에서 주역을 했으나 37세가 된 1941년에 공연한 「수궁가水宮歌」에서는 단역인 자라 어머니 역을 맡았다. 그런데 창극중에서는 이 「수궁가」가 가장 히트를 했다. 그러나 소도구가 하도 많아 지방공연을 갖지 못했다. 「수궁가」의 주역인 자라는 임방울이, 토끼는 김연수가 맡았고 수궁용왕은 조상선이 분했다. 천생의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임방울은 허풍좋고 우직한 자라역을 잘도 해냈는데, 사실 임방울과 어머니역을 맡은 박녹주는 고생을 엄청했다. 딱딱한 자라옷을 등에 쓰고 엉금엉금 기어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공연한 때가 여름이면 땀이 온몸을 적셨다.

둘째 남편인 김종익이 1941년 봄, 이질로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타계하기 전,

박녹주는 이화중선李花中仙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김종익은 이달에 벌면 다음달에 저축을 하라 고 했으나 한귀로 흘렸다. 만년에 생활고를 겪으면서 박녹주는 남편 김종익의 충고를 고깝게 여기고 이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해방을 맞고 처음 한 일이 여성국악동호회 결성이다. 그때 까지 국극사 조선창극단 등 남자들이 이끄는 예술단체가 있었지만 모든게 남성 위주였다. 여성들은 푸대접을 받았다.

1945년 봄 박귀희, 김소희, 임춘앵, 정유색, 임유앵, 김경희 등 30여 명의 여성으로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하고, 상무이사에 취임했다. 본격적인 여성국악운동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전쟁시 정남희 등이 월북을 강요했으나 잘 모면했으며 명창 30여명과 함께 국민방위군 정훈공작대에 편입되어 1952년까지 군을 돌며 「열녀화」를 공연하였다.

1952년 눈병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였고, 대구에서 국극사國劇社를 결성하였다. 1960년부터 박귀희에게 「흥보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64년 12월 2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춘향가」)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박귀희는 송만갑, 김창환,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등 5명창이 타계한 후 여류 국창으로 군림하다 남자 명창들의 맥이 거의 끊어져버린 인간문화재 시대에 김여란과 함께 쇠퇴하는 소리판을 굳건히 지켜낸 국악계의 어머니이다. 대구의 국악인 박기환 씨는 박녹주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국악인이었다 며 국립국악원을 만들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 들려주었다. 1971년 판소리보존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활약하였고, 그의 소리는 조상현, 박초선, 성창순, 성우향 등이 이어받았다. 늑대

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여성국악인으로서 다소 거칠다 싶은 목소리를 지녀 단단한 무게감을 느끼게 한 명창 박녹주는 대구 · 경북보다 중앙무대에서 더 큰 활동을 펼쳤다. 타계 일년전인 1978년 고향 선산에서 열린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공연에서 백발가 를 불러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박녹주는 동편제 창법의 국보적 존재로「흥보가」명창이자 판소리계에 우먼파워를 심은 인간 문화재이다. 평생을 소리로 보낸 박녹주에게 이 이상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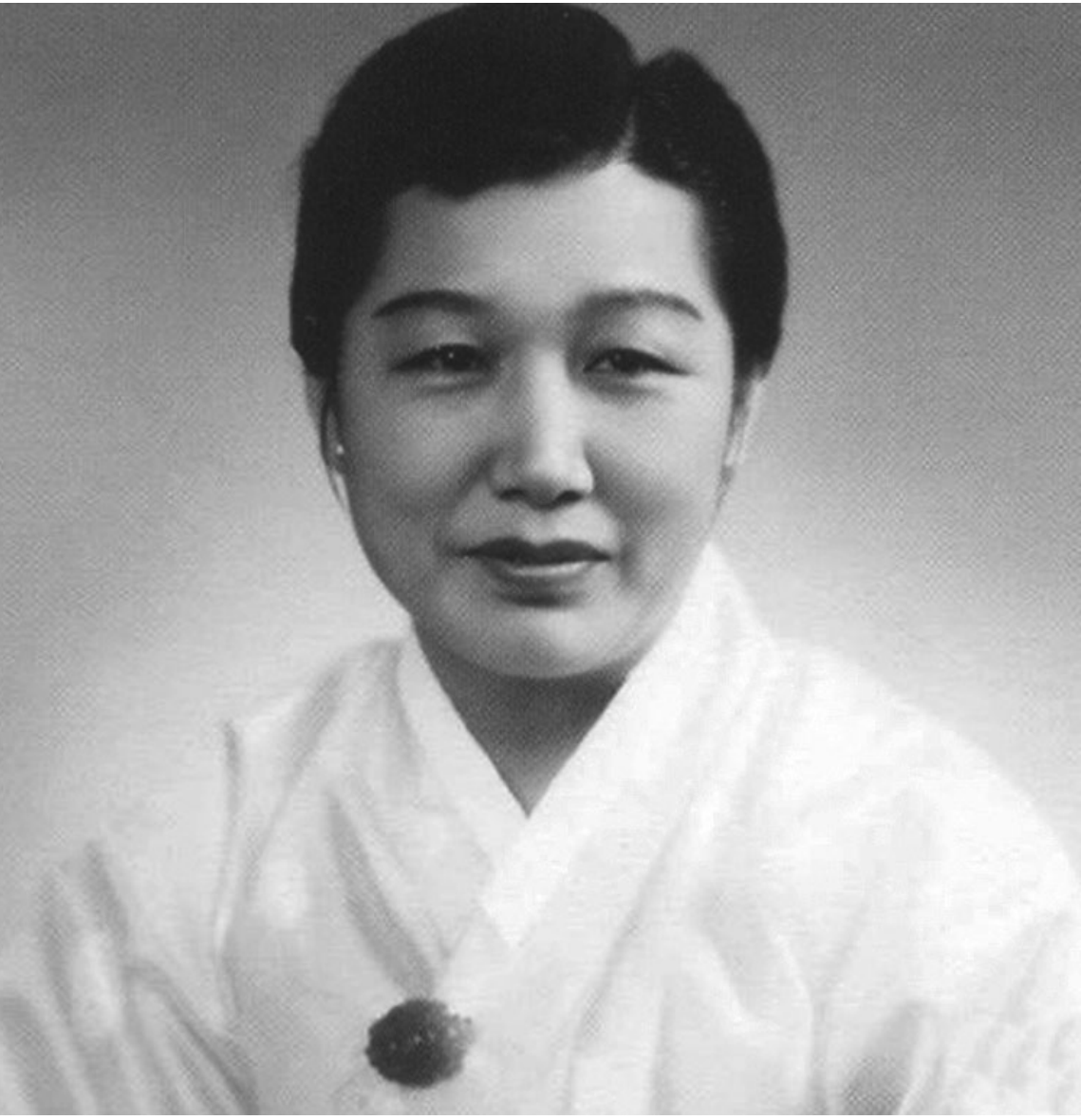
박녹주에게 소리를 배운 사람은 상당히 많다. 박녹주는 박귀희에게 송만갑제가 그대로 살아 있는 「흥보가」를, 정의진에게 박녹주제 「흥보가」를 전수했다. 판소리 기본인 다섯마당 말고도 정정렬이 유일하게 부른 「숙영낭자전」을 배웠다. 「숙영낭자전」은 김여란과 이기권이 같이 배웠으나 이기권은 일찍 죽고 김여란은 많이 잊어버려 유일하게 박녹주만 알던 것을 박초선, 한농선, 조상현, 조순애, 박송희 등에게 전수했다. 서편제가 호남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동편제는 영남을 중심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 중심에 박녹주가 있다. 1979년 5월 26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명창 박녹주 노래비는 경북 구미 노상동에 세워져 있다.





제2회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수상자를 축하해주는 박녹주 명창. 1972년



박귀희

국악발전의 어머니 박귀희

국악발전에 모든 것 희사

2011년 11월 3일 인구 11만의 경북 칠곡에 우리나라 국악인들이 총출동하다시피 다 모여들었다. 2011 향사香史 박귀희朴貴姬(1921.2.6~1993.7.14) 명창 기념공연 「국모」에 출연하기 위해 선생의 후배, 제자, 국립전통예술학교 재학생, 동국대 관현악단 등이 천리길을 마다 하지않고 내려온 것이다.

20세기 국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국악의 어머니를 기리는데 두 마음은 없었다. 국악계의 은인을 위해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한 창설자를 위해서, 바쁜 시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들 기꺼이 내려온 것이다.

향사 박귀희는 어떠한 남자들도 해내지 못했던 문화예술계의 크고 다양한 일들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양악에 밀리는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또 소외된 여성국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부한 여장부다. 가히 국악 발전의 어머니 역할을 다한 국모 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적통이 아닌 서얼 출신에 무당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국악학교 설립이라는 소망을 세웠고, 그 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희사한 참 인간이다. 박귀희는 한국의 혼이 담긴 국악을 사랑하고 키운 우리나라 국악사의 빛나는 스승이다. 여성이지만 국악인으로서의 민족음악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전무후무한 경북여성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공간과 6 · 25를 지나오면서도 민족정신을 되살릴 새로운 시작은 국악 뿐이라는 것을 박귀희 명창은 이미 알았던 것일까?

박귀희 명창은 이화중선의 소리를 들으면서 넋을 잃었고, 그 가락을 잡으려고 소리판에 들어섰다. 단 한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선택이었고, 한 사람의 뛰어난 선택이 우리 국악계를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났다.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안달이 났던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이 되어도 국악인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적지 않았다. 설상가상 신탁통치로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양악은 선풍적으로 확산되었고 국악은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었다.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양악이 우리 민족과 함께 반만년을 흘러온 국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듯 확산되어도 국악인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저 속만 태울 뿐이었다. 당시 국악인들은 해방 나흘만인 1945년 8월 19일에 대동단결하여, 민속음악을 올바른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해방을 맞이하여 국악인들은 희망에 부풀어 국악중흥운동을 펼쳤으나 냉대받고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수도경찰청장을 역임한 창랑 장택상은 달랐다. 장택상은 박귀희의 친아버지 장병관과 한 집안으로 국악에 대한 조예가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악인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것으로 국립전통예술학교 초대 교장 기산



2011년 11월 3일 경북 칠곡에서 열린 향사 명창 박귀희 추모공연. (칠곡군 제공)

박헌봉은 『국악운동 반생기國樂運動 半生記』에 적고 있다. 여러해 외국생활을 했던 장택상은 구수한 된장찌개나 깍두기만큼 맛있는 음식은 먹어보지 못했고, 우리 국악같이 흥겨운 음악은 들어보지 못했다 면서 국악을 사랑했다. 창랑의 도움으로 박귀희는 국악 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감상회를 열었다. 이때 박귀희, 김소희 명창의 판소리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하루저녁 감상회를 계기로 국악학교 설립기성회가 조직되었고, 본격적인 학교설립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대 내각도 외면하고, 6 · 25도 터지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흘러갔다.

판소리, 국극, 가야금 병창 무형문화재로 국악예고를 설립한 향사 박귀희 추모 학술세미나 2011 칠곡.



국립전통예술학교를 세우다

국립전통예술학교 초대이사장 박귀희는 1955년 김소희와 함께 서울 돈암동 적산 가옥 7백평을 불하받아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설립했다. 무용과 기악, 창악을 가르치기 시작한 한국민속예술학원이 사립 국악예술학교의 전신이다. 3년동안 약 380명의 학생이 모여들자 국악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세워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전남방직 김용주 회장, 삼양사 김연수, 경성방직 김용완 사장, 조선일보 방일영 회장, 윤병호 서울은행장, 코오롱그룹 이원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건평 5백평 규모의 신축 관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1960년 3월 5일에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서 개교한 사립 국악예술학교는 5천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악예술학교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 1964년 4월 15일 윤태일 당시 서울시장의 호의로 서울 장안을 내려다보는 남산으로 이전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사무실로 쓰던 낡은 건물이었지만 위치나 규모가 한결 나았고, 주변 민원의 소지도 줄었다. 그해 7월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국악관현악단을 창설하였다.

1968년에는 돈화문 앞으로 옮겼다가 1970년 9월 30일 서울 석관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84년 12월 17일에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2년 10월 29일에는 석관동에서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산 24-17번지로 교사를 이전하였으며, 2002년 3월 2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 자율학교가 되었다. 전통예술학교는 박범훈, 김성녀, 김영임, 오정해 등 걸출한 졸업생들을 배출한데다 국악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8년 3월 1일 사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되었다.

국악예술학교가 1970년에 서울 석관동으로 이사한 후 박귀희는 운동장이 없는게 마음에 걸려 1989년 서울 운니동에 있던 자신 소유의 운당여관을 국악예술고등학교 이전 비용으로 내놓았다. 석관동 교사 판매 대금 20억원에다 박귀희 명창이 살던 사저 운당여관 그리고 명창의 대전 과수원까지 판 전 재산 38억원으로 전통국악예술학교는 1992년 금천구 시흥2동의 넓은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전통예술학교가 넓은 교사로 옮긴 것은 더없이 축하할 일이나 서울의 전통 숙박시설 명소로 사랑받던 운당여관이 헐린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박귀희 명창의 고택이 된 운당은 척박하던 195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보금자리이자 국수전이 열리던 바둑 대국장이었다. 운당이 박귀희 명창의 소유가 된 것은 1951년이다. 원래는 조선 순조 때 궁중 내관이 왕으로부터 목재를 하사받아 지은 양반 가옥이었다. 여기에 구한말 세도가였던 한상억이 한옥을 사들여 1958년부터 구름집을 뜻하는 운당雲堂으로 이름지었다. 서울 경기지방 정통 사대부 가옥을 보여주는 운당은 종로의 명소로 알려져있고, 박귀희는 이 집을 여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했다. 운당여관은 문화예술인들의 놀이터이자, 한국가옥의 곡선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1989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국악예술학교에 기증된 후 헐렸던 운당여관은 1994년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서울종합촬영소 내에 복원되었다.

국모 박귀희 명창이 기산 박헌봉 등과 함께 민족정신을 보듬고 민족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뿌린 씨앗은 이제 개교 반세기를 넘어 반만년 민족정서를 싣고 있는 우리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첫 국악교육기관으로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국립전통예술고에서는 향사 박귀희의 예술관이 실천되고 있다. 박귀희는 예술을 공부하려면 먼저 인성을 닦고 예능을 공부해야하며, 예술인은 기예 뿐 아니라 학식도 겸비해야한다고 강조하였고 몸소 실천하였다.

박귀희 명창의 국악살리기는 완전히 자유의지로 시작되었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국악에는 없던 가야금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낸 자유의지의 발로이자 전인미답의 신개척지를 찾아나선 것이다.

소리로 풀어내야 할 출생스토리

박귀희 명창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동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장영심으로 친아버지는 장병관, 인동장씨 집안이다. 장병관은 기골이 장대하고 말도 잘하며 돈도 많았다고 한다. 알아주던 대농이었던 칠곡 갑부 장병관이 경영하던 술도가는 6 · 25때 폭격으로 불타 없어졌다. 장병관은 아들을 얻지 못하자 아랫마을 속칭 탑고개에 살던 큰 무당 박금영(박귀희의 친어머니)과 동거했다. 장병관은 박금영이 딸을 낳자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딸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무당으로 사는 삶의 지난함을 알고 있는 박금영은 처음에는 어린 박귀희 즉 장영심을 자신의 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장병관은 혼인 외 딸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바람에 박귀희는 인동 장씨 호적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후 친모 박금영이 오씨 성을 가진 사람과 재혼하자 오씨 호적에 오계화라고 올렸으나 박귀희는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오씨 성을 따를 수 없다 면서 어머니 성을 따랐다. 상당히 앞서서 주체적인 생각을 보인 셈이다.

이후 장영심 즉 오계화는 국악에 입문하면서 지은 귀희라는 예명에 어머니

칠곡이 낳은 국악계의 어머니 향사 박귀희 추모공연이 2011년 11월 3일~5일까지 계속된 칠곡평생학습 인문학축제에서 선보였다. 향사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담은 추모공연 팜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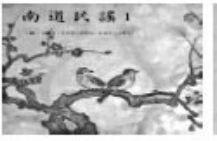






계간발간
국악학원


短歌集 2


南道民謠 1

貞婦


남도민요 1


短歌集


박씨 성을 붙여서 박귀희가 되었다. 한국 국악계의 대들보 역할을 한 명창 박귀희의 이름 세글자에 출생에 서린 애환과 신분차별의 굴레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한 사람의 뛰어난 인간승리의 의지가 서려있다.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 박귀희는 가야금과 무관하지 않은 배경을 안고 태어났다. 박귀희는 능력있는 아버지를 두었으나, 축복받는 출생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부모 슬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혼외 자식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태어난 박귀희의 인생 고민과 고뇌는 일찍 싹텄을 것이며, 그것이 깊은 예술적인 공명으로 승화되는 통과의례를 거친다. 어찌보면 박귀희와 국악과의 인연은 운명적으로 조우하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닐곱살쯤 철이 들만하자 어머니는 박귀희를 대구 봉산동 외가로 보냈다. 대구공립보통학교 3학년 때 무성영화를 처음 접하였다. 이때부터 예술세계에 대한 동경의 씨앗이 뿌려졌는지도 모르겠다. 향토음악사를 정리한 손태룡은 박귀희가 대구에서 달성권번과 대구공립보통학교를 거치면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1931년 11세때 대구극장에서 열렸던 조선성악연구회[1] 공연을 보면서 예술적 자질이 움트기 시작했다.

박귀희는 권번 담을 넘어 들려오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따라하다가 손재광 앞에서 단가를 부르게 되었다. 손재광은 그래 쓰겠다. 너 소리 배워라 고 한마디를 던졌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 셈이다. 손재광이 어린 박귀희에게서 소질을 캐냈다면, 첫 스승은 박지홍이다. 박지홍으로부

1) 조선성악연구회는 1933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1902년에 서울에서 집결한 지방 음악인들 중 일부는 낙향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장안사 광무대 단성사 등 공연장에서 공연하면서 협률사라고 하는 명칭의 사설 공연단을 조직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성악연구회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연도의 착각이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터 판소리와 「화초사거리」 등을 사사받았다. 박지홍은 나주 출신으로 명창 박기홍과 종형제간이었다.

이화중선의 소리에 홀린 듯 빠져들다

박귀희가 데뷔를 한 것은 보통학교 졸업을 앞둔 14세 때 달성권번 손광재에게 판소리를 배우다가 이화중선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화중선(1898~1943)은 김초향과 더불어 그 시절 여류 창악계의 쌍벽이었다. 열일곱살 때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홈실 박씨 문중으로 출가하였으나 협률사 공연을 보고 홀리듯 집을 나가 장득주에게 판소리를 배운 이화중선은 천부적인 목소리와 재질을 지닌 여류명창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화중선은 대동가극단을 이끌고 지방 순회공연에 이어서 일본 순회공연을 다녔는데. 1943년 재일동포 위문공연 도중 별세하였다.

이화중선의 대동가극단이 대구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손광재가 박귀희를 이화중선에게 소개시켰다. 박귀희의 소리를 들어본 이화중선은 바로 입단을 허락하였다. 박귀희가 대동가극단에 입단한 것은 1934년이었다. 대구극장에서 「소상팔경가」로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다.

대동가극단과 일년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은 쌓았지만 오태석의 가야금 병창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겼다. 토막 판소리에 만족하지 말고 명창이 되려면 제대로 소리를 배워야한다고 결심하고 대구로 내려온 박귀희는 한국 소리계의 대부들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았다. 박지홍에게 「춘향가」와「화초사거리」,「보렴」,「편락」을 배웠다.

15세이던 1935년에는 강태홍에게 가야금과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였고, 승

무, 박전무, 검무, 살풀이 등을 김남수에게 일년간 배웠다.

16세 되던 1936년 여름에는 대구 화원 용연사에서 박기홍의 의발衣鉢을 받은 조학진에게 백일 공부를 하면서 「춘향가」와 「적벽가」를 배웠다. 백일공부는 불가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듯이 암자나 절에 스승을 모시고 들어가 성음의 경지를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악인들은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소리공부하는 것을 흔히 도야陶冶라고 하고 소리공부는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들과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세 차례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 11시에 잠드는 시간까지 마치 좌선하듯이 소리공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박귀희 명인의 가장 큰 특징은 국악에는 없던 가야금 병창의 중요무형문화재가 됐다는 사실이다.

가야금 병창하는 박귀희



한때 불이익 가야금 병창 광범위한 사랑받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야금 병창대회에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가야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하는 새로운 연주 방식인 가야금 병창에 대해서 기존 국악계가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사라져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 뿐이지만, 한동안은 가야금 병창은 금지된 예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가야금 병창은 대중의 가슴 속에 파고 들었다. 창을 하며 가야금을 뜯는 병창은 마치 서양 아티스트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처럼 대중속으로 스며들었다. 박귀희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제 가야금 병창은 국악계의 대표적인 장르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18세에는 전남 담양에서 박동실 선생을 모시고 두 번째 백일공부에 들어가 「흥보가」, 「심청가」를 배웠다. 박동실과 공부를 마친 다음해인 1939년 19세 때는 유성준을 모시고 경북 하동군 쌍계사에서 세 번째 백일공부를 하면서 「수궁가」 한바탕을 배웠다.[3] 공부를 마친 박귀희는 대동가극단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으나 대동가극단이 일본 공연을 떠난 터라 종합예술단체인 한양창극단에 입단하였다. 이때가 17세인 1937년이었다. 스승인 오태석과의 만남은 한양창극단에 입단하면서 시작되었고, 공부 장소는 봉익동 대각사 근처 익선동이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년을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였다. 오태석은 목청이 좋고, 판소리 한바탕을 가야금 병창으로 노래할만큼 독보적인 존재였다

3) 양효숙 '박귀희의 삶과 예술'(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30쪽

이후 박귀희는 한양창극단을 거쳐 임방울, 박초월 등과 함께 1943년 동일창극단[4]을 재창단하여 동일창극단 단장을 맡았다. 동일창극단은 창작창극 「일목장군」 등을 공연하였다. 창작창극은 신파조에 창을 혼합한 형식으로 아직 창극다운 창극을 접해보지 못했던 시민들은 새로운 형식의 창극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동일창극단의 성공작인 「일목장군」에서 박귀희는 남자주인공을, 박초월은 여자주인공을 맡았다. 미모에 연기력까지 뛰어났던 박귀희가 남자역으로 분장한 선화공주는 대히트를 쳤다. 창극에서 여자가 남자역으로 출연한 것은 박귀희가 시초이다. 동일창극단은 서울 공연이 끝나면 계속 지방 각 도시를 순회공연하였으나 광복되던 1945년 부산에서 해산되었다. 박귀희는 가야금 병창 무형문화재였지만 여창남역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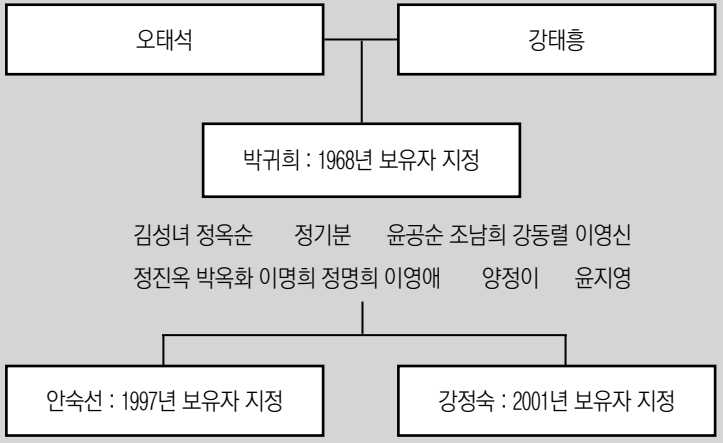
30대에 국악학교 설립의 뜻을 품다

1945년에는 여성국극단의 효시인 여성국악동호회를 창설하고 상무이사로 피임되어 활동하였다. 창립공연으로 「옥중화」[5] 이후 1949년 2월에 공연된 햇님과 달님의 성공으로 여성국극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마도 단 하나의 작품으로 단 1년만에 전국을 뒤흔들어놓고 뚜렷한 대중예술장르로 자리를 굳힌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적어도 1950년대는 여성국극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국극의 대유행으로 종래의 창극단들은 거의 사라졌다. 여성국극단이 초기의 음악극으로서 공연적인 성취보다 남녀

4) 1939년 경남 거제 출신 하창운이 조직하였다. 안기옥, 오태석, 임방울, 정광수, 박초월, 박귀희 강남월 등이 구성인원이었다.

5) 「춘향전」을 말한다. 이도령역은 임춘앵, 춘향역은 김소희가 맡았다. 임춘앵은 여성국극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전승 계보>



황승옥 문명자 강정희 안옥선
김옥란 유승림 조숙경 오정희
강정희 강명옥 서영희 이 선
서태경 김지현 안선영 차수연
김희영 배성남 원경애 김민주
고예진(김영순) 정명숙 천주미
박혜련 김현정 심소예 이은희
최현미 박혜진

박준호 강은경 박현숙 오경희
송명숙 위희경 서영례 권순희
문수정 양효숙 강미선 신성자
주문희 하선영 신정옥 박윤선
조항아 김현주 김민정 이여진
유인숙 박계숙 황정숙 김인숙
나승희 이예랑 서연희 유채진
최민혁 이지영 박현정 윤지현
박연하 오주은 임미애 정자경
강효진 최보라 최성은 전지영
이정옥 박혜윤 임영이 공은영
서승원 박정윤 김시연 전해옥
임정중 박근정 임재현

이선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작

간의 사랑 등을 확대하며 인기를 좇아 변질되자 박귀희는 여성국극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다. 여성국극단은 1960년을 전후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5 · 16 이후 민족적 민주주의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기존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외에 국립국극단을 더 두게 되었다. 박귀희는 국립국극단 창단을 앞두고 자격있는 국극인을 양성하는 국극요원양성소 개설을 거론할 정도로 국극단 창단에 음양으로 기여를 하였다. 국립국극단은 1973년부터 국립창극단으로 바뀌는데, 이때 박귀희는 단장(1980~1982)을 맡았다.

1960년대 들어 문화의 소용돌이가 거세지자 박귀희는 일본 교포 위문공연으로 돌파구를 찾기도 했다. 일본에서 고생하며 살던 교포들에게 우리 음악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풀어내기에 안성마춤이었고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박귀희는 잘 알아차렸다. 1961년 일본 거류민단장 박수정의 제의에 따라 동경에 무악원을 세웠다. 강사는 박귀희를 비롯하여 민요에 안비취, 가야금에 문경옥, 장고춤에 강문자, 민속무용에 이춘자 등 5명이었고 박귀희는 운영 대표 겸 판소리를 가르쳤다. 동경 무악원은 무려 17년간이나 운영된 뒤 1979년에 문을 닫았다. 공연은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서독, 베네수엘라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시켰다. 국내에서도 가야금 병창활동을 62회나 펼쳤다. 전통예술에 대한 국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박귀희는 제23호 가야금 병창 문화재로 지정받았다. 1968년의 일이다.

어릴때부터 명민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박귀희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도 빨라 민족음악의 새 장을 여는 흐름에 항상 같이하고 있다. 1972년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영화 「효녀 심청」에 박귀희는 영화음악으로 참여하여 「심청가」 일부 대목을 불렀다. 향년 72세를 일기로 타계 할 때까지, 호남

세가 주류인 국악계에서 드물게 영남맥을 이어내었다.

평생 소리를 하면서 번 돈을 국악계의 앞날을 위해 선뜻 내놓았던 박귀희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교육과 민요수집 작곡 악보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예는 도이다

박귀희의 소리는 1950년대에 취입한 유성기 음반부터 1993년 작고 직전에 녹음한 콤팩트 디스크까지 다양하게 남아있다. 박귀희의 자서전 『순풍에 돛 달아라 갈길 바빠 돌아간다』에 따르면 60년대말부터 민요 채집을 구상했고, 이를 국악예술학교 교장이던 박헌봉에게 알렸다. 두사람이 먼저 뜻을 맞추고, 아시아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전국 각지에서 모은 전승민요를 문화재관리국에 기증하였고, 박귀희는 1979년 『향사 가야금병창곡집』을 출판하게 되었다. 50여곡이 실린 『향사 가야금병창곡집』은 지금까지도 가야금 병창을 배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교본이다. 종전까지 입으로 전하여 주고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구전심수口傳心授 방식에서 벗어나서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혼자서도 마음만 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교본으로 만든 것이다. 흔히 민요가수들이 부르는 「꽃타령」,「뽕따러 가세」,「옹헤야」 등은 박귀희에 의해 만들어져 불려지고 있다.

예藝에 산다는것은 험난하다. 예를 도道로 닦기에는 더 힘이 든다. 그런 예도의 길을 박귀희는 걸어왔고 역사 속에 살아남았다. 소리꾼으로서는 동편제의 법통을 이어받은 유성준의 제자로서 동편제에 속한다 할 수 있으며, 가야금 병창으로는 고종 때 가야금 명인인 박팔괘의 정통 가야금 병창의 맥을 이어온 오태석의 제자로서 법통을 이어받았다. 또한 판소리와 창극 그리고 여

성국극 발전에도 큰 자취를 남긴 박귀희 명창은 평생을 국악살리기에 투신했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향사 박귀희 추모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김덕수는 사람이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다수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확인했다. 나는 박귀희 선생님을 통해 전통을 어떻게 후대에 전승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가능성을 보고 배웠다 고 밝히고 있다.



한국 국악의 대모 박귀희를 낳은 칠곡은 향사 박귀희 추모사업으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박귀희 명인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은 2012년 향사 박귀희 명창 뮤지컬(연희창극)을 제작 · 발표하고, 전국가야금병창대회도 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칠곡군에서 호국평화공원과 연계하여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을 건립하여 국립전통예술고 유품전시관으로부터 유품을 확보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평생을 국악발전에만 쏟은 국모 박귀희가 있었기에 우리 국악은 체계를 잡고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국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초석을 다진 향사 박귀희의 숭고한 예술정신은 날이 갈수록 그 향기가 더해지리라.



평생을 민족음악 발전에 바친 박귀희 추모물결은 공연, 세미나, 뮤지컬 등으로 다양하게 일고 있다.



이영도

현대시조 불멸의 탑
이영도

잊지못할 여성 시조시인

정운丁芸 이영도李永道(1916.10.22~1976.3.6) 시인은 가정적이면서도 민족적이었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한 채 휘둘리지 않았다. 궁핍하면서도 강건하게 살았고,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인생살이에서도 늘 올곧게 걷고 사고하려 노력했다. 여성이면서도 한국 현대 100년 시조사에 영원히 남을 불멸의 시조를 남겼다.

조선시대에 황진이가 있다면, 현대사에는 이영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지로 물살을 되돌리려 하지 않고 물흐르듯이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도 계속 흐르기를 멈추지 않아 썩지 않았다. 오히려 순리를 따라 흐르되 자정능력에 의해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흘렀다가 결국 한국 시조사의 바다에 영원히 스러지지 않을 큰 족적을 남겼다.

곱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삶과 문학, 인간성과 작품성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룬 보기 드문 문인이었다. 문인이었지만 여성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글운동을 가는 곳마다 펼쳤고,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초의 여성단체인 꽃무리회와 어머니 시조동인 모임인 달무리회는 이영도가 여성적인 글쓰기를 위해서 만든 단체이다. 꽃무리회는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첫 회원단체로 아직 활동하고 있다.

이영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었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고, 한국 현대시조에 영원히 남을 「보리고개」, 「달무리」 등 작품을 남겼다. 독학으로 쌓은 한문과 문장실력, 자수실력으로 중등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마지막에는 중앙대학교 강단에까지 섰다. 흔히들 여교사에게는 제자가 없다고들 하지만 민병도 등 이영도의 제자들은 그의 추모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 고향 청도에 오누이 공원을 만들고, 오누이 시비를 세우고, 오누이 문학기념관을 만드는 운동을 옹골차게 추진하고 있다. 청도를 살리는 문

청도 이영도 시비



화브랜드가 바로 이영도 · 이호우 오누이 문인이다.

이영도는 작품은 물론 행신이나 자녀교육 어느 한면으로도 흠잡을게 없다. 결혼 이후 불어닥친 역경도 군말없이 헤쳐나갔으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여러 차례 전셋집을 돌아다녀도 의연했다. 군수이던 친정아버지에게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냥 묵묵하게 감당했고 비통해하지 않았다. 물질이 결코 정신의 자유를 묶어둘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내핍생활을 했고, 인고의 세월을 말없이 견뎌왔다. 몸이 고달파도 청초함을 잃지 않았고, 가족과 시와 민족을 사랑하는 큰 모습을 보였다. 이영도는 만년에 결혼한 딸과 함께 살았다. 딸 하나를 키우면서 수절했고,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홀로 떨어져 살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병든 몸으로 교단에 섰다. 예고없이 찾아든 제자가 헌 속옷을 깁는 스승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외딸의 유학까지 주선한 개방적인 어머니였지만, 그 딸을 위해서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태연자약할 수밖에 없는 엄마 이영도의 처지가 눈물겹게 다가온다.

청도 이호우 시비



모란이 지고 수련이 피는 연못가에 앉으면 그 꽃 사이로 유학 간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국의 엄마 품을 그리워할 딸을 생각하며 가슴 태우는 어미이지만 그 가슴 저림을 안으로만 삭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시조로 승화시켰다.

6 · 25 전쟁중에는 서울로 공부하러 보낸 딸의 생사를 몰라 몇 달간 속이 숯검정이 되도록 타들어갔다. 딸을 좀더 좋은 학교에 보내서 개성있는 교육을 시켜보려는 일념에서 이영도는 재직하던 통영여중에 딸을 데려오지 않고 멀리 서울 이화여중으로 보냈다. 이종언니를 따라 서울 생활을 떠난 딸과 6 · 25가 터지면서 석달간 소식이 끊기는 생지옥도 경험했다.

늘 병약했던 정운은 오빠 이호우가 1970년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고 난 지 얼마있지 않아서 딸에게 유서를 썼다.

> "진아! 내 사랑하는 딸아! 1971년 11월 7일 새벽 1시에 엄마가 네게 마지막 부탁을 쓴다. 엄마 죽은 뒤에 울음을 삼가고, 엄마가 소속한 교회에 기별해서 「주 날개 밑에 내가 쉬며」를 불러주도록 부탁하고, 진아 너도 울음 대신 이 찬송으로 엄마의 마지막 영혼을 축복해다오. 일체의 세속적인 형식을 떠나서 화장하여 뼈는 깊은 산속 계곡에 띄워다고...다만 엄마의 작품을 묶어 전집을 깨끗하게 마련해주고. 관은 향그로운 꽃으로 묻어 보내다오. 오직 하나인 내 혈육 진아의 행복을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빌며 지낼 것이다."
>
> 「새벽에 쓰는 유서」 중에서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 이영도는 유학시절 딸이 보내준 용돈으로 장만한 수의를 입었을 것이다. 대학교 수예선생인 K여사와 함께 수의를 만들면서 이영도는 수필 「수의」에서 이렇게 썼다.

"너무나 애달픈 생애였기에, 너무 아프게 살아온 목숨이었기에, 너무 슬픈 애정을 감당하며 견뎌온 여인이었기에 나의 하느님께선 더욱 가까이 불러 주실 것이라 믿어진다. 뜨거운 눈물이 빙 돌아난다. 무언가 한아름 지나온 세월이 가슴을 메우며 그 숱한 가시밭길도 이제 종점이 바라뵈는 그 고갯마루에 선듯 일종의 안도감으로, 흡족해서 일어나는 마음, 곧 뜨거움인지도 모르겠다. 다 지은 옷가지를 다림질하여 챙기니 외투 한 벌의 부피보다 가볍다. 인생 한평생의 마지막 옷차림으로는 지극히 초라한 이 수의가 오늘의 내게 있어선 어쩌면 이토록 고맙고 만족스러울까?

영혼의 충족!

이 옷에는 혈육의 애정이 담겨 있고, 이 옷은 고운 우정의 손끝에 지어졌고, 이 옷을 입고 갈 그곳 은 영원의 안식처요, 슬픔도 외로움도 배신도 없는, 그리고 원통함도 없는 오직 낙원으로 행차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의」 중에서

만년에 사위와 함께 살던 이영도는 딸과 외출하고 돌아와 오른쪽 버선을 벗



청도 이영도 생가 〈출처 : 『보리고개』 이영도 시조전집(목언예원, 2006)〉



청도 이영도 생가터 새집

다가 아이고 머리야 한마디를 외치고는 뒤로 넘어져 혼수상태에 든지 하룻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딸이 유학하던 1966년에도 내출혈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 중년시기 늘 건강문제로 가슴 졸이며 살던 터였다. 뇌출혈로 쓰러지던 날도 이영도는 무엇에 홀린 듯 딸과 여러곳을 다녔다. 마치 죽기 전날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을 예감이나 했듯이 무리한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집 2층 거처로 올라가자 마자 쓰러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영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이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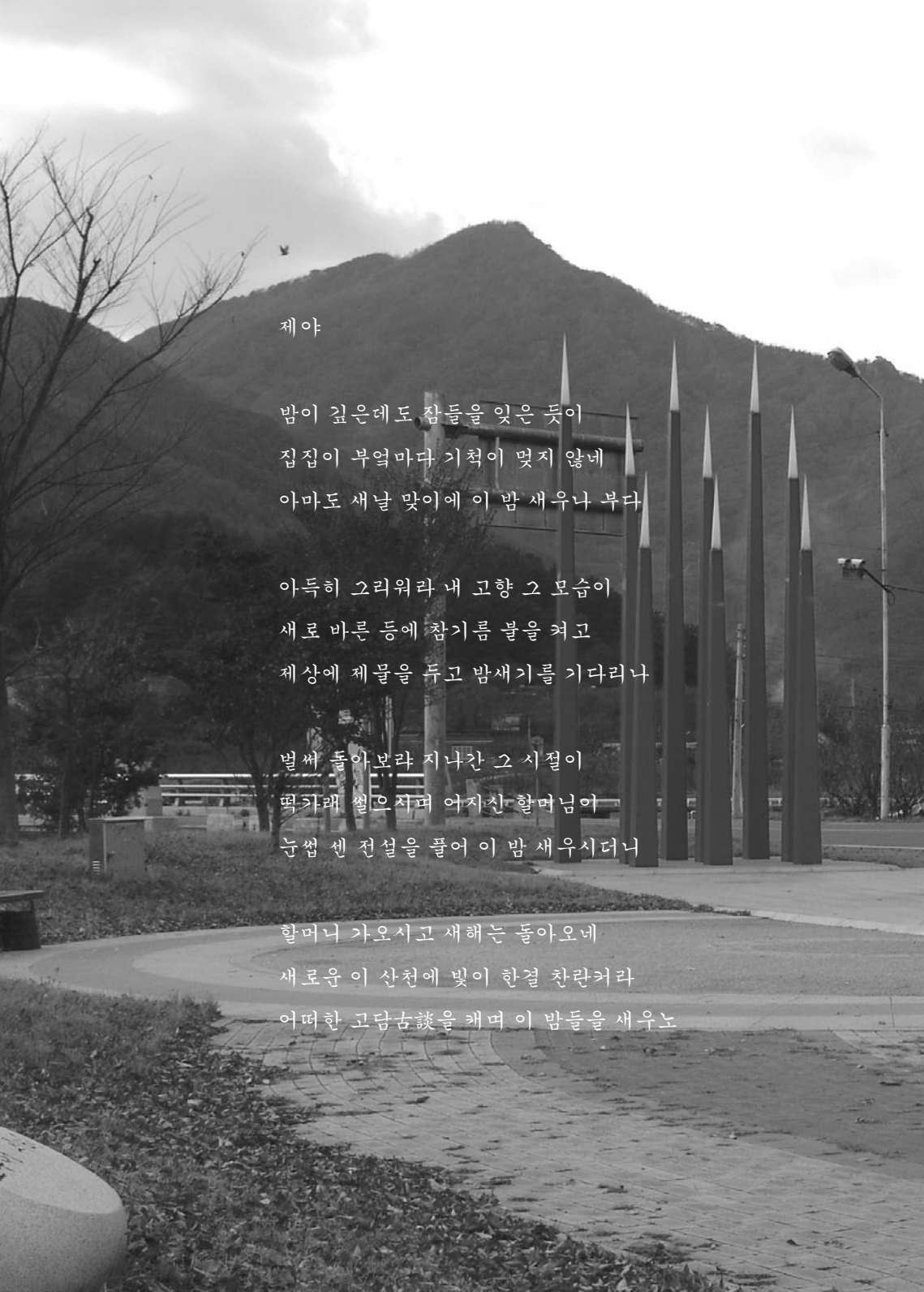


집안에서

이영도는 1916년 10월 22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현재 청도읍) 내호동 259번지에서 선산군수였던 아버지 이종수와 어머니 구봉래 사이의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시인 이호우가 친오빠이다. 이영도는 1924년 밀양보통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할아버지(이규현)가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서 세운 의명학당에서 공부했다. 오늘날 경북여고 전신인 대구여고보에 다녔으나 중퇴하였다. 최종학력이 보통학교 졸업인 이영도는 말년에 중앙대 교수까지 훌륭하게 해낼 정도로 인격과 품위와 문학정신을 인정받았다. 이영도 친정 가계의 의명학당은 한일합방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속세를 등진 증조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할아버지가 동네 인재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 양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립학교였다.

열 아홉 살이던 1935년 대구시 인교동의 부호 박기주朴基澍와 결혼하여 이듬해인 10월 10일 외동딸 박동지(나중에 박진아로 개명)를 낳았으나 남편이 해방을 며칠 앞둔 1945년 8월 10일 위궤양으로 사망해버렸다. 결혼 9년만인 나이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에 청상이 된 것이다. 대구 부호로 손꼽히던 시댁은 시아버지의 방종과 남편의 이른 죽음으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이영도는 좌절하지 않았다. 홀몸으로 딸 동지를 키우면서 1945년 첫 시조 「제야」를 써서 이듬해 『죽순』 창간호에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제야

밤이 깊은데도 잠들을 잊은 듯이
집집이 부엌마다 기척이 멎지 않네
아마도 새날 맞이에 이 밤 새우나 부다

아득히 그리워라 내 고향 그 모습이
새로 바른 등에 참기름 불을 켜고
제상에 제물을 두고 밤새기를 기다리나

벌써 돌아보랴 지나간 그 시절이
떡가래 썰으시며 어지신 할머님이
눈썹 센 전설을 풀어 이 밤 새우시더니

할머니 가오시고 새해는 돌아오네
새로운 이 산천에 빛이 한결 찬란커라
어떠한 고담古談을 캐며 이 밤들을 새우노



오누이 공원

이듬해인 1946년에는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등이 근무하던 통영여고 가사 선생으로 부임했다. 고향을 떠나 통영에서 생활하던 그는 폐침윤 발병으로 마산결핵요양원에서 휴양을 했고, 이 무렵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대대로 불교집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용각산에 대운암이라는 암자를 지어 속세를 등졌다.

가정을 등한시 하는 아버지를 대신한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불공도 드리러 다녔다. 그렇게 불교집안에서 자란 이영도가 하루 아침에 종교를 바꿨다. 1946년 5월 마산 결핵요양원 시절에 만난 허드렛일 하는 여성에게 받은 감화 때문이었다. 40대의 그 여성은 마산 결핵요양원의 환자들이 아픈 사람 특유의 트집을 부려도 늘 웃는 얼굴로 기도하고 헌신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하는 여성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다.

1967년 서울 마포구 하수동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부산 온천장 소정교회에 다녔다. 5~6년간은 집사로서 겸손한 자세를 지녔으며, 공식 모임에서는 발언 한번 하지 않았다. 여류명사이지만 겸양의 미덕을 지녔던 것이다. 이 교회에 이영도는 조명등과 설교상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영도의 작품에는 대대로 불도가 강한 집에서 자란 영향으로 불교 사상과 병을 앓으면서 선택하게 된 기독교적 정신 그리고 한국문화를 지배하는 유교주의가 골고루 스며있다.

이영도에게 시조는 생명이자, 의지처요, 변함없는 기둥이자 삶의 중심이었다. 『청저집』 책머리에서 이영도는 따로 하늘 창창한 그리움이 있어 황홀한 무지개를 엮어 가다가도 그냥 자꾸 서럽기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성품인가 봅니다. 이 분하고 슬픈 동경이 무슨 증세처럼 알려질 때 이 시조를



『머나먼 사념의 길목』을 낼 무렵의 이영도



1994년 부산 금정산공원에 세워진 이영도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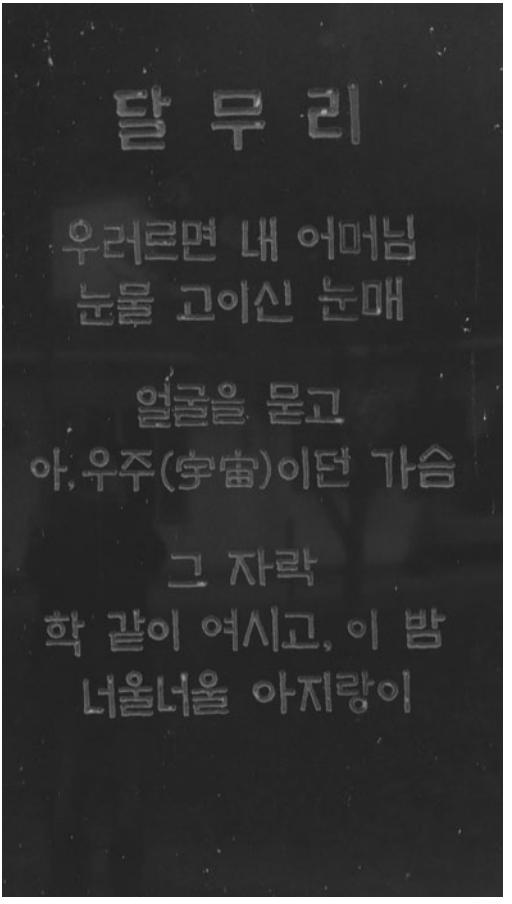
써온 것이니 하잘 것 없는 노래쪽인들 그대로 호젓한 생애의 반려요 의지였다 고 적고 이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저의 안에 숨쉬는 온갖 애환을 일일이 들추어 남 앞에 호소하는(하략) 이라고 적고 있다.

살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영롱한 진주를 낳기 어려운 조개처럼 이영도는 앓으면서 시조를 썼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도 시조로 녹여냈다. 시조는 그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의지처였다. 시조와 함께 그는 올곧게 걸어갔다.

1955년 폐침윤이 다시 발병하여 이영도는 휴양을 겸해서 마산 성지여고로 자리를 옮겼다. 전에 남성여고 교사로 부임하면서 살던 집을 수연정水然亭이라 불렀다면 이곳에서 살던 집의 당호는 계명암 이다. 이미 크리스천이 된 뒤라 당호에 신앙적인 뉘앙스가 스며있다. 남다른 성실성과 근면성 그리고 책임감이 강했던 이영도는 1963년에는 부산 어린이집 관장을 역임하며 어린이들을 화초 돌보듯이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보았다. 시조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또 후학들에게 가르쳐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부산지역 여성들의 계몽과 문학운동을 겸한 여성운동도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 이때 「전지를 하며」라는 수필을 쓰기도 했다. 일년 뒤 부산여대 강사로 취임하면서 동래 온천장 부근에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애일당으로 당호를 바꿨다. 애일당에서 이영도의 시조 창작은 더 왕성해졌다.

부산광역시 최초 여성단체 꽃무리회 결성

부산에 자리를 잡은 정운 이영도는 1954년 첫 시조집 『청저집』을 발간했고, 1958년 첫 수필집 『춘근집』을 발간했다. 2년 뒤에는 어머니 시조



청도 이영도시비에 새겨진 대표작 「달무리」

모임인 달무리회와 꽃무리회를 결성했다. 당시 부산 여성들 사이에는 이영도처럼 시조를 잘 쓰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영도에게 시조를 배우기 위한 단체들이 생겨났다. 바로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첫 여성단체로 등록된 꽃무리회의 탄생이다.

스물아홉에 혼자가 된 정운은 첫 직장에서 운명적인 조우를 했다. 청마 유치환이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통영여고는 문화여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문학 예술인들이 많이 근무했다. 작곡가 윤이상이 있었고, 화가 전혁림이 있었으며, 시인 유치환이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민병도(청도시조공원추진위원장, 민병도 갤러리 대표 겸 시조 시인)가 스승 이영도에게
선물받은 한복. 대구달성공원 향토역사관 소장.

청마와 정운의 성결한 사랑의 편지와 20년간의 지고지순한 우정사는 정운의 통영여고 부임으로 시작된다.

아이는 글을 읽고
나는 수(繡)를 놓고
심지 돋우고
이마를 맞대이면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간 듯 들렸다

-「단란」 전문

한복을 즐겨입던 이영도의 옷맵시는 곱게 땋아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와 썩 잘 어울렸다. 아름답다는 표현만으로는 싱겁기 그지 없는, 아니 부족한 단아함과 격조가 배어있었다. 생전에 제자인 민병도에게 선물한 보라색 수가 놓인 한복 한 벌은 대구 달성공원 내 역사유적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영도가 사는 모습은 깔끔하고 단정했다. 무엇하나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고, 찻잔 받침이나 그릇받침도 손수 만들어 썼다. 시조 「단란」에서는 어린 딸과 단 둘이 사는 처소에 밤이 들어 심지 돋워 불을 켜고 정겨운 호롱불 아래서 어둠을 애정으로 누르며 나누는 모녀지간의 애잔함이 스며있다. 정운은 수를 놓고 아이는 글을 읽는, 청상의 슬픔과 외로움이 어둠 한켠에 내려앉지만, 등잔불빛을 타고 번져가는 모녀의 곱고 따스한 정이 단란함을 던져준다. 20대 막바지에 이른, 청상의 이 아름다운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연민을 불러일으켰을까?

이영도는 청마와 운명적인 조우 이후 5천여통의 편지를 받았다. 청마가 1967년 2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후 이영도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간집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를 출간했다.



청도 이호우 · 이영도 생가는 등록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다.

갑자기 하늘의 별로 돌아간 정운

1976년 3월 5일, 이순에 접어들고도 여전히 고운 자태가 눈부신 이영도가 노산 이은상을 찾았다. 이영도는 노산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시를 얘기했다. 이영도의 평생 동반자는 시가 아니던가. 시가 연인이었고, 시가 사랑이었고, 시가 정운 이영도의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았던가. 평생 시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이영도는 손수 쓴 원고 뭉치를 노산께 보여드리며 새로 낼 시조집 서문을 부탁드렸다.

노산은 정운의 식지않는 시 정열을 격려하면서 쾌히 승낙했다. 이영도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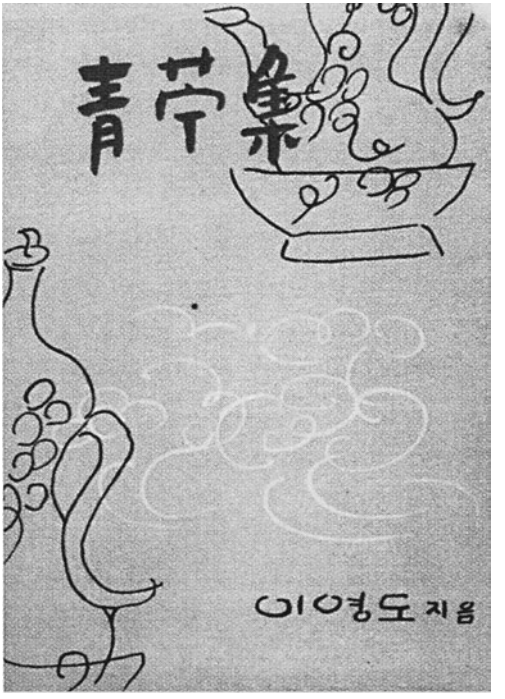
벼운 발걸음으로 노산과 헤어졌다. 이번으로 몇 번째 시조집인가. 1954년에 낸 첫 시조집 『청저집靑苧集』, 오빠 이호우랑 같이 발간한 오누이 시조집 『석류』에 이은 세 번째 시조집과 수필집을 낼 원고였다. 원고 뭉치는 정운 특유의 정갈함과 정겨운 필체가 어우러져 뭔가 소중한 느낌을 담고 있었다. 원숙기에 접어든 정운이 얼마나 주옥같은 작품들을 내놓을텐데 한국 문학계의 크나큰 상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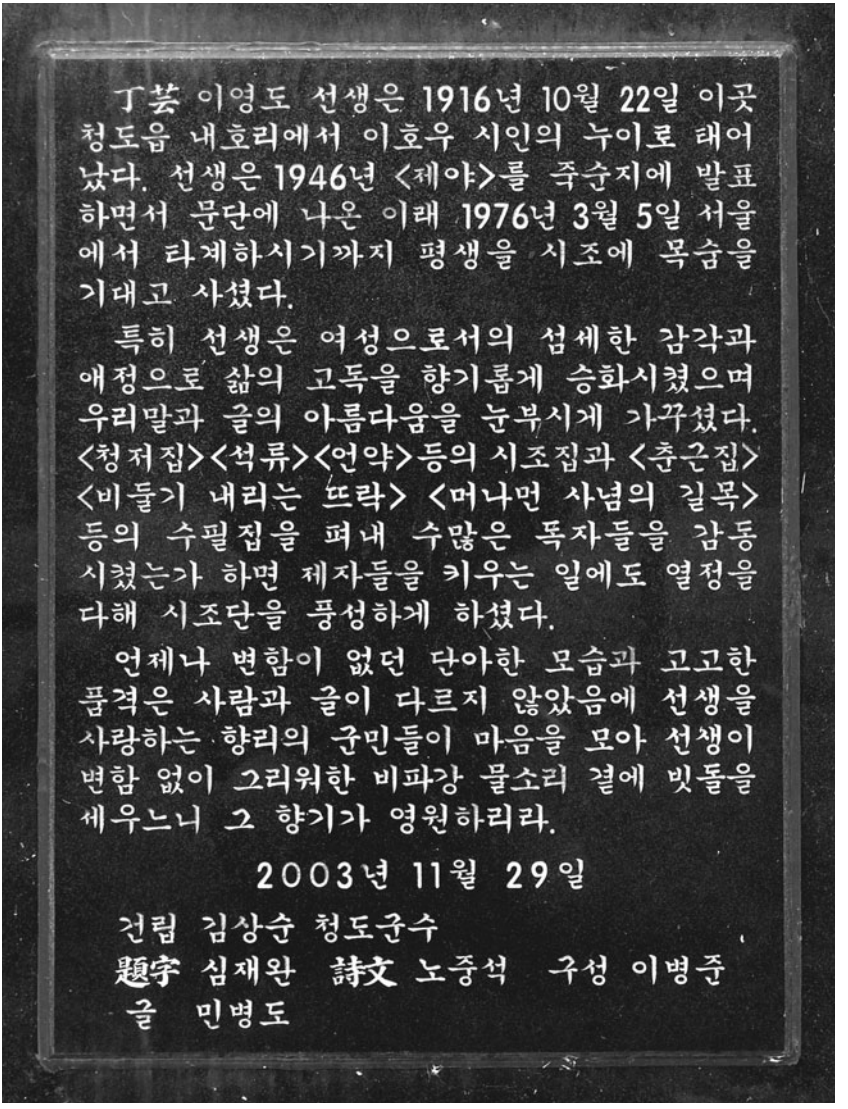
이호우 · 이영도가 태어난 청도 내호리는 신인의 마을로 존경받고 있다.

장모님이 위독하여 세브란스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영도 시인에 대한 급보를 전해들은 박시교 등이 급하게 세브란스로 달려갔다. 이영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문학적으로도 확고한 위치를 굳혔고, 수많은 문인들이 엄마 라고 따를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던 이영도의 급작스런 죽음은 너무 예상 밖이었다. 1976년 3월 8일 이은상 시인을 장례위원장으로 한 문인장이 치러졌다. 김동리,



이영도 첫 시조집 『청저집靑苧集』


丁芸 이영도 선생은 1916년 10월 22일 이곳 청도읍 내호리에서 이호우 시인의 누이로 태어났다. 선생은 1946년 〈제야〉를 죽순지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온 이래 1976년 3월 5일 서울에서 타계하시기까지 평생을 시조에 목숨을 기대고 사셨다.

특히 선생은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감각과 애정으로 삶의 고독을 향기롭게 승화시켰으며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가꾸셨다. 〈청저집〉〈석류〉〈언약〉등의 시조집과 〈춘근집〉 〈비둘기 내리는 뜨락〉 〈머나먼 사념의 길목〉 등의 수필집을 펴내 수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는가 하면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도 열정을 다해 시조단을 풍성하게 하셨다.

언제나 변함이 없던 단아한 모습과 고고한 품격은 사람과 글이 다르지 않았음에 선생을 사랑하는 향리의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 선생이 변함 없이 그리워한 비파강 물소리 곁에 빗돌을 세우느니 그 향기가 영원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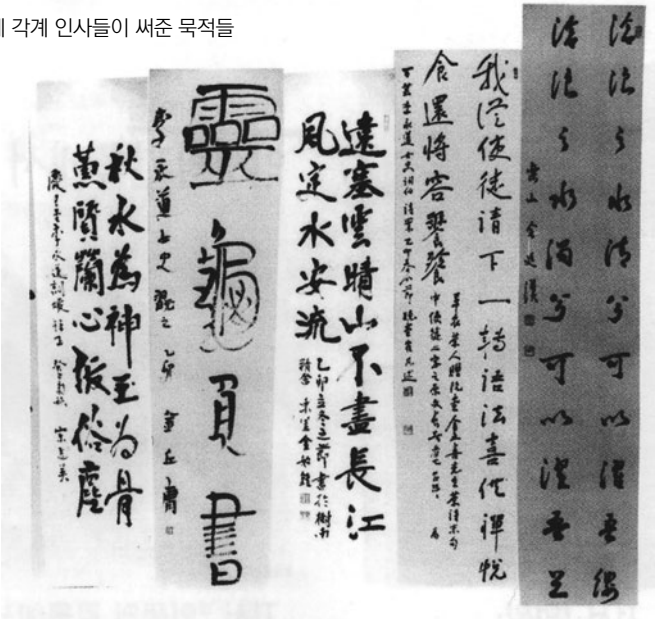
2003년 11월 29일

건립 김상순 청도군수
題字 심재완 詩文 노중석 구성 이병준
글 민병도

이영도의 청도 고향마을에 세워진 시비 달무리 뒷면 비문.

김상옥, 손소희, 전봉건, 김남조, 백낙청, 고은, 신경림 등 문인들이 이영도의 마지막 길을 지켰고, 이근배 시인이 조사를 했다. 박시교가 접수를 맡았고, 이영도는 경남 밀양군 상동면 고정리 산 31번지 선영에 안장됐다. 이영도의 유택은 유년시절 오빠 이호우와 어릴 적 알밤을 줍던 부엉덤에 마련됐다. 부엉덤은 부엉이가 부엉부엉 운다고 해서 불렸던 고향 산이다. 집밖으로 떠돌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손녀 이영도의 손을 잡고 다니며 돌봐주던 할아버지가 심었던 밤나무가 영면의 길에 접어든 이영도를 안타까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추석 때 후손들이 성묘를 오면 자손들이 따먹고 놀 과일이라도 있어야한다는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심어둔 밤나무가 이제 막 봄눈들을 틔우는 3월의 부엉덤에 이영도는 묻혔다. 강하고 단아한 이영도는 그렇게 이승을 떠났다.

이영도에게 각계 인사들이 써준 묵적들



| 경북여성인물사 |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 경북여성인물 유적지 현황
- 경북여성 인물별 연보
- 참고문헌



제1장 여성, 리더십을 찾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선덕여왕	선덕여왕릉 	사적 제182호	경주시 보문동 산 79-2번지	신라최초의 여왕이자 27대왕인 선덕여왕의 능은 경주시 남동쪽에 있는 낭산의 남쪽 사면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직경 24m, 높이 6m인 원형봉토분이며, 자연석을 이용해 봉분 아래에 2단 보호석을 쌓은 것이 특징이다. 십이지상 조각이 있을 위치에 큰 돌들이 세워져 있다.
	사천 왕사지	사적 제8호	경주시 배반동 935-2	선덕여왕이 죽기 전에 세워질 것을 예견했던 절이다.
	첨성대	국보 제31호	경주시 인왕동 839-1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신라시대 천문관측대로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분황사 석탑 	국보 제30호	경주시 구황동 313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634년)에 신라 호국사찰로 건립되었다. 자장과 원효가 주지로 있었다. 분황사내 유물로는 모전석탑 이외에 보물 강고의 작품인 약사여래상, 솔거의 관음보살 그림, 원효의 소상, 호국룡이 살고 있었다는 석정, 김정희의 각자가 들어 있는 화쟁국사비의 비석 돌받침 등이 유명하다.
	분황사 석정	경북 문화재자료 제9호		
	화쟁국사 비부	경북유형 문화재 제97호		
	황룡사지 	사적 제 6호	경주시 구황동 320	황룡사에는 선덕여왕 14년 3월에 건립한 목탑이 있었다. 탑의 크기는 철반 이상의 높이가 42척, 그 밑이 183척으로 모두 225척(약 70m)이었다. 실측에 의하면 탑지塔址에는 한 줄 8개씩 합계 62개 거대한 초석이 있어 4면 7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석과 심心의 거리가 약 3.1m이므로 따라서 탑의 한 변은 22m였다. 애석하게도 몽고 침략시(고종 16년) 소실되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선덕여왕	영묘사지 (현 흥륜 사지)	사적 제15호	경주시 사정동 281-1	선덕여왕대(632년)에 세워진 영묘사靈廟寺는 전쟁터에서 숨진 신라 청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절로 두두리효효里(도깨비)들이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워 세웠다고 한다. 영묘사의 위치는 1980년대 새로 지은 현재의 흥륜사에서 '영묘사'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덕여왕 때 창건된 영묘사터로 추정하고 있다.
	여근곡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경주 서편 부산富山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선덕여왕이 이 곳에 백제병사가 숨어 있음을 예견한 일화가 있다.
진덕여왕	진덕 여왕릉 	사적 제24호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경주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진 구릉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신라 제28대 진덕여왕의 무덤. 흙으로 쌓은 봉토 밑으로 판석으로 된 무덤의 보호석을 돌리고 판석과 판석 사이에는 방향에 따라 능의 수호를 위해 12지신상을 새겨 배치했다. 1975년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했다.
진성여왕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	경주시 인왕동 387-1	월성은 신라 궁궐이 있었던 도성. 『삼국사기』에 의하면 파사왕 22년(101)에 성을 쌓고, 금성에서 이 곳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전해진다. 문무왕 때 안압지 · 임해전 · 첨성대 일대가 편입되어 성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성 안에 신라시대 건물터가 많이 남아있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진성여왕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일정로 118	1913년에 건립된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문화의 보물창고로 불리고 있다. 국보 13점, 보물 29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숭복사에서 옮겨온 쌍귀부와 비석의 일부가 있다. 비석은 일부만이 남아 전체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치원이 지은것으로 알려진 비문에는 경문왕과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헌왕후	청송도호부 객사인 운봉관과 소헌공원	시도유형 문화재 252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청송은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의 관향으로, 아들인 세조가 즉위 5년째 되던 해인 1459년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현재 청송군에서는 소헌왕후를 콘텐츠로 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송 도호부 객사인 운봉관과 누각 찬경루를 복원하였고 그 일대를 소헌공원으로 확정하였다.

제2장 일상을 역사로 만들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	경당고택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조선중기의 대학자인 경당 장흥효의 종택이자 정부인 안동장씨가 태어난 곳이다.
	광풍정	경북 문화재 자료 제322호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광풍정은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천등산 남쪽 거대한 자연 암석 아래에 있는 정자로 조선중기 대학자 경당 장흥효가 300여 문인에게 강학하던 곳이다. 1996년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322호로 지정되었다. 제월대는 경당고택 남쪽에 경당이 지은 대臺이다. 매일 공부를 마치면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예를 가르치며 소요한 장소였다.
	제월대			
	정부인 안동장씨 시비 		안동시 안동댐 잔디공원	경북 안동시 안동댐 잔디공원에 세워진 정부인 안동장씨의 경신음 시비.
	단고서당		안동시 풍산읍 수곡2리	단고서당은 정부인 안동장씨의 남편인 석계 이시명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본래 율곡면 미질동(돈바들마을)에 있었으나 수몰 후 현재의 풍산읍 수곡2리(매일마을)로 서당건물과 석계이시명의 비각이 있는 사당을 이건하였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	정부인 안동장씨 묘소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정부인 안동장씨 묘소. 석계 이시명의 묘소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석계고택 	시도민속 자료 제 91호 (영양)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조선 인조, 현종 대의 학자인 석계 이시명의 옛 집. 이시명과 정부인 안동장씨가 살던 집으로 정부인 안동장씨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석천서당 	경북 문화재자료 제79호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석계 이시명이 1640년 여러 아들과 석보에 와서 중대 위에 터를 잡아 석계초당을 지어 벼슬도 하지 않고 14년간이나 임시로 살던 곳이다. 서당고에는 안릉세전, 석계선생문집, 정부인안동장씨실기, 정묵재선생문집, 항재선생문집, 영천집 등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정부인 안동장씨 유적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정부인 안동장씨의 학문과 예술, 자녀교육에 대한 전범典範을 기리기 위하여 1989년 10월에 건립하였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	정부인 안동장씨 예절관과 유물전시관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	정부인안동장씨예절관과 유물전시관은 2005년 10월 29일에 건립되었다. 정부인 안동장씨예절관은 300㎡ 터에 강당 및 주방, 전시관, 문간채 등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인 안동장씨가 남긴 음식디미방의 조리법을 재현 · 체험하는 곳이다. 청소년, 대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절관 왼쪽에 유물전시관에는 정부인 안동장씨가 남긴 그림과 글씨, 책을 볼 수 있다. 정부인 안동장씨는 맹호도 1점과 시 12편, 서간 2편을 남겼다.
	충효당	중요민속 자료 제168호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정부인 안동장씨의 셋째아들 갈암 이현일이 태어난 곳이다. 충효당은 조선 성종때에 재령이씨의 입향조인 이애가 지었는데 지금 있는 건물은 본래 있던 곳에서 뒤쪽으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갈암종택	시도기념물 제84호 (영덕)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원래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던 것을 임하댐 건설로 인해 정부인 안동장씨의 셋째 아들인 갈암 이현일의 태실이 있었던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오촌리 갈암고택	문화재 자료 제399호 (영덕)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29	갈암 이현일이 임진왜란 뒤 조선 현종 14년경에 지은 집이다. 퇴계의 학통을 이어 받아 이현일이 학문을 익혔던 집으로 그 학행과 정신을 엿볼수 있다.

제3장 여성,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남자현	남자현 생가터 	현충시설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94	46세에 만주로 망명하여 의열투쟁을 펼치다 순국한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생가이다. 영양군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원래 생가 터인 393-5번지 바로 옆에 복원하였다.
김락	백하구려 	경북 기념물 제137호 현충시설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57	독립운동가 김락의 생가이다. '백하'는 큰오빠 김대락의 호號이다. 이 집은 안동지역 애국계몽운동의 요람인 협동학교 교사로 활용되었고, 6명의 독립유공포상자가 나온 곳이다. 국가보훈처에서 그 뜻을 기려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향산고택 	시도 민속자료 제9호 현충시설	안동시 안막동 119	김락의 시가이다. '향산'은 시아버지 이만도의 호이다.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1976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하계마을 기적비	현충시설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하계마을은 김락의 시가가 있던 곳이다. 퇴계 이황의 손자 이영도의 후손들이 살았으며, 25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온 마을이다. 안동댐 건설로 마을의 흔적은 사라지고, 마을 어귀에 그 뜻을 기려 기적비를 세웠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김락	김락묘소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독립운동가 김락의 묘소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현충시설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0	임하면 천전리 옛 협동학교 자리에 건립되었다. 1894년 갑오의병에서 1945년 안동농림학교 학생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벌인 항일운동의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기념관이다.
김우락 허 은	백하구려	경북기념물 제137호 현충시설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57	이상룡의 부인 김우락의 친정집이다. 동생 김락의 생가이기도 하다.
	왕산 기념관	현충시설	구미시 임은동 산7번지	허은의 재종조부 왕산 허위를 기리기 위해 2009년 건립한 기념관이다. 기념관이 자리한 임은동은 허은이 태어난 곳이다.
	임청각	보물 제182호 현충시설	안동시 법흥동 20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김우락과 허은의 시가다. 김우락과 허은은 만주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가족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보필하였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이해동	이해동 생가터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일송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의 생가터이다. 이곳은 1910년 나라가 멸망하자 향산 이만도가 단식 순국한 집이기도 하다.
	김동삼 생 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8	이해동의 시가이다.
강경옥	풍산시장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강경옥이 활동했던 풍산소작인회가 있던 시장이다.
권 성	닭실마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남편 이명우와 함께 자결 순국한 권성의 고향마을이다. 이 마을은 권세연 · 권상익 등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이명우집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권성의 시가 이명우의 집이다. 안동댐 건설로 본래의 위치에서 조금 높은 곳으로 옮겼다.

제4장 여성, 새로운 길을 밝히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김설보	여인의 숲 및 여인의 숲 기념비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	2003년 포항의 노거수회 주도로 김설보의 공덕을 새롭게 기리고자 숲의 이름을 '여인의 숲'으로 짓고, 여인의 숲 기념비를 새롭게 건립했다.
최송설당	김천고등학교와 정걸재 터, 취백헌		김천시 부곡동 777	최송설당이 세운 학교와 그녀가 머물던 집터 및 집.
	송설 역사관 			개교 77주년을 맞아 송설학원의 창립자인 최송설당을 기리기 위해 2008년 8월 31일 김천고등학교내에 설립되었다.
	최송설당 동상			1935년 11월 30일 조각가 김복진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1942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징발당했다. 해방 후 다시 제작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최송설당 묘소		김천시 부곡동 777	최송설당 묘소는 학생들을 굽어보는 학교 뒷산에 위치해 있다.
	청암사와 최송설당 비석		김천시 중산면 평촌리 688	전국 각지에 최송설당의 공덕비를 세운 절이 많이 있다. 그 중 김천 청암사에 있는 공덕비이다.

제5장 여성, 예술을 탐하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백신애	백신애 문학비 		영천시 교촌동 시민운동장 내	백신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 백신애기념사업회와 영천시가 영천 시민운동장 내에 건립한 문학비이다.
	백신애 생가터, 백신애길		영천시 창구동 농협중앙지점 앞	현재 백신애가 살았던 생가는 없고 영천 창구동 농협중앙지점 맞은편에 생가 터만 남아 있다. 영천이 낳은 근대 여성작가 백신애를 그리기 위해 농협 영천중앙지점앞 '서문길'로 붙여진 도로 명을 생가 터인 창구동을 중심으로 '백신애길'로 조성하였다.
	백신애 표지비 		영천시 창구동 조양각 경내	백신애 표지비는 국내외에서 항일운동을 하며 「꺼래이」 「적빈」 「아름다운 노을」 등의 작품을 남긴 여성 최초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가 백신애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우리문학 기림회에서 세웠다.
박녹주	박녹주 기념비		구미시 선산읍 노상1리 중앙교회 옆 어린이 놀이터 내	1981년 9월 20일 박녹주의 업적을 간직하고자 김소희, 박송희, 한농선, 조상현 등 국악인과 선산군민의 정성으로 선산문화원과 함께 건립하였다.

여성인물	유적지	종목	소재지	내용
이영도	이호우 · 이영도 생가 	등록 문화재 제293호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259-24	시조시인 이호우와 이영도가 태어난 가옥으로 현대 한국 문학사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조시인 남매의 생가라는 점에서 문학사와 향토사적 가치가 있다.
	이호우 · 이영도 시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오누이 공원 내	2003년 이호우 · 이영도 문학기념회에서 두 시인의 시비를 고향의 오누이 공원에 건립하였다.
박귀희	운당여관 		경기도 남양주 종합 촬영소	가야금 병창 무형문화재인 박귀희가 살던 집. 정통 사대부 가옥. 한 때 한국 바둑 최고봉인 국수전이 열린 곳이다. (원래 있던 곳은 종로구 운니동 65-1번지)
	명창 생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 1리	명창 생가 (칠곡군 명창기념관 건립예정)

제1장 여성, 리더십을 찾다

1. 선덕여왕

연도	내용
632	즉위, 전국에 관원을 파견하여 백성 진휼
633	신궁에 직접 제사 지내고, 대사면 및 일 년간 조세 면제 정책 시행
634	연호를 인평仁平이라 고치고 분황사 창건
635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주국낙랑군공신라왕에 책봉, 영묘사를 세움
636	부산 밑 여근곡에 숨어있던 백제군사 5백 명 격퇴
638	고구려의 칠중성 공격을 격퇴
642	백제의 의자왕에게 미후성 등 40여 성을 빼앗김
643	김유신장군 임용, 백제에게 빼앗긴 성 회복
644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연개소문에 의해 거부됨
645	황룡사 9층목탑 건립, 당의 공격을 받은 고구려에 원군 보냄, 백제에게 서변 7성을 빼앗김
647	첨성대 건립(증보 『문헌비고』 기록), 비담과 염종 등의 모반 진압, 신병으로 사망

2. 진덕여왕

연도	내용
647	즉위, 선덕여왕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비담을 비롯한 30인을 붙잡아 처형, 독자적인 연호 '태화' 사용
648	당나라 상대로 청병외교와 숙위외교 전개, 김춘추를 당에 파견해 백제 견제
649	당제에 따라 복제를 개편
650	당나라 연호였던 영휘永徽를 사용, 당나라에 여왕이 지은 태평송을 바침
651	백관의 왕에 대한 정조하례제의 실시, 품주를 집사부로 고침
652	김춘추의 둘째아들 인문을 당나라에 보내서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함, 한산주에 궁척弓尺을 설치
653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금총포를 바침
654	사망, 시호를 진덕이라 함

3. 진성여왕

연도	내용
887	즉위, 황룡사에 백좌강경을 설치, 『삼대목』 편찬 착수, 죄수 사면 및 일년간 면세 등의 민심 수습 정책
888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난을 일으켰으나 토벌하지 못함
889	북원에서 양길과 궁예가 봉기하자 토평하려다 실패
890	황룡사에서 연등 베풀어 위축된 왕권 만회 및 정치적 안정 도모
891	북원의 적수 양길이 부하인 궁예를 시켜 명주까지 함락시킴
892	완산주에서 견훤이 스스로 후백제를 건국
894	최치원이 시무10조를 제시
895	헌강왕의 서자 요를 태자로 책립
896	적고적이 민가를 약탈하는 등 수도의 안위가 불안해짐
897	태자에게 양위한 뒤 그 해에 사망

4. 소헌왕후

연도	내용
1395	청송 심씨 가문에서 출생
1408	충녕군 도祹와 가례를 올려 빈이 되고, 경숙옹주에 봉해짐
1417	삼한국대부인에 개봉
1418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에 봉해짐 즉위 후 왕후로 봉하여 공비라 일컬어짐
1419	세종 즉위, 청송현에서 청보군으로 승격
1432	왕비로 개봉
1446	사망
1459	청송 도호부로 승격

제2장 일상을 역사로 만들다



1.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

연도	내용
1598	경북 안동출생, 아버지 장흥효, 어머니 안동권씨
1607	10세 전후에 「학발시」, 「성인음」, 「경신음」, 「소소음」 등을 지음
1608	소학, 십구사략 등을 스스로 깨우침
1616	석계 이시명에게 출가
1622	친정어머니 권씨부인 사망
1627	정묘호란으로 넘치는 피난민을 구휼
1631	석계종택을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으로 이거
1633	시아버지 사망, 친정 아버지 경당 장흥효 사망, 친정의 계모와 동생들 보살핌
1636	병자호란 발발
1641	대흉년으로 지친 이웃과 걸인을 구휼
1642	칠남 삼녀를 훌륭히 성장시켰으며, 칠남이 세칭 칠현자로 칭송받음
1644	시어머니 증정부인 진성이씨 사망
1652	병자국치로 영양군 수비로 이거
1664	벽계 이은, 밀암 이재에게 학문을 권려하는 오언시를 써줌
1689	기사환국 속에서 정부인 교지를 받음
1670	「희우희」를 씀
1672	『음식디미방』 저술
1673	안동부 대명동(풍산읍 수곡리)으로 이거, 남편 석계 이시명 사망
1680	영해부 석보에서 사망(1689년 정부인 교지 받음)
1904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 발간
1999	'이 달(11월)의 문화인물' 로 선정됨(문화관광부)

제3장 여성,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1. 남자현

연도	내용
1873	12월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출생 아버지 남정한, 어머니 이씨부인
1892	안동시 일직면 귀미동 출신의 김영주와 혼인
1896	7월 남편 의병전투에서 전사 (진보군 진보면 흥구동 전투에서 전사)
1919	2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감, 서울에서 3·1독립만세에 참여, 3월 만주로 망명, 이후 만주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여자교육회를 조직하여 교육활동을 펼침
1927	길림사건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체포 구금되자 구명운동에 나섬 4월 사이토오 총독암살을 위해 서울로 들어옴
1931	10월 김동삼이 체포되어 하얼빈주재 일본총영사관에 갇히자 구출작전에 나섬
1932	일본의 만주침략을 조사하기 위해 9월 국제연맹조사단(단장 릿튼)이 방문하자 왼쪽 무명지 두 마디를 잘라 '한국독립원' 이라는 혈서를 써서 전달하고자 함
1933	2월 일본전권대사 부토 처단 의거를 벌이다 체포, 가혹한 고문에 시달리다 단식투쟁을 벌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8월 순국, 하얼빈 한국인묘지에 안장, 10월 묘 앞에 비석이 세워짐
1934	순국1주기 추도회가 아들 김성삼 집에서 열림
1946	8월 독립촉성애국부인회가 추념회 개최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1999	11월 영양군에서 생가 복원

2. 김락

연도	내용
1862	12월 2일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출생 아버지 김진린, 어머니 박주
1877	어머니 사망
1880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의 이중업과 혼인
1884	첫딸 이호 출생
1886	시어머니 사망
1889	첫아들 이동흠 출생
1896	1월(음력 1895년 12월) 시아버지 이만도 선성의진의 대장으로 피임, 곧 의진이 해산됨
1905	11월 을사늑약 체결, 시아버지 이만도 을사늑약 파기와 오적처단을 요구하는 「청참오적소」를 올림
1910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이만도 9월 18일 단식 시작, 10월 10일 순국
1911	오빠 김대락, 형부 이상룡 만주로 망명
1918	아들 이동흠 독립운동 자금모집 활동을 벌이다 체포, 징역 5개월 언도받고 옥고를 치름
1919	김락 3 · 1독립만세에 참여했다 체포, 고문으로 실명 남편 이중업 파리장서의거 펼침
1921	2차 유림단의거를 준비하던 남편 이중업 병사
1926	5월 아들 이동흠 · 이종흠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펼치다 체포
1927	2월 이동흠 면소로 풀려남, 3월 이종흠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고 옥고
1929	두 눈을 잃고 온갖 고초를 겪다 2월 12일 사망
2001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3. 김우락 · 허은

연도	내용
1854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출생, 아버지 김진린, 어머니 박주
1875	첫아들 이준형 출생
1905	을사늑약이 있자 남편 이상룡 가야산에 의병기지 건설
1907	허은 출생, 아버지 허발, 어머니 영천이씨
1909	이상룡 대한협회 안동지회 조직, 회장으로 활약
1911	가족들과 만주로 망명, 이상룡 경학사 조직, 신흥강습소 설립
1914	김우락 「간운ᄉᆞ」 지음
1915	8세의 허은 일가와 함께 만주로 망명
1918	이상룡 길남장 설립
1919	이상룡 서로군정서 조직, 독판에 피임
1922	손자 이병화 결혼, 손부로 허은을 맞음. 이후 허은은 만주에서 온갖 고초를 겪음
1925	이상룡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국무령 피임
1932	5월 이상룡 순국, 김우락 · 허은 국내로 귀국
1933	4월 79세를 일기로 김우락 사망
1942	아들 이준형 자결
1944	이준형의 부인 이중숙 사망
1950	허은의 남편 이병화 사망
1990	이상룡의 유해 만주에서 국내로 봉환
1995	88세의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출판
1997	허은 사망



4. 이해동

연도	내용
1905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출생 아버지 이원일, 어머니 김경모
1911	가족들과 만주로 망명
1921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출신의 김정묵과 혼인 시아버지 김동삼, 시어머니 박순부
1925	장녀 김덕축 출생
1926	영안현 주가툰에서 아성현 평방으로 옮김
1928	장자 김장생 출생
1931	10월 시아버지 김동삼과 친청 아버지 이원일 체포 11월 이해동은 가족들과 하얼빈 시내로 이사
1933	4월 차자 김중생 출생
1934	11월 취원창으로 이주
1936	차녀 김복생 출생
1937	4월 시아버지 김동삼 옥중 순국
1950	봄 남편 김정묵 사망, 가을 시어머니 박순부 사망
1989	1월 아들 김중생과 함께 고국으로 영주 귀국, 김동삼 묘소에 참배
1990	회고록 『만주생활 77년』 출간
2003	사망

5. 배재형의 아내 김씨부인

연도	내용
미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출생, 아버지 김익모
미상	배재형과 혼인, 시아버지 배인환
1909	시아버지 배인환 대한협회 안동지회에서 활동
1912	일가 10여 호와 함께 만주로 망명, 통화현 을밀乙密에 정착
1914	합니하哈泥河 청구자靑溝子로 이주 시아버지 배인환 동진학교를 세우고 교감으로 활약
1915	시아버지 배인환 마록구馬鹿溝에 협창학교 설립, 교감으로 활약
1919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약하던 남편 병사 상을 치른 김씨부인 단식 시작, 18일 만에 순절 6월 6일 한족회에서 「포열장」 추서

6. 강경옥

연도	내용
1850	강경옥 출생(추정)
1867	전씨와 혼인
1881	남편 전씨 사망, 외아들을 키우며, 소작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림
1923	11월 11일 풍산소작인회 조직, 여기에 가입
1927	패물을 팔아 재정지원을 하는 등 풍산소작인회 활동에 헌신하다 노환으로 9월 17일 별세, 10월 1일 안동청년단체에서 단체장으로 영결식을 하려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함

7. 권성

연도	내용
1868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출생 아버지 권양하, 어머니 김중태의 딸
1885	예안면 부포리 이명우와 혼인
1894	남편 이명우 사마시 합격
1905	을사늑약이 있자 남편 이명우 칩거
1910	나라가 무너지고 남편이 자진을 결심하자, 권성은 상황노릇과 양친이 살아계시니 때가 아니라고 만류
1912	갈평리(충북 보은군 마로면)로 이주
1915	시아버지 이정호 사망, 3년 상을 치른 뒤 봉서리鳳棲里(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로 이주
1918	11월 5일 시어머니 사망
1919	1월 21일(음 1918. 12. 20) 광무황제 승하
1921	1월 28일(음 1920. 12. 20)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 충의의 길을 가는 남편을 따라 의부의 길을 감



8. 이효정

연도	내용
1913	7월 28일 봉화군 춘양 출생 아버지는 이병룡, 어머니는 안동권씨 권병하의 딸
1928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29	광주학생 의거 전국으로 확산, 이효정은 학교에서 만세를 부르다 종로경찰서에 구금
1930	광주학생의거 1주년을 맞아 백지동맹 투쟁을 벌임
1931	졸업 뒤 울산에서 잠시 교사 생활을 함, 그 뒤 경성트로이카에 가담 노동운동 전개
1933	9월 신설동의 종연방적 경성제사공장 총파업 주도 이 때문에 동대문경찰서에 붙잡혀 고초를 겪음
1935	11월 '경성지방좌익노동조합 조직준비회' 에 가담하여 동지 규합과 항일의식 고취에 주력하다가 검거, 서대문형무소에서 13개월간 옥고를 치름
1937	출옥 후 박두복과 혼인, 시댁 울산에서 평범한 주부로 생활
1950	남편의 월북으로 요시찰 인물로 지목, 30년간 2남 1녀를 데리고 갖은 고초를 겪음
1989	시집 『회상』 출간
1995	시집 『여든을 살면서』 출간
2006	나라에서 건국포장 추서
2010	97세를 일기로 8월 14일 사망,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제4장 여성, 새로운 길을 밝히다

1. 김설보

연도	내용
1841	(조선 헌종 7년) 12월 30일 출생
1892	(고종 29년) 숲 조성을 위해 거금을 기부, 마을사람들이 김설보를 기리는 공덕비 건립
1900	(고종 37년) 1월 18일 사망



2. 최송설당

연도	내용
1855	경북 김산군(현 김천시)에서 출생
1886	아버지 사망
1894	상경하여 적선동에 기거
1897	고종으로부터 '송설당' 당호 수여. 왕세자 이은(영친왕)의 보모가 됨
1901	고종에게 상소하여 집안이 몰락한 지 89년 만에 명예회복
1908	대한매일신보에 의연금 전달
1912	경성 무교동 저택 설립, 옥호를 송설당이라고 현액 김산교하 교동주민 구제에 벼 50섬 희사
1917	김천공립보통학교, 금릉유치원 및 금릉학원에 유지비 기부
1919	김천 고성산록에 정걸재 세움
1922	『송설당집』 3권 3책 간행. 세계 각국 도서관 배부
1930	김천고보 설립허가원 경북도 제출. 김천고보 후원회 조직
1931	김천고등보통학교(현 김천중고교) 설립
1935	안채로 쓰던 취백헌 건립, 조각가 김복진에 의해 송설당 동상 건립
1939	사망



제5장 여성, 예술을 탐하다

1. 백신애

연도	내용
1908	경북 영천 창구동에서 출생
1915	소학, 중용, 대학 등 한학 배움
1918	영천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학
1921	영천공립보통학교 3학년 중퇴, 대구 종로초등학교 중퇴
1922	백술동이란 이름으로 영천보통학교 4학년 편입
1923	영천공립보통 4년 졸업. 경북공립사범 단기 강습과 입학
1924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원
1925	경산 자인보통학교로 전임,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성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여성운동가 활동
1927	여성단체 가입이 탄로나 권고 사직 경성여성청년동맹의 상임위원, 2주년 집회 러시아 시베리아를 다녀오는 길에 일본 관헌에게 체포돼 고문당함
1929	단편「나의 어머니」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1930	일본으로 가서 예술과 문학공부. 연극 주연
1933	귀국 후 이근채와 결혼. 신여성지에「꺼래이」발표
1934	개벽지에「적빈」등을 발표
1935	「멀리간 동무」,「의혹의 흑모」,「악부자」발표
1938	중국 상해로 갔다가 귀국,「광인수기」,「소독부」발표, 5월 남편 이금채와 별거 후 용계동 친정으로 돌아옴 건강악화로 입원, 9월 25일 퇴원, 5일후 오빠 백기호와 인천항을 통해 중국 청도, 상해 등지를 약 40일간 유랑 11월 15일 상해 체류중 집사를 시켜 법적 이혼수속을 밟음
1939	위장병으로 요절



2. 박녹주

연도	내용
1905	경북 선산에서 출생
1916	박기홍에 사사
1918	김창환에 「흥보가」 전수
1919	조진영에 「육자배기」 사사
1922	서울 상경해 송만갑에게 단가 「진국명산」과 「춘향가」 중 「사랑가」에서 「십장가」까지 배움
1928	콜럼비아 레코드사에서 심청가 취입 빅타, 오케레코드사에서 많은 음반을 취입(~1945년) 조선극장 팔도명창대회에서 김경중 김유정 만남
1929	김정문에게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데」까지 배움
1930	관훈동 성악연구회 나감
1933	조선 성악연구회 발족 당시 창립 회원
1935	춘향극 공연으로 호평받음
1937	창극좌에 입단
1938	「숙영낭자전」 초연
1945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1960	지구레코드사에서 「흥보가」 전바탕을 취입
1964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 「춘향가」의 예능보유자로 지정
1970	「흥부가」의 예능보유자로 변경, 지정
1971	판소리보존회 이사장을 맡음
1978	선산에서 고별무대 가짐
1979	사망



3. 박귀희

연도	내용
1921	경북 칠곡 가산면 하판동에서 출생
1928	대구공립보통학교 입학
1934	대동가극단 입단, 대구극장에서 첫무대 소상팔경가
1935	대구 화원 용연사 첫번째 백일공부
1939	전남 담양 지실마을 별장 두번째 백일공부
1939	동일창극단 창립(임방울 박초월과 함께)
1940	경남 하동 쌍계사 세번째 백일공부
1940	강태홍에게 가야금 사사 조선일보 주최 전국명창대회 장원 수상
1941	오태석에게 가야금 시사
1943	동일창극단 창립(임방울 박초월과 함께) 단장 취임
1945	여성국악동호회 결성, 상무이사 취임
1947	조선창악회 창립
1950	여성국악동지사 창단
1955	한국민속예술원장
1961	한국무악원 창설(동경), 한국민속가무예술단장. 일본 순회공연
1962	대구 국극사 결성
1966	동양방송 주최 명인명창 최우수상
1968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197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상임이사 취임
1973	국민훈장 동백장
1977	서울시 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1979	향사 박귀희 가야금병창곡집 출간
1980	국립창극단장 취임
1983	국제문화협회 사회교육문화상 수상
1989	KBS 국악대상
1993	서울 운니동 자택 별세



4. 이영도

연도	내용
1916	경북 청도에서 출생
1935	대구 부호 박기주와 혼인
1936	딸 박동지 출생
1945	남편 박기주 위궤양으로 사망. 『죽순』에 시 「제야」를 발표
1946	작곡가 윤이상, 청마 유치환 등이 근무하던 통영여고 교사로 부임 마산 결핵요양원에서 기독교로 개종
1954	첫 시조집 「청저집」 출간
1955	마산 성지여고로 옮김
1956	「바람」, 「시조3수」 발표, 부산여자대학에서 강의
1958	첫 수필집 『춘근집』 발표
1959	「설악산시초」 발표
1960	어머니 시조모임 달무리회, 꽃무리회 결성
1963	부산어린이집 관장 부임
1964	『현대시학』 편집위원 역임, 부산어린이회관 관장 역임
1965	「목련화」, 「수혈」 발표
1966	수필집 『비둘기 내리는 뜨락』 발간, 눌월문화상 수상
1967	「나목」 발표, 서울 마포로 이사
1968	「백록담」 발표, 시조집 『석류』 발간
1969	정운 시조문학상 제정
1970	오빠 이호우 시인 급서. 부산여자대학에서 강의
1971	수필집 『머나먼 사념의 길목』 발간
1976	뇌일혈 사망, 문인장
2006	이영도 문학의 밤, 제 20회 이영도 시조문학상

제1장 여성, 리더십을 찾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길태숙, 윤헤신, 최선경, 『삼국유사와 여성』(이회, 2003)
김부식저, 김종권역, 『완역 삼국사기』(광조출판사, 1976)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세종대왕실록』(웅진지식하우스, 2008)
윤정란, 『조선의 왕비』(차림, 1999)
이수광, 『한국 역사의 미인』(영림카디널, 2006)
이정옥, 『이정옥 교수와 함께하는 경주 기행』(삼우애드컴, 2007)
일연저, 이동환 교감, 『교감 삼국유사』(한국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3)
정종목, 『역사스페셜1』(효형출판, 2000)

제2장 여성, 일상을 역사로 만들다

『근사록』, 『논어』, 『대학』, 『맹자』, 『소학』, 『시경』, 『심경』, 『십구사략』, 『열녀전』, 『예기』, 『장자』, 『중용』

김경미 외,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보고사, 2006).
김구현, 『위대한 어머니』(안동문화원, 1999).
김서령, 『장계향, 깨달은 조선 여인』(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9).
김춘희, "장계향의 여중군자상과 군자교육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김형수, "석계부인 안동 장씨에 대하여", 『여성문제연구』2(1972).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외, 박종성 역, 『생각의 탄생』(에코의 서재, 2007).
박광용, 『11월의 문화인물 정부인 안동 장씨』(문화관광부, 1999).

박용옥, “임윤지당”,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상)』(한국여성개발원. 1998).
박희택, “『홍범연의』에 나타난 장계향의 교육철학”,
『2011 장계향포럼 자료집』(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1).
박희택, “장계향학의 정립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제5차 경북여성정책
콜로키움 자료집』(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0).
배영동, “장계향의 실명 고증과 생애 검토”,
『2011 장계향포럼 자료집』(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1).
배영동, “종가 사당을 통해 본 조상관”, 『한국민속학』39(한국민속학회, 2004).
송찬식, "홍범연의 해제", 『한국학논총』5(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이문열, 『선택』(민음사, 1997).
이순구, “김만덕”,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상)』(한국여성개발원. 1998).
이순구, “정부인 안동 장씨의 성리학적 삶”,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집문당, 2003).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너머북스, 2011).
이시명, 김태안 역, 『국역 석계집』(석계선생문집간행위원회, 2002).
이원걸, 『안동 여류 한시』(이회문화사, 2002).
이재, 교문회 역, 『한 도학자의 생애』(갈암종택, 2007).
이함, 이정섭, 이장우 역, 『국역 운악선생 문집』(충효당, 1992).
이현일, 권경열 역, 『국역 갈암집 6』(민족문화추진회, 2004).
이휘일, 성백효 역, 『국역 존재선생 문집』(한국국학진흥원, 2009).
이휘일, 이현일, 『홍범연의 영인본』(홍범연의중간소, 1982).
장계향 외, 이재호 역, 『국역 정부인 안동 장씨 실기』(실기간행소, 1999).
장계향, 백두현 주해, 『음식디미방』(글누림, 2006).
장계향, 황혜성 외편,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궁중음식연구원, 2010).
장흥효, 김태안 역, 『국역 경당선생 문집』(경당선생기념사업회, 2006).
정동주, 『G. Mother 장계향 평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1).
정혜경, 『음식 오딧세이』(생각의 나무, 2007).
조혜란, “일상의 삶을 역사로 만든 여인, 안동 장씨”,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돌베개, 2004).
허철회, “정부인 안동 장씨의 생애와 시문연구”, 『안동어문학』 1(안동어문학회, 1996).
홍필남, “안동 장씨의 예술세계”,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제3장 여성,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백하일기』, 『석주유고』, 『이준형 제적등본』

강용권, 『죽은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도서출판장산, 1996)
강윤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연구』 제6집 (백범학술원, 2009)
고순희, “일제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김재춘 · 김오승 편, 『의성김씨대동보』 卷之二,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2)
김정미,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3)
김희곤 외, 『봉화의 독립운동사』(봉화군, 2009)
김희곤 외, 『영양의 독립운동사』(영양문화원, 2006)
김희곤,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지식산업사, 2009)
김희곤, 『이육사 평전』(푸른역사, 2010)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국역 백하일기』(경인문화사, 2011)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국역 석주유고』(경인문화사, 2007)
이해동, 『만주생활 77년』(명지출판사, 1990)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제5집 (안동사학회, 2000)
채영국, 『서간도 독립군의 개척자』(역사공간, 2007)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민족문제연구소, 2010)
EBS, 『독립운동가 이효정의 나의 이야기』(3 · 1절 기념 다큐멘터리, 2009)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제4장 여성, 새로운 길을 밝히다

김창겸 편, 『최송설당』(경인문화사, 2008)
이삼우편, 『노거수』(노거수회, 2003)
최미화, 『여성백년』(홍익포럼, 1999)

제5장 여성, 예술을 탐하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8 경북 여성인물 탐방 프로그램 개발』(2008)
이강언 · 조두섭 『대구 · 경북 근대문인연구』(태학사, 1999)
이영도 시조전집, 『보리고개』(목언예원, 2006)
조현경, 『이영도 평전』 – 사랑은 시보다 아름다웠다 (영학출판사, 1978)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박귀희의 일생과 국악 활동』
〈매일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 경북여성인물사 |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1판 1쇄 인쇄 2011년 12월 28일
1판 1쇄 발행 2011년 12월 30일

발 행 경북여성정책개발원
712-210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전 화 : 053-602-5410
팩 스 : 053-817-6018
홈페이지 : www.forwoman.or.kr

출 판 올 댓 트위터
등 록 : 제2011-000035호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65-8번지
전 화 : 0505-555-5225
팩 스 : 0505-555-5226
이메일 : yzoote@naver.com

ISBN 978-89-967741-5-0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